

2016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김정은 정권 5년,  
북한사회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2016.8.24(수) 14:00~18:0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토론회 진행순서

14:00~14:10 개회사 정근식 통일평화연구원장

### 제1부 조사결과 : 북한의 시장화, 주민생활 그리고 주민의식 변화

- 14:10~15:40
- 발표 1 시장화, 소득 분화, 경제개혁 인식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발표 2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  
정은미 (서울대)
  - 발표 3 대남인식과 정치사회의식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발표 4 통일과 주변국 인식  
최규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제2부 패널토론 : 김정은 정권 5년, 북한사회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 16:00~18:00
- 사 회 정근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 패 널 권영경 (통일교육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  
나종연 (서울대)  
이철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인애 (통일연구원)



## 목 차

조사연구 개요 .....	09
발표 1 : 시장화, 소득 분화, 경제개혁 인식 .....	21
시장화, 소득 분화, 경제개혁 인식 (요약) .....	58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 2 :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 .....	69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 (요약) .....	84
정은미 (서울대)	
발표 3 : 대남인식과 정치사회의식 .....	91
대남인식과 정치사회의식 (요약) .....	110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 4 : 통일과 주변국 인식 .....	115
통일과 주변국 인식 (요약) .....	126
최규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 **김정은 정권 5년, 북한사회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

- 조사연구 개요



2016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 김정은 정권 5년, 북한사회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조사연구 개요

조사방법, 표본, 조사내용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조사기간	4/15-6/4	4/6-6/2	6/13-7/16	5/28-6/30	5/22-7/6	6/10-8/8
탈북연도						
2010	104					
2011	1	127				
2012			133			
2013				149		
2014					146	
2015						135
2016						3
합계	105	127	133	149	146	138
조사방법	면대면 설문조사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조사내용	북한 주민의식					
통일의식	○	○	○	○	○	○
대남의식	○	○	○	○	○	○
북한실태	○	○	○	○	○	○
남한적응	○	○	○	○	○	○
조사내용	북한 사회변동					
주민생활 (의식주 등)	--	○	○	○	○	○
정보화	--				○	○
사회보장	--					○
사적 경제활동	--	○	○	○	○	○
경제개혁인식	--			○	○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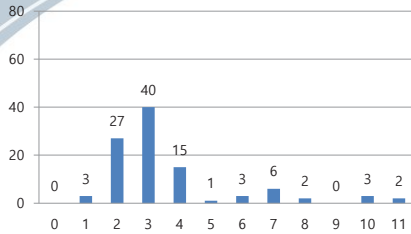
연령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대	13	19	22	21	24	22	17	31	16	29	14	38
30대	12	17	11	12	17	12	13	15	20	25	16	16
40대	6	10	10	21	11	27	12	27	13	24	15	19
50대	1	14	6	11	7	9	6	13	6	10	7	9
60대 이상	4	9	7	6	0	4	2	13	2	1	1	3
합계	36	69	56	71	59	74	50	99	57	89	53	85

- 2014/2015 조사의 응답자 중 10대는 각각 3명, 1명이었으며, 10대는 20대에 포함됨. 2016년 조사에는 10대가 없었음.
- 20대 37.7%, 30대 23.2%, 40대 24.6%, 50대 11.6%, 60대 이상 2.9%
- 20대 이상 응답자의 비율이 과거 조사보다 높음.
- 남성은 38.4% 여성은 61.6%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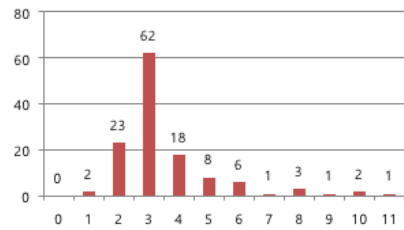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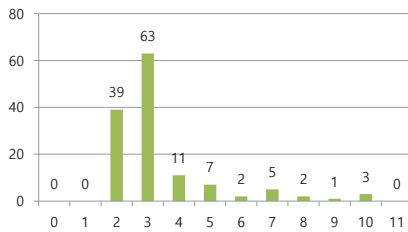
2011년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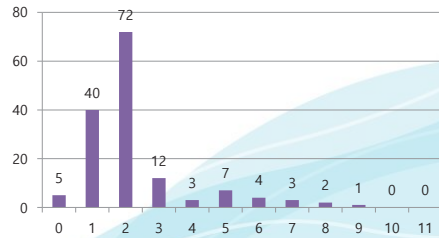
2012년 (단위:명)



2013년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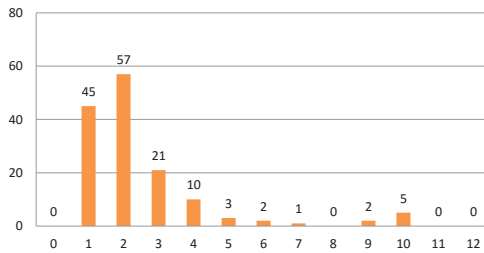


2014년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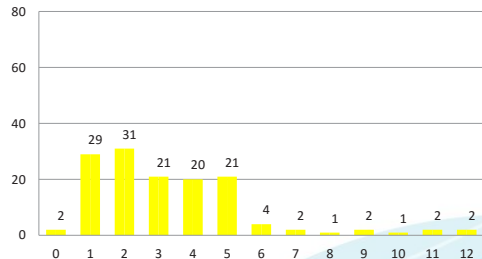


#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기간

2015년 (단위:명)



2016년 (단위:명)



## 탈북 전 최종 거주지

(단위: 명)

북한의 출신지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평양	0	0	1	3	3	5
남포	0	1	0	2	1	2
평안남도	5	0	2	4	3	2
평안북도	0	1	6	0	3	1
함경남도	4	14	11	9	5	4
함경북도	55	65	51	53	64	58
자강도	0	0	0	1	0	0
양강도	40	39	58	72	60	63
황해남도	0	3	0	1	1	0
황해북도	1	3	1	2	4	0
강원도	0	1	2	2	2	3
합계	105	127	132	149	146	138

42.0%

45.7%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교육수준

(단위: %)

교육수준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대학교	11.4	10.4	16.5	13.6	19.9	13.0
전문학교	21.0	18.4	11.3	21.8	16.4	11.6
고등중학교	66.7	66.4	71.4	62.6	61.0	74.6
인민학교	1.0	3.2	0.0	2.0	2.1	0.7
무학	0.0	1.6	0.8	0.0	0.7	0.0
합계(빈도)	105	125	133	147	146	138

- 전문학교 이상 북한학력자: 24.6%
- 고등중학교 북한학력자: 74.6%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직업 분포

(단위:%)

북한에서의 직업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노동자	29.3	37.6	31.6	31.1	26.2	22.5
농민	9.1	8.8	3.8	7.4	4.8	9.4
사무원	13.1	4.8	9.8	12.2	9.0	10.9
전문가 (교원, 의사, 기술자 등)	8.1	7.2	8.3	3.4	5.5	7.2
학생	7.1	6.4	6.0	7.4	4.8	4.3
군인	6.1	4.0	4.5	4.7	4.8	8.0
외화벌이일군	1.0	2.4	2.3	0.0	4.1	2.9
장사	11.1	11.2	13.5	4.7	20.7	12.3
주부	11.1	11.2	16.5	18.9	11.7	13.0
무직 및 기타	4.0	6.4	3.8	10.1	8.3	9.4
합계(빈도)	99	125	133	148	145	138

## 당원 여부

(단위:%)

당원여부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원	9.9	14.4	14.3	13.5	17.9	18.8
후보당원	1.0	0.0	0.0	0.7	0.7	0.0
비당원	89.1	85.6	85.7	85.8	81.4	81.2
합계(빈도)	101	125	133	147	145	138

## 공식 월급 수준

(단위:명)

공식월급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원	27	32	69	91	80	80	58.0%
1000원 이하	7	10	2	13	7	7	
5000원 이하	37	46	49	39	52	37	26.8%
1만원 이하	2	4	5	2	1	4	
10만원 이하	6	9	0	3	4	5	
50만원 이하	2	5	4	0	0	3	
100만원 이하	1	0	2	0	1	2	
100만원 초과	0	0	0	1	1	0	
무응답	23	21	2				
합계	105	127	133	149	146	138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비공식 수입

(단위:명)

비공식 수입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원	18	21	32	33	24	32	23.2%
1000원 이하	6	0	3	4	0	2	
5000원 이하	7	2	0	2	0	1	
1만원 이하	2	2	3	2	0	1	
10만원 이하	18	25	9	26	9	11	
50만원 이하	19	44	52	43	43	37	26.8%
100만원 이하	6	8	10	17	36	33	23.9%
100만원 초과	6	7	19	15	34	22	15.2%
무응답	23	18	2	2	0	0	
합계	105	127	133	144	146	138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장사활동 경험 유무 (단위:%)

장사경험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있다	71.3	69.8	74.4	69.8	76.7	68.8
없다	28.7	30.2	25.6	30.2	23.3	31.2
합계 (빈도)	101	126	133	149	146	138

## 탈북 후 북한 소식 접근성 (단위:%)

북한소식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3.7	19.7	22.6	24.8	19.3	26.1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6.9	59.1	57.1	57.8	55.2	50.7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9.4	21.3	20.3	17.5	25.5	23.2
합계(빈도)	102	127	133	149	145	138

## 남한내 친척 유무

(단위:%)

남한친척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없다	40.2	37.8	34.6	30.9	41.8	60.9
있다	59.8	62.2	65.4	69.1	58.2	39.1
합계(빈도)	102	127	133	149	146	138

남한 내 친척이 없다라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이 감소함.

## 결혼 상태(현)

(단위:%)

결혼상태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미혼	55.6	46.0	37.6	30.9	39.3	42.0
결혼 (동거포함)	44.4	44.4	53.4	55.0	42.8	27.1
이혼	0.0	9.5	9.0	14.9	17.9	10.9
합계 (빈도)	99	126	133	149	146	138

# 자녀 수(현)

(단위:%)

자녀의 수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명	29.6	30.4	38.4	34.2	39.7	43.5
1명	35.8	34.3	32.3	27.5	35.6	33.3
2명	22.2	24.5	24.1	29.5	21.2	18.8
3명	7.4	8.8	4.5	6.7	2.1	4.3
4명	4.9	2.0	0.8	1.3	1.4	0.0
5명	0.0	0.0	0.0	0.7	0.0	0.0
합계(빈도)	81	102	133	149	146	138

# 감사합니다!



---

# 김정은 정권 5년, 북한사회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

- 발표 1

시장화, 소득 분화, 경제개혁 인식

장용석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시장화, 소득 분화, 경제개혁 인식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1

## 시장화-사적 경제활동

(장사경험, 주 소득원, 애로사항, 뇌물)

장사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
2012년	88	38	126
	69.8%	30.2%	100.0%
2013년	99	34	133
	74.4%	25.6%	100.0%
2014년	104	45	149
	69.8%	30.2%	100.0%
2015년	112	34	146
	76.7%	23.3%	100.0%
2016년	95	43	138
	68.8%	31.2%	100.0%
전체	498	194	692
	72.0%	28.0%	100.0%

※ 장사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
2012년	88	38	126
	69.8%	30.2%	100.0%
2013~14년	203	79	282
	72.0%	28.0%	100.0%
2015~16년	207	77	284
	72.9%	27.1%	100.0%
전체	498	194	692
	72.0%	28.0%	100.0%

장사경험 비중이 2015년 조사보다 7.9% 감소  
 김정일 정권 말년(2012년 조사)과 김정은 정권(2013~16년 조사) 간 비슷한 수준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 조사)과 후반(2015~16년 조사) 간 동일한 수준

※ 조사 직전 연도에 북한에서 나온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전 연도 실태 조사임에 감안

성별 장사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
남자	2012년	33	22	55
		60.0%	40.0%	100.0%
	2013~14년	71	38	109
		65.1%	34.9%	100.0%
	2015~16년	77	33	110
70.0%	30.0%	100.0%		
소계	181	93	274	
	66.1%	33.9%	100.0%	
여자	2012년	55	16	71
		77.5%	22.5%	100.0%
	2013~14년	132	41	173
		76.3%	23.7%	100.0%
	2015~16년	130	44	174
74.7%	25.3%	100.0%		
소계	317	101	418	
	75.8%	24.2%	100.0%	

김정일 정권 말년(2012년),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2016년)을 비교하면 남자의 경우 점진적 증가 추세이고 여자의 경우 하향 정체 추세

### 직업별 장사 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	구분		있다	없다	전체
노동자	2014년	77.1%	22.9%	100.0%	사무원	2014년	66.7%	33.3%	100.0%
	2015년	74.5%	25.5%	100.0%		2015년	79.2%	20.8%	100.0%
	2016년	63.9%	36.1%	100.0%		2016년	54.5%	45.5%	100.0%
	소계	72.5%	27.5%	100.0%		소계	67.2%	32.8%	100.0%
농민	2014년	46.2%	53.8%	100.0%	가정부인	2014년	92.0%	8.0%	100.0%
	2015년	50.0%	50.0%	100.0%		2015년	88.6%	11.4%	100.0%
	2016년	64.3%	35.7%	100.0%		2016년	81.5%	18.5%	100.0%
	소계	54.3%	45.7%	100.0%		소계	87.4%	12.6%	100.0%

최근 3년 간 직업별 추세를 보면  
 노동자 감소, 농민 증가, 사무원 감소, 가정부인 감소

### 교육수준별 장사 경험

구분	있다	없다	전체	
대학교	2012년	38.5%	61.5%	100.0%
	2013~14년	71.4%	28.6%	100.0%
	2015~16년	74.5%	25.5%	100.0%
	소계	68.6%	31.4%	100.0%
전문학교	2012년	78.3%	21.7%	100.0%
	2013~14년	72.3%	27.7%	100.0%
	2015~16년	75.0%	25.0%	100.0%
	소계	74.5%	25.5%	100.0%
고등중학교	2012년	72.0%	28.0%	100.0%
	2013~14년	73.3%	26.7%	100.0%
	2015~16년	73.4%	26.6%	100.0%
	소계	73.1%	26.9%	100.0%

김정일 정권 말년(2012년),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2016년) 비교시  
 대학교 학력수준 증가, 전문학교 학력수준 등락, 고등중학교 학력수준 정체

### 연령대별 장사경험

구분	연도	장사경험		전체
		있다	없다	
20~35세 미만	2012년	64.8%	35.2%	100.0%
	2013~14년	66.1%	33.9%	100.0%
	2015~16년	65.2%	34.8%	100.0%
	소계	65.5%	34.5%	100.0%
35~45세 미만	2012년	80.8%	19.2%	100.0%
	2013~14년	86.0%	14.0%	100.0%
	2015~16년	79.1%	20.9%	100.0%
	소계	82.0%	18.0%	100.0%
45~55세 미만	2012년	82.1%	17.9%	100.0%
	2013~14년	87.1%	12.9%	100.0%
	2015~16년	83.6%	16.4%	100.0%
	소계	84.8%	15.2%	100.0%
55세 이상	2012년	50.0%	50.0%	100.0%
	2013~14년	51.5%	48.5%	100.0%
	2015~16년	76.5%	23.5%	100.0%
	소계	57.4%	42.6%	100.0%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2016년) 간 비교하면 35~45세 미만(90년대 고난의 행군기 사회진출) 감소/55세 이상(70년대 이전 사회진출) 증가  
 전체적으로는 35~45세 미만과 45~55세 미만(84년 8.3조치 전후 사회진출) 연령대의 비중이 80% 이상

### 당원여부별 장사경험자 비중

구분	당원	비당원
2012년	10	77
	55.6%	72.6%
2013년	15	84
	78.9%	73.7%
2014년	12	91
	60.0%	71.7%
2015년	21	90
	80.8%	76.3%
2016년	16	79
	61.5%	70.5%
소계	74	421
	67.9%	73.0%

### ※ 당원여부별 장사경험자 비중

구분	당원	비당원
2012년	10	77
	55.6%	72.6%
2013~14년	27	175
	69.2%	72.6%
2015~16년	37	169
	71.2%	73.5%
소계	74	421
	67.9%	73.0%

김정일 정권 말년(2012년)보다 김정은 정권(2013~16년)에서 당원 증가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2016년)을 비교하면 당원 여부와 무관하게 대체로 정체된 양상

###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구분	소매장사	개인 편의 봉사	개인 (임)가공	식당, 상점 임대 운영	되거리 장사	외화 벌이	돈장사	샅벌이	해외 파견	기타	전체
2012년	39	5	2	2	11	11	7	4	1	24	106
	36.8%	4.7%	1.9%	1.9%	10.4%	10.4%	6.6%	3.8%	.9%	22.6%	100.0%
2013년	45	7	5	0	7	14	6	12	2	19	117
	38.5%	6.0%	4.3%	0.0%	6.0%	12.0%	5.1%	10.3%	1.7%	16.2%	100.0%
2014년	40	7	4	4	20	8	4	10	2	27	126
	31.7%	5.6%	3.2%	3.2%	15.9%	6.3%	3.2%	7.9%	1.6%	21.4%	100.0%
2015년	35	0	3	6	17	20	10	3	0	34	128
	27.3%	0.0%	2.3%	4.7%	13.3%	15.6%	7.8%	2.3%	0.0%	26.6%	100.0%
2016년	26	4	0	3	27	10	4	8	1	38	121
	21.5%	3.3%	0.0%	2.5%	22.3%	8.3%	3.3%	6.6%	0.8%	31.4%	100.0%
전체	185	23	14	15	82	63	31	37	6	142	598
	30.9%	3.8%	2.3%	2.5%	13.7%	10.5%	5.2%	6.2%	1.0%	23.7%	100.0%

2015년에 비해 소매장사(-5.8%)와 외화벌이(-7.3%) 감소 / 되거리장사(+9.0%) 증가  
 전체적으로 소매장사 지속 감소, 되거리장사와 기타(밀수 등) 지속 증가/장사(소매+도매) 비중은 44.6%

###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기간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전체
2012년	16	6	29	16	36	103
	15.5%	5.8%	28.2%	15.5%	35.0%	100.0%
2013년	9	9	20	19	62	119
	7.6%	7.6%	16.8%	16.0%	52.1%	100.0%
2014년	10	6	18	23	66	123
	8.1%	4.9%	14.6%	18.7%	53.7%	100.0%
2015년	12	9	27	25	56	129
	9.3%	7.0%	20.9%	19.4%	43.4%	100.0%
2016년	5	15	24	19	58	121
	4.1%	12.4%	19.8%	15.7%	47.9%	100.0%
전체	52	45	118	102	278	595
	8.7%	7.6%	19.8%	17.1%	46.7%	100.0%

2015년에 비해 6개월 미만(-5.2%) 감소, 6개월~1년 미만(+5.4%)과 5년 이상(+4.5%) 증가  
 전체적으로 6개월 미만 감소 추세

###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원부자재.상품 출처

구분	북한	중국	남한	러시아	일본	기타 나라들	전체
2012년	20	65	4	0	0	0	89
	22.5%	73.0%	4.5%	0.0%	0.0%	0.0%	100.0%
2013년	42	74	2	0	1	0	119
	35.3%	62.2%	1.7%	0.0%	0.8%	0.0%	100.0%
2014년	34	75	3	0	1	1	114
	29.8%	65.8%	2.6%	0.0%	0.9%	0.9%	100.0%
2015년	41	71	6	0	1	1	120
	34.2%	59.2%	5.0%	0.0%	0.8%	0.8%	100.0%
2016년	33	73	4	2	1	0	113
	29.2%	64.6%	3.5%	1.8%	0.9%	0.0%	100.0%
전체	170	358	19	2	4	2	555
	30.6%	64.5%	3.4%	0.4%	0.7%	0.4%	100.0%

2015년에 비해 북한산이 감소(-5.0%)하고 중국산이 증가(+5.4%)  
 전체적으로 북한산이 30.6%, 중국산이 64.5%를 차지

### ※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원부자재.상품 출처

구분	북한	중국	남한	러시아	일본	기타 나라들	전체
2012년	22.5%	73.0%	4.5%	0.0%	0.0%	0.0%	100.0%
2013~14년	32.6%	63.9%	2.1%	0.0%	0.9%	0.4%	100.0%
2015~16년	31.8%	61.8%	4.3%	0.9%	0.9%	0.4%	100.0%
전체	30.6%	64.5%	3.4%	0.4%	0.7%	0.4%	100.0%

김정일 정권 말년(2012년)보다 김정은 정권(2013~16년)에서 북한산 비중이 다소 증가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2016년)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

##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 원부자재.상품 출처

구분		북한	중국	남한	러시아	일본	기타 나라들	전체
소매장사	2012년	16.7%	80.6%	2.8%				100.0%
	2013년	26.7%	73.3%					100.0%
	2014년	28.9%	71.1%					100.0%
	2015년	37.1%	62.9%					100.0%
	2016년	29.2%	62.5%	4.2%		4.2%		100.0%
	소계	27.5%	70.8%	1.1%		.6%		100.0%
되거리장사	2012년	25.0%	75.0%					100.0%
	2013년	57.1%	42.9%					100.0%
	2014년	36.8%	57.9%	5.3%				100.0%
	2015년	31.3%	62.5%	6.3%				100.0%
	2016년	28.0%	64.0%		8.0%			100.0%
	소계	33.3%	61.3%	2.7%	2.7%			100.0%
외화별이	2012년	40.0%	60.0%					100.0%
	2013년	64.3%	35.7%					100.0%
	2014년	62.5%	37.5%					100.0%
	2015년	30.0%	65.0%			5.0%		100.0%
	2016년	10.0%	90.0%					100.0%
	소계	40.3%	58.1%			1.6%		100.0%

2015년에 비해 북한산은 소매장사(-7.9%)와 외화별이(-20.0%)에서 크게 감소하고  
중국산은 외화별이(+25.0%)에서 크게 증가  
전체적으로 2013년 조사 이후 되거리장사와 외화별이에서 북한산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최종소비재나 중간재의 국산화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다소 의문

##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타인 고용여부

구분	있다	없다	전체
2012년	25	75	100
	25.0%	75.0%	100.0%
2013년	35	84	119
	29.4%	70.6%	100.0%
2014년	29	94	123
	23.6%	76.4%	100.0%
2015년	51	95	146
	34.9%	65.1%	100.0%
2016년	43	76	119
	36.1%	63.9%	100.0%
전체	183	424	607
	30.1%	69.9%	100.0%

가족 이외 타인을 고용한 경우가 2015년과 비슷한 30% 중반대를 차지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2016년)을 비교하면  
타인 고용 비율이 김정은 정권 전반(26.4%)보다 후반(35.5%)에 증가

###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타인고용 규모

구분	5명 미만	10명 미만	15명 미만	20명 미만	20명 이상	전체
2012년	14	2	3	0	2	21
	66.7%	9.5%	14.3%	0.0%	9.5%	100.0%
2013년	20	8	3	0	4	35
	57.1%	22.9%	8.6%	0.0%	11.4%	100.0%
2014년	17	2	4	1	3	27
	63.0%	7.4%	14.8%	3.7%	11.1%	100.0%
2015년	37	6	2	1	6	52
	71.2%	11.5%	3.8%	1.9%	11.5%	100.0%
2016년	25	8	3	3	3	42
	59.5%	19.0%	7.1%	7.1%	7.1%	100.0%
전체	113	26	15	5	18	177
	63.8%	14.7%	8.5%	2.8%	10.2%	100.0%

2015년에 비해 5명 미만(-11.7%)과 20명 이상(-4.4%)에서 감소하고  
5~10명 미만(+7.5%), 10~15명 미만(+3.3%), 15~20명 미만(+5.2%) 증가

### ※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타인고용 규모

구분	5명 미만	10명 미만	15명 미만	20명 미만	20명 이상	* 10명 이상	전체
2012년	66.7%	9.5%	14.3%	0.0%	9.5%	23.8%	100.0%
2013~14년	59.7%	16.1%	11.3%	1.6%	11.3%	24.2%	100.0%
2015~16년	66.0%	14.9%	5.3%	4.3%	9.6%	19.1%	100.0%
전체	63.8%	14.7%	8.5%	2.8%	10.2%	21.5%	100.0%

김정일 정권 말년(2012년)-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2016년)을 비교하면  
10명 이상 고용 비율이 감소하는 양상 => 사업 규모의 정체나 위축 가능성

###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타인고용 기간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12개월 미만	1년 이상	전체
2012년	4	3	3	8	0	18
	22.2%	16.7%	16.7%	44.4%	0.0%	100.0%
2013년	8	4	4	10	8	34
	23.5%	11.8%	11.8%	29.4%	23.5%	100.0%
2014년	5	7	0	6	7	25
	20.0%	28.0%	0.0%	24.0%	28.0%	100.0%
2015년	2	7	15	10	12	46
	4.3%	15.2%	32.6%	21.7%	26.1%	100.0%
2016년	5	11	10	9	6	41
	12.2%	26.8%	24.4%	22.0%	14.6%	100.0%
전체	24	32	32	43	33	164
	14.6%	19.5%	19.5%	26.2%	20.1%	100.0%

2015년에 비해 1개월 미만(+7.9%)과 1~3개월 미만(+11.6%)이 증가한 반면 3~6개월 미만(-8.2%)과 1년 이상(-11.5%)은 감소 =>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의문

### ※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타인고용 기간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12개월 미만	1년 이상	전체
연도122	2012년	22.2%	16.7%	16.7%	44.4%	0.0%	100.0%
	2013~14년	22.0%	18.6%	6.8%	27.1%	25.4%	100.0%
	2015~16년	8.0%	20.7%	28.7%	21.8%	20.7%	100.0%
전체		14.6%	19.5%	19.5%	26.2%	20.1%	100.0%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 비교시 1개월 미만(-14.0%)이나 6개월 이상이 감소하고 3개월~6개월 미만(+21.6%)이 증가 =>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의문

###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애로사항(1순위)

구분	사업 수완 부족	사업자금 마련	상품 원자재 확보	판매 경쟁	도로, 철도 사정	전기 사정	단속, 뇌물	기타	전체
2012년	6	47	16	6	7	7	10	0	99
	6.1%	47.5%	16.2%	6.1%	7.1%	7.1%	10.1%	0.0%	100.0%
2013년	10	62	13	4	18	10	2	0	119
	8.4%	52.1%	10.9%	3.4%	15.1%	8.4%	1.7%	0.0%	100.0%
2014년	6	32	7	6	10	16	38	8	123
	4.9%	26.0%	5.7%	4.9%	8.1%	13.0%	30.9%	6.5%	100.0%
2015년	3	19	14	5	6	10	67	3	127
	2.4%	15.0%	11.0%	3.9%	4.7%	7.9%	52.8%	2.4%	100.0%
2016년	5	21	12	5	6	6	56	7	118
	4.2%	17.8%	10.2%	4.2%	5.1%	5.1%	47.5%	5.9%	100.0%
전체	30	181	62	26	47	49	173	18	586
	5.1%	30.9%	10.6%	4.4%	8.0%	8.4%	29.5%	3.1%	100.0%

2015년에 비해 단속이나 뇌물이 다소 감소(-5.3%)하였으나 47.5%로 절반 정도에 육박  
전체적으로는 사업자금마련과 뇌물이나 단속이 30% 전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애로사항(2순위)

구분	사업 수완 부족	사업자금 마련	상품 원자재 확보	판매 경쟁	도로, 철도 사정	전기 사정	단속, 뇌물	기타	전체
2012년	0	2	8	2	7	7	47	3	76
	0.0%	2.6%	10.5%	2.6%	9.2%	9.2%	61.8%	3.9%	100.0%
2013년	0	1	11	8	13	12	68	4	117
	0.0%	.9%	9.4%	6.8%	11.1%	10.3%	58.1%	3.4%	100.0%
2014년	4	14	17	8	17	12	32	3	107
	3.7%	13.1%	15.9%	7.5%	15.9%	11.2%	29.9%	2.8%	100.0%
2015년	5	26	16	12	22	12	24	5	122
	4.1%	21.3%	13.1%	9.8%	18.0%	9.8%	19.7%	4.1%	100.0%
2016년	5	30	12	7	13	11	24	2	104
	4.8%	28.8%	11.5%	6.7%	12.5%	10.6%	23.1%	1.9%	100.0%
전체	14	73	64	37	72	54	195	17	526
	2.7%	13.9%	12.2%	7.0%	13.7%	10.3%	37.1%	3.2%	100.0%

2015년에 비해 사업자금마련이 증가(+7.5%)하고 도로나 철도사정이 감소(-5.5%)  
=> 도로교통 기반의 운송서비스업 발달의 영향일 가능성 주시  
전체적으로 37.1%를 차지한 단속이나 뇌물에 이어  
사업자금마련, 도로철도사정, 상품원자재확보, 전기사정이 10% 이상을 차지

### ※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애로사항(1순위)

구분	사업수원 부족	사업자금 마련	상품·원자재 확보	판매 경쟁	도로·철도 사정	전기 사정	단속·뇌물	기타	전체
2012년	6.1%	47.5%	16.2%	6.1%	7.1%	7.1%	10.1%	0.0%	100.0%
2013~14년	6.6%	38.8%	8.3%	4.1%	11.6%	10.7%	16.5%	3.3%	100.0%
2015~16년	3.3%	16.3%	10.6%	4.1%	4.9%	6.5%	50.2%	4.1%	100.0%
전체	5.1%	30.9%	10.6%	4.4%	8.0%	8.4%	29.5%	3.1%	100.0%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 비교시  
 사업자금마련(-22.5%)과 도로철도사정(-6.7%), 전기사정(-4.2%)이 감소  
 => 도로교통 기반의 운송서비스업 발달이나 에너지 생산의 다변화 영향일 가능성  
 단속이나 뇌물(+33.7%)이 크게 증가  
 => 김정은 정권의 사회주의 질서 확립 방침에 따른 각종 단속이나 건설을 위한 자원 징발 등이  
 뇌물 제공이나 각종 세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가능성

### 장사나 부업 소득수준별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 종사시 애로사항(1순위)

구분	사업수원 부족	사업자금 마련	상품·원자재 확보	판매 경쟁	도로·철도 사정	전기 사정	단속·뇌물	기타	전체	
2만원 미만	2012년	12.2%	39.0%	22.0%	2.4%	9.8%	9.8%	4.9%	100.0%	
	2013~14년	8.8%	20.6%	14.7%	2.9%	8.8%	26.5%	14.7%	100.0%	
	2015~16년	20.0%	20.0%		10.0%			30.0%	20.0%	100.0%
	소계	11.8%	29.4%	16.5%	3.5%	8.2%	15.3%	11.8%	3.5%	100.0%
10만원 이하	2012년		58.3%	16.7%	4.2%	4.2%	12.5%		100.0%	
	2013~14년	3.5%	50.9%	5.3%	3.5%	10.5%	14.0%	10.5%	1.8%	100.0%
	2015~16년	9.5%	19.0%	28.6%		9.5%		33.3%		100.0%
	소계	3.9%	46.1%	12.7%	2.9%	8.8%	8.8%	15.7%	1.0%	100.0%
30만원 이하	2012년		52.6%	10.5%	5.3%	5.3%	10.5%	15.8%	100.0%	
	2013~14년	11.5%	46.2%	3.8%	7.7%	9.6%	5.8%	15.4%	100.0%	
	2015~16년	2.8%	19.4%	19.4%	2.8%		8.3%	38.9%	8.3%	100.0%
	소계	6.5%	38.3%	10.3%	5.6%	5.6%	7.5%	23.4%	2.8%	100.0%
90만원 미만	2012년		50.0%	10.0%	20.0%	10.0%		10.0%	100.0%	
	2013~14년	11.8%	29.4%	11.8%	2.9%	8.8%	11.8%	14.7%	8.8%	100.0%
	2015~16년	2.4%	16.7%	7.1%	3.6%	6.0%	6.0%	54.8%	3.6%	100.0%
	소계	4.7%	22.7%	8.6%	4.7%	7.0%	7.0%	40.6%	4.7%	100.0%
90만원 이상	2012년	20.0%	40.0%		20.0%			20.0%	100.0%	
	2013~14년		41.7%	5.6%	5.6%	25.0%		16.7%	5.6%	100.0%
	2015~16년	1.1%	14.0%	7.5%	5.4%	4.3%	8.6%	57.0%	2.2%	100.0%
	소계	1.5%	22.4%	6.7%	6.0%	9.7%	6.0%	44.8%	3.0%	100.0%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 비교

- 2만원 미만: 단속.뇌물(+15.3%), 사업수완 부족, 판매경쟁 증가 /  
상품원자재 확보, 도로.철도.전기사정 감소
- 10만원 이하: 단속.뇌물(+22.8%), 사업수완 부족, 상품원자재 확보 증가 /  
사업자금마련, 전기사정 감소
- 30만원 이하: 단속.뇌물(+23.5%), 상품원자재 확보 증가 /  
사업수완 부족, 사업자금 마련, 판매경쟁 감소
- 90만원 미만: 단속.뇌물(+40.1%) 증가 /  
사업수완 부족, 사업자금 마련, 상품원자재 확보 감소
- 90만원 이상: 단속.뇌물(+40.3%), 전기사정 증가 /  
사업자금 마련, 도로.철도 사정 감소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5분위)

구분	2만원 미만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90만원 미만	90만원 이상	전체
빈도(명)	129	113	118	147	147	654
비율(%)	19.7	17.3	18.0	22.5	22.5	100.0

전체 수입 중 뇌물 비중

구분	10% 이하	20%이하	30%이하	40%이하	50%이하	50%이상	전혀 없음	전체
2012년	30	20	23	12	6	14	17	122
	24.6%	16.4%	18.9%	9.8%	4.9%	11.5%	13.9%	100.0%
2013년	35	24	23	13	14	9	13	131
	26.7%	18.3%	17.6%	9.9%	10.7%	6.9%	9.9%	100.0%
2014년	26	30	33	14	7	15	24	149
	17.4%	20.1%	22.1%	9.4%	4.7%	10.1%	16.1%	100.0%
2015년	36	28	17	13	9	14	27	144
	25.0%	19.4%	11.8%	9.0%	6.3%	9.7%	18.8%	100.0%
2016년	24	23	32	13	12	13	20	137
	17.5%	16.8%	23.4%	9.5%	8.8%	9.5%	14.6%	100.0%
전체	151	125	128	65	48	65	101	683
	22.1%	18.3%	18.7%	9.5%	7.0%	9.5%	14.8%	100.0%

2015년에 비해 10% 이하가 감소(-7.5%)하고 21~30%가 증가(+11.6%)  
전혀 없다는 응답은 2015년에 비해 4.2% 감소하였고 전체적으로 14.8% 수준

## ※ 전체 수입 중 뇌물 비중

구분	10% 이하	20%이하	30%이하	40%이하	50%이하	50%이상	전혀 없음	전체
2012년	24.6%	16.4%	18.9%	9.8%	4.9%	11.5%	13.9%	100.0%
2013~14년	21.8%	19.3%	20.0%	9.6%	7.5%	8.6%	13.2%	100.0%
2015~16년	21.4%	18.1%	17.4%	9.3%	7.5%	9.6%	16.7%	100.0%
전체	22.1%	18.3%	18.7%	9.5%	7.0%	9.5%	14.8%	100.0%

김정일 정권 말년(2012년),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 비교시 뇌물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미세하게 증가하였으나 뇌물 규모는 미세한 등락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지속

## 소득 분화

(가구소득, 직업,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 지역분화)

### 국가지급 월평균 가구 생활비 총합

구분	0원	3천원 이하	5천원 이하	1만원 이하	1만원 이상	전체
2012년	41	32	13	9	15	110
	37.3%	29.1%	11.8%	8.2%	13.6%	100.0%
2013년	60	46	10	5	8	129
	46.5%	35.7%	7.8%	3.9%	6.2%	100.0%
2014년	81	42	10	7	6	146
	55.5%	28.8%	6.8%	4.8%	4.1%	100.0%
2015년	73	46	13	4	8	144
	50.7%	31.9%	9.0%	2.8%	5.6%	100.0%
2016년	77	29	9	7	13	135
	57.0%	21.5%	6.7%	5.2%	9.6%	100.0%
전체	332	195	55	32	50	664
	50.0%	29.4%	8.3%	4.8%	7.5%	100.0%

2015년에 비해 0원이 6.3% 증가 / 3천원 이하가 10.4% 감소 / 1만원 이상이 4.0% 증가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비율이 조사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  
 =>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

### ※ 국가지급 월평균 가구 생활비 총합

구분	0원	3천원 이하	5천원 이하	1만원 이하	1만원 이상	전체
2012년	37.3%	29.1%	11.8%	8.2%	13.6%	100.0%
2013-14년	51.3%	32.0%	7.3%	4.4%	5.1%	100.0%
2015-16년	53.8%	26.9%	7.9%	3.9%	7.5%	100.0%
전체	50.0%	29.4%	8.3%	4.8%	7.5%	100.0%

김정일 정권 말년(2012년),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 비교시 0원이 지속 증가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 비교시  
 미세하지만 1~5천원 이하가 감소(-4.5%)하고 0원(+2.5%)과 5천원 초과(+2.0%)가 증가하는 양상  
 => 양극화 심화 가능성 주시

### 공식 직업별 국가지급 공식 월급(개인)

구분		0원	3천원 이하	5천원 이하	1만원 이하	1만원 초과	전체
노동자	2014년	56.3%	39.6%	0.0%	2.1%	2.1%	100.0%
	2015년	48.9%	40.4%	6.4%	0.0%	4.3%	100.0%
	2016년	36.1%	47.2%	2.8%	0.0%	13.9%	100.0%
	소계	48.1%	42.0%	3.1%	0.8%	6.1%	100.0%
사무원	2014년	4.8%	81.0%	14.3%	0.0%	0.0%	100.0%
	2015년	16.7%	70.8%	8.3%	4.2%	0.0%	100.0%
	2016년	22.7%	54.5%	22.7%	0.0%	0.0%	100.0%
	소계	14.9%	68.7%	14.9%	1.5%	0.0%	100.0%
군인	2014년	28.6%	42.9%	14.3%	14.3%	0.0%	100.0%
	2015년	16.7%	50.0%	16.7%	0.0%	16.7%	100.0%
	2016년	50.0%	40.0%	0.0%	10.0%	0.0%	100.0%
	소계	34.8%	43.5%	8.7%	8.7%	4.3%	100.0%

전체적으로 0원의 경우 노동자(48.1%)>군인(34.8%)>사무원(14.9%) 순  
 노동자: 0원이 감소하고 3천원 이하가 증가하는 한편 1만원 초과도 증가 양상  
 사무원: 일부 공장 정상화 추세와 소득 양극화 가능성 시사  
 군인: 0원이 증가하고 3천원 이하가 감소. 노동자에 비해 1만원 초과 고임금 부재

###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 소득(5분위)

구분	2만원 미만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90만원 미만	90만원 이상	전체
2012년	60	28	21	13	5	127
	47.2%	22.0%	16.5%	10.2%	3.9%	100.0%
2013년	23	33	24	16	23	119
	19.3%	27.7%	20.2%	13.4%	19.3%	100.0%
2014년	29	27	32	20	17	125
	23.2%	21.6%	25.6%	16.0%	13.6%	100.0%
2015년	6	11	22	53	53	145
	4.1%	7.6%	15.2%	36.6%	36.6%	100.0%
2016년	11	14	19	45	49	138
	8.0%	10.1%	13.8%	32.6%	35.5%	100.0%
전체	129	113	118	147	147	654
	19.7%	17.3%	18.0%	22.5%	22.5%	100.0%

2015년에 비해 2만원 미만(+3.9)과 2만~10만원 이하(+2.5%)가 미세하게 증가하고  
 10만원 초과 비율은 미세하게 감소하는 양상

### ※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 소득(5분위)

구분	2만원 미만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90만원 미만	90만원 이상	전체
2012년	47.2%	22.0%	16.5%	10.2%	3.9%	100.0%
2013~14년	21.3%	24.6%	23.0%	14.8%	16.4%	100.0%
2015~16년	6.0%	8.8%	14.5%	34.6%	36.0%	100.0%
전체	19.7%	17.3%	18.0%	22.5%	22.5%	100.0%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 비교시  
30만원 이하가 감소하고 30만원 초과가 증가하는 양상

###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직업(1순위)

구분	중앙당 간부	지방당 간부	법기관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외화벌이	군관	시장 상인	전체
2012년	91	3	16	1	6	0	1	118
	77.1%	2.5%	13.6%	0.8%	5.1%	0.0%	0.8%	100.0%
2013년	112	0	18	0	3	0	0	133
	84.2%	0.0%	13.5%	0.0%	2.3%	0.0%	0.0%	100.0%
2014년	108	5	27	0	6	1	0	147
	73.5%	3.4%	18.4%	0.0%	4.1%	.7%	0.0%	100.0%
2015년	118	1	17	0	7	0	3	146
	80.8%	0.7%	11.6%	0.0%	4.8%	0.0%	2.1%	100.0%
2016년	115	0	17	0	5	0	1	138
	83.3%	0.0%	12.3%	0.0%	3.6%	0.0%	0.7%	100.0%
전체	544	9	95	1	27	1	5	682
	79.8%	1.3%	13.9%	0.1%	4.0%	0.1%	0.7%	100.0%

2015년에 비해 중앙당 간부라는 인식이 미세하게 증가하였으나 대체로 비슷한 수준 유지  
전체적으로 가장 잘 사는 직업은 중앙당 간부라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직업(2순위)

구분	중앙당 간부	지방당 간부	법기관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전문직	외화벌이	군관	시장 상인	기업소, 공장 간부	기업소, 공장 노동자	농장 관리일꾼	전체
2012년	7	15	64	1	0	17	1	2	0	1	0	108
	6.5%	13.9%	59.3%	0.9%	0.0%	15.7%	0.9%	1.9%	0.0%	0.9%	0.0%	100.0%
2013년	12	18	67	3	0	19	2	5	2	1	1	130
	9.2%	13.8%	51.5%	2.3%	0.0%	14.6%	1.5%	3.8%	1.5%	0.8%	0.8%	100.0%
2014년	13	24	70	2	0	28	3	5	1	0	0	146
	8.9%	16.4%	47.9%	1.4%	0.0%	19.2%	2.1%	3.4%	0.7%	0.0%	0.0%	100.0%
2015년	10	25	72	5	0	21	2	8	1	0	0	144
	6.9%	17.4%	50.0%	3.5%	0.0%	14.6%	1.4%	5.6%	0.7%	0.0%	0.0%	100.0%
2016년	7	17	80	1	1	24	1	6	0	0	1	138
	5.1%	12.3%	58.0%	0.7%	0.7%	17.4%	0.7%	4.3%	0.0%	0.0%	0.7%	100.0%
전체	49	99	353	12	1	109	9	26	4	2	2	666
	7.4%	14.9%	53.0%	1.8%	0.2%	16.4%	1.4%	3.9%	0.6%	0.3%	0.3%	100.0%

2015년에 비해 법기관 간부라는 인식이 8.5%, 외화벌이라는 인식이 2.8% 증가한 반면 지방당 간부라는 인식은 5.2% 감소  
전체적으로 법기관 간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외화벌이가 그 다음을 차지

### 북한에서 중간 정도 잘 사는 직업(1순위)

구분	중앙당 간부	지방당 간부	법기관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전문직	외화벌이	군관	시장 상인	기업소, 공장 간부	농장 관리일꾼	농장원	전체
2012년	3	23	23	16	3	35	4	7	7	1	0	122
	2.5%	18.9%	18.9%	13.1%	2.5%	28.7%	3.3%	5.7%	5.7%	0.8%	0.0%	100.0%
2013년	1	36	31	12	4	31	6	4	5	2	1	133
	0.8%	27.1%	23.3%	9.0%	3.0%	23.3%	4.5%	3.0%	3.8%	1.5%	0.8%	100.0%
2014년	11	32	36	15	4	33	4	4	4	1	0	144
	7.6%	22.2%	25.0%	10.4%	2.8%	22.9%	2.8%	2.8%	2.8%	0.7%	0.0%	100.0%
2015년	5	48	36	6	5	28	4	10	1	1	0	144
	3.5%	33.3%	25.0%	4.2%	3.5%	19.4%	2.8%	6.9%	0.7%	0.7%	0.0%	100.0%
2016년	7	39	25	7	4	33	1	14	2	1	0	133
	5.3%	29.3%	18.8%	5.3%	3.0%	24.8%	0.8%	10.5%	1.5%	0.8%	0.0%	100.0%
전체	27	178	151	56	20	160	19	39	19	6	1	676
	4.0%	26.3%	22.3%	8.3%	3.0%	23.7%	2.8%	5.8%	2.8%	0.9%	0.1%	100.0%

2015년에 비해 지방당 간부(-4.0%)와 법기관 간부(-6.2%) 감소/ 외화벌이는 증가(+5.4%)  
전체적으로 지방당 간부, 외화벌이 순으로 잘 사는 것으로 인식

### ※ 북한에서 중간 정도 잘 사는 직업(1순위)

구분	중앙당 간부	지방당 간부	법기관 간부	인민 위원회 간부	전문직	외화 벌이	군관	시장 상인	기업소, 공장 간부	농장 관리일꾼	농장원	전체
2012년	2.5%	18.9%	18.9%	13.1%	2.5%	28.7%	3.3%	5.7%	5.7%	0.8%	0.0%	100.0%
2013~14년	4.3%	24.5%	24.2%	9.7%	2.9%	23.1%	3.6%	2.9%	3.2%	1.1%	0.4%	100.0%
2015~16년	4.3%	31.4%	22.0%	4.7%	3.2%	22.0%	1.8%	8.7%	1.1%	0.7%	0.0%	100.0%
전체	4.0%	26.3%	22.3%	8.3%	3.0%	23.7%	2.8%	5.8%	2.8%	0.9%	0.1%	100.0%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 비교시  
지방당 간부와 시장상인이 증가하고 인민위원회 간부가 감소

### 북한에서 중간 정도 잘 사는 직업(2순위)

구분	중앙당 간부	지방당 간부	법기관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전문직	외화벌이	군관	시장 상인	기업소, 공장 간부	기업소, 공장 노동자	농장 관리일꾼	전체
2012년	3	17	9	18	9	16	4	21	8	0	3	108
	2.8%	15.7%	8.3%	16.7%	8.3%	14.8%	3.7%	19.4%	7.4%	0.0%	2.8%	100.0%
2013년	1	9	9	21	8	30	6	25	14	0	6	129
	0.8%	7.0%	7.0%	16.3%	6.2%	23.3%	4.7%	19.4%	10.9%	0.0%	4.7%	100.0%
2014년	1	28	4	20	7	23	7	29	15	0	9	143
	0.7%	19.6%	2.8%	14.0%	4.9%	16.1%	4.9%	20.3%	10.5%	0.0%	6.3%	100.0%
2015년	0	16	5	25	5	38	5	26	12	1	11	144
	0.0%	11.1%	3.5%	17.4%	3.5%	26.4%	3.5%	18.1%	8.3%	0.7%	7.6%	100.0%
2016년	4	19	3	16	5	33	8	30	13	1	5	137
	2.9%	13.9%	2.2%	11.7%	3.6%	24.1%	5.8%	21.9%	9.5%	0.7%	3.6%	100.0%
전체	9	89	30	100	34	140	30	131	62	2	34	661
	1.4%	13.5%	4.5%	15.1%	5.1%	21.2%	4.5%	19.8%	9.4%	0.3%	5.1%	100.0%

2015년에 비해 인민위원회 간부(-5.7%)와 농장관리일꾼(-4.3%)이 감소하고  
대신 시장상인이 미세하게 증가(+3.8%)  
전체적으로 외화벌이 다음을 시장상인과 인민위원회 간부가 차지

### 북한에서 가장 못 사는 직업(1순위)

구분	지방당 간부	법기관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전문직	외화벌이	군관	시장 상인	기업소, 공장 간부	기업소, 공장 노동자	농장 관리일꾼	농장원	전체
2012년	0	0	1	5	1	7	1	0	40	5	63	123
	0.0%	0.0%	0.8%	4.1%	0.8%	5.7%	0.8%	0.0%	32.5%	4.1%	51.2%	100.0%
2013년	1	0	4	5	1	1	1	3	34	9	74	133
	0.8%	0.0%	3.0%	3.8%	0.8%	0.8%	0.8%	2.3%	25.6%	6.8%	55.6%	100.0%
2014년	3	1	6	10	3	4	1	2	25	7	86	148
	2.0%	0.7%	4.1%	6.8%	2.0%	2.7%	0.7%	1.4%	16.9%	4.7%	58.1%	100.0%
2015년	3	2	3	5	0	13	1	0	20	8	91	146
	2.1%	1.4%	2.1%	3.4%	0.0%	8.9%	0.7%	0.0%	13.7%	5.5%	62.3%	100.0%
2016년	0	1	6	7	4	9	1	2	20	7	81	138
	0.0%	0.7%	4.3%	5.1%	2.9%	6.5%	0.7%	1.4%	14.5%	5.1%	58.7%	100.0%
전체	7	4	20	32	9	34	5	7	139	36	395	688
	1.0%	0.6%	2.9%	4.7%	1.3%	4.9%	0.7%	1.0%	20.2%	5.2%	57.4%	100.0%

2015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비슷한 비율을 유지  
전체적으로 농장원이 가장 못산다는 인식이 절반 이상을 차지

### ※ 북한에서 가장 못 사는 직업(1순위)

구분	지방당 간부	법기관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전문직	외화벌이	군관	시장 상인	기업소, 공장 간부	기업소, 공장 노동자	농장 관리일꾼	농장원	전체
2012년	0.0%	0.0%	0.8%	4.1%	0.8%	5.7%	0.8%	0.0%	32.5%	4.1%	51.2%	100.0%
2013~14년	1.4%	0.4%	3.6%	5.3%	1.4%	1.8%	0.7%	1.8%	21.0%	5.7%	56.9%	100.0%
2015~16년	1.1%	1.1%	3.2%	4.2%	1.4%	7.7%	0.7%	0.7%	14.1%	5.3%	60.6%	100.0%
전체	1.0%	0.6%	2.9%	4.7%	1.3%	4.9%	0.7%	1.0%	20.2%	5.2%	57.4%	100.0%

김정일 정권 말년(2012년),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 비교시  
농장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

### 북한에서 가장 못 사는 직업(2순위)

구분	지방당 간부	인민위원회 간부	전문직	외화벌이	군관	시장 상인	기업소, 공장 간부	기업소, 공장 노동자	농장 관리일꾼	농장원	전체
2012년	0	1	2	0	8	2	1	39	7	53	113
	0.0%	0.9%	1.8%	0.0%	7.1%	1.8%	0.9%	34.5%	6.2%	46.9%	100.0%
2013년	0	3	4	0	15	4	1	44	12	46	129
	0.0%	2.3%	3.1%	0.0%	11.6%	3.1%	0.8%	34.1%	9.3%	35.7%	100.0%
2014년	1	1	7	2	16	3	4	53	13	41	141
	0.7%	0.7%	5.0%	1.4%	11.3%	2.1%	2.8%	37.6%	9.2%	29.1%	100.0%
2015년	0	0	3	0	13	1	5	66	11	44	143
	0.0%	0.0%	2.1%	0.0%	9.1%	0.7%	3.5%	46.2%	7.7%	30.8%	100.0%
2016년	0	0	2	0	15	5	5	59	11	41	138
	0.0%	0.0%	1.4%	0.0%	10.9%	3.6%	3.6%	42.8%	8.0%	29.7%	100.0%
전체	1	5	18	2	67	15	16	261	54	225	664
	0.2%	0.8%	2.7%	0.3%	10.1%	2.3%	2.4%	39.3%	8.1%	33.9%	100.0%

2015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비슷한 비율을 유지  
전체적으로 공장,기업소의 노동자가 가장 못산다는 인식이 40% 정도를 차지

### 경제적 계층 분화 이유(1순위)

구분	정치 사상성	본인 직위	교육 수준	가족 관계	권력층 안면관계	사는 지역	개인 성격, 노력	출신 성분	운수 소관	전체
2012년	29	56	1	2	20	0	7	8	0	123
	23.6%	45.5%	0.8%	1.6%	16.3%	0.0%	5.7%	6.5%	0.0%	100.0%
2013년	42	43	0	1	24	0	4	19	0	133
	31.6%	32.3%	0.0%	0.8%	18.0%	0.0%	3.0%	14.3%	0.0%	100.0%
2014년	41	44	1	1	33	0	6	22	0	148
	27.7%	29.7%	0.7%	0.7%	22.3%	0.0%	4.1%	14.9%	0.0%	100.0%
2015년	25	63	1	0	23	1	7	22	4	146
	17.1%	43.2%	0.7%	0.0%	15.8%	0.7%	4.8%	15.1%	2.7%	100.0%
2016년	20	58	1	1	21	1	4	31	1	138
	14.5%	42.0%	0.7%	0.7%	15.2%	0.7%	2.9%	22.5%	0.7%	100.0%
전체	157	264	4	5	121	2	28	102	5	688
	22.8%	38.4%	0.6%	0.7%	17.6%	0.3%	4.1%	14.8%	0.7%	100.0%

2015년에 비해 출신성분이 증가(+7.4%)하고 정치사상성이 미세하게 감소(-2.9%)  
2016년의 경우 본인직위>출신성분>권력층 안면관계>정치사상성 순  
전체적으로 본인직위>정치사상성>권력층 안면관계>출신성분 순  
출신성분이 조사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  
=> 김정은 정권이 권력 승계와 공고화 과정에서 출신성분을 이전보다 중요하게 고려하고  
이것이 대중적인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 주시

### ※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1순위)

구분	정치 사상성	본인 직위	교육 수준	가족 관계	권력층 안면관계	사는 지역	개인 성격·노력	출신 성분	운수 소관	전체
2012년	23.6%	45.5%	0.8%	1.6%	16.3%	0.0%	5.7%	6.5%	0.0%	100.0%
2013~14년	29.5%	31.0%	0.4%	0.7%	20.3%	0.0%	3.6%	14.6%	0.0%	100.0%
2015~16년	15.8%	42.6%	0.7%	0.4%	15.5%	0.7%	3.9%	18.7%	1.8%	100.0%
전체	22.8%	38.4%	0.6%	0.7%	17.6%	0.3%	4.1%	14.8%	0.7%	100.0%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 비교시  
정치사상성과 권력층 안면관계는 감소하고 본인직위와 출신성분은 증가 양상

### 교육수준별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1순위)

구분	정치 사상성	본인 직위	교육 수준	가족 관계	권력층 안면관계	사는 지역	개인 성격·노력	출신 성분	운수 소관	전체
대학교	2012년	0.0%	69.2%	0.0%	7.7%	7.7%	0.0%	15.4%	0.0%	100.0%
	2013~14년	23.8%	35.7%	0.0%	0.0%	26.2%	0.0%	2.4%	11.9%	100.0%
	2015~16년	8.5%	27.7%	2.1%	0.0%	12.8%	2.1%	6.4%	36.2%	100.0%
	소계	13.7%	36.3%	1.0%	1.0%	17.6%	1.0%	5.9%	21.6%	100.0%
전문학교	2012년	14.3%	52.4%	0.0%	0.0%	14.3%	0.0%	9.5%	9.5%	100.0%
	2013~14년	29.8%	21.3%	2.1%	0.0%	29.8%	0.0%	4.3%	12.8%	100.0%
	2015~16년	20.0%	47.5%	0.0%	2.5%	15.0%	0.0%	5.0%	10.0%	100.0%
	소계	23.1%	37.0%	0.9%	0.9%	21.3%	0.0%	5.6%	11.1%	100.0%
고등 중학교	2012년	27.2%	40.7%	1.2%	1.2%	18.5%	0.0%	3.7%	7.4%	100.0%
	2013~14년	31.2%	32.3%	0.0%	1.1%	16.1%	0.0%	3.8%	15.6%	100.0%
	2015~16년	16.1%	45.8%	0.5%	0.0%	16.1%	0.5%	3.1%	16.1%	100.0%
	소계	24.2%	39.4%	0.4%	0.7%	16.6%	0.2%	3.5%	14.4%	100.0%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 비교시  
대학졸업의 경우 정치사상성(-15.3%), 본인직위(-8.0%), 권력층 안면관계(-13.4%)가 감소하고  
출신성분이 크게 증가(+24.3%)  
전문학교의 경우 정치사상성(-9.8%)과 권력층 안면관계(-14.8%)가 감소하고 본인직위(+26.2%)가 증가  
고등중학교의 경우 정치사상성(-15.1%)이 감소하고 본인직위(+13.5%)가 증가

###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2순위)

구분	정치사상성	본인직위	교육수준	가족관계	권력층안면관계	사는지역	개인성격노력	출신성분	운수소관	전체
2012년	3	28	2	3	47	4	13	22	1	123
	2.4%	22.8%	1.6%	2.4%	38.2%	3.3%	10.6%	17.9%	0.8%	100.0%
2013년	4	33	3	5	52	8	8	19	1	133
	3.0%	24.8%	2.3%	3.8%	39.1%	6.0%	6.0%	14.3%	0.8%	100.0%
2014년	11	32	7	3	47	9	6	29	3	147
	7.5%	21.8%	4.8%	2.0%	32.0%	6.1%	4.1%	19.7%	2.0%	100.0%
2015년	8	31	3	3	54	13	13	18	1	144
	5.6%	21.5%	2.1%	2.1%	37.5%	9.0%	9.0%	12.5%	0.7%	100.0%
2016년	4	26	4	7	60	9	8	20	0	138
	2.9%	18.8%	2.9%	5.1%	43.5%	6.5%	5.8%	14.5%	0.0%	100.0%
전체	30	150	19	21	260	43	48	108	6	685
	4.4%	21.9%	2.8%	3.1%	38.0%	6.3%	7.0%	15.8%	0.9%	100.0%

2015년에 비해 권력층 안면관계가 증가(+6.0%)  
 전체적으로 권력층 안면관계 > 본인직위 > 출신성분 순

###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3순위)

구분	정치사상성	본인직위	교육수준	가족관계	권력층안면관계	사는지역	개인성격노력	출신성분	운수소관	전체
2012년	6	12	5	3	21	16	17	30	12	122
	4.9%	9.8%	4.1%	2.5%	17.2%	13.1%	13.9%	24.6%	9.8%	100.0%
2013년	6	20	6	8	19	14	19	28	13	133
	4.5%	15.0%	4.5%	6.0%	14.3%	10.5%	14.3%	21.1%	9.8%	100.0%
2014년	6	21	8	6	23	17	29	27	9	146
	4.1%	14.4%	5.5%	4.1%	15.8%	11.6%	19.9%	18.5%	6.2%	100.0%
2015년	1	16	7	3	14	24	33	32	15	145
	0.7%	11.0%	4.8%	2.1%	9.7%	16.6%	22.8%	22.1%	10.3%	100.0%
2016년	4	19	9	6	15	20	26	28	10	137
	2.9%	13.9%	6.6%	4.4%	10.9%	14.6%	19.0%	20.4%	7.3%	100.0%
전체	23	88	35	26	92	91	124	145	59	683
	3.4%	12.9%	5.1%	3.8%	13.5%	13.3%	18.2%	21.2%	8.6%	100.0%

대체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전체적으로 출신성분 > 개인 성격이나 노력 > 사는 지역 > 본인직위 순  
 3순위에서 개인 성격이나 노력의 비중이 1순위나 2순위보다 증가한 점 주목  
 교육수준은 여전히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

### ※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3순위)

구분	정치 사상성	본인 직위	교육 수준	가족 관계	권력층 안면관계	사는 지역	개인 성격,노력	출신 성분	운수 소관	전체
2012년	4.9%	9.8%	4.1%	2.5%	17.2%	13.1%	13.9%	24.6%	9.8%	100.0%
2013-14년	4.3%	14.7%	5.0%	5.0%	15.1%	11.1%	17.2%	19.7%	7.9%	100.0%
2015-16년	1.8%	12.4%	5.7%	3.2%	10.3%	15.6%	20.9%	21.3%	8.9%	100.0%
전체	3.4%	12.9%	5.1%	3.8%	13.5%	13.3%	18.2%	21.2%	8.6%	100.0%

김정일 정권 말년(2012년),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 비교시  
비록 3순위라 하더라도 개인성격이나 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

###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2순위)

구분	정치 사상성	본인 직위	교육 수준	가족 관계	권력층 안면관계	사는 지역	개인 성격,노력	출신 성분	운수 소관	전체
2012년	3	28	2	3	47	4	13	22	1	123
	2.4%	22.8%	1.6%	2.4%	38.2%	3.3%	10.6%	17.9%	0.8%	100.0%
2013년	4	33	3	5	52	8	8	19	1	133
	3.0%	24.8%	2.3%	3.8%	39.1%	6.0%	6.0%	14.3%	0.8%	100.0%
2014년	11	32	7	3	47	9	6	29	3	147
	7.5%	21.8%	4.8%	2.0%	32.0%	6.1%	4.1%	19.7%	2.0%	100.0%
2015년	8	31	3	3	54	13	13	18	1	144
	5.6%	21.5%	2.1%	2.1%	37.5%	9.0%	9.0%	12.5%	0.7%	100.0%
2016년	4	26	4	7	60	9	8	20	0	138
	2.9%	18.8%	2.9%	5.1%	43.5%	6.5%	5.8%	14.5%	0.0%	100.0%
전체	30	150	19	21	260	43	48	108	6	685
	4.4%	21.9%	2.8%	3.1%	38.0%	6.3%	7.0%	15.8%	0.9%	100.0%

2015년에 비해 권력층 안면관계가 증가(+6.0%)  
전체적으로 권력층 안면관계>본인직위>출신성분 순

### 북한에서 중간 정도 잘 사는 지역(도)

구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양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전체
2012년	12	10	13	25	9	31	5	10	4	119
	10.1%	8.4%	10.9%	21.0%	7.6%	26.1%	4.2%	8.4%	3.4%	100.0%
2013년	14	13	17	30	12	32	7	2	6	133
	10.5%	9.8%	12.8%	22.6%	9.0%	24.1%	5.3%	1.5%	4.5%	100.0%
2014년	12	25	15	33	11	37	6	2	4	145
	8.3%	17.2%	10.3%	22.8%	7.6%	25.5%	4.1%	1.4%	2.8%	100.0%
2015년	25	9	17	44	11	28	4	2	4	144
	17.4%	6.3%	11.8%	30.6%	7.6%	19.4%	2.8%	1.4%	2.8%	100.0%
2016년	15	17	12	29	13	33	3	4	4	130
	11.5%	13.1%	9.2%	22.3%	10.0%	25.4%	2.3%	3.1%	3.1%	100.0%
전체	78	74	74	161	56	161	25	20	22	671
	11.6%	11.0%	11.0%	24.0%	8.3%	24.0%	3.7%	3.0%	3.3%	100.0%

2015년에 비해 함경북도(-8.3%), 평안남도(-5.9%) 감소 / 양강도(+6.0%), 평안북도(+6.8%) 증가  
 2016년의 경우 양강도>함경북도>평안북도>자강도 순  
 전체적으로 양강도=함경북도>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 순

### 북한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도)

구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양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전체
2012년	3	1	15	12	10	8	13	7	46	115
	2.6%	0.9%	13.0%	10.4%	8.7%	7.0%	11.3%	6.1%	40.0%	100.0%
2013년	0	0	12	5	19	12	17	10	57	132
	0.0%	0.0%	9.1%	3.8%	14.4%	9.1%	12.9%	7.6%	43.2%	100.0%
2014년	2	1	15	9	20	16	15	15	51	144
	1.4%	0.7%	10.4%	6.3%	13.9%	11.1%	10.4%	10.4%	35.4%	100.0%
2015년	1	2	8	4	21	12	30	22	41	141
	0.7%	1.4%	5.7%	2.8%	14.9%	8.5%	21.3%	15.6%	29.1%	100.0%
2016년	0	5	7	7	15	9	19	8	63	133
	0.0%	3.8%	5.3%	5.3%	11.3%	6.8%	14.3%	6.0%	47.4%	100.0%
전체	6	9	57	37	85	57	94	62	258	665
	0.9%	1.4%	8.6%	5.6%	12.8%	8.6%	14.1%	9.3%	38.8%	100.0%

2015년에 비해 황해남도(-7.0%)와 황해북도(-9.0%)가 감소하고 강원도(+18.3%)가 증가  
 전체적으로 강원도>황해남도>자강도 순

###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시, 평양 제외)

구분	신의주	청진	라선	혜산	원산	남포	평성	사리원	개성	전체
2012년	34	7	43	6	2	5	16	0	3	116
	29.3%	6.0%	37.1%	5.2%	1.7%	4.3%	13.8%	0.0%	2.6%	100.0%
2013년	36	9	45	14	4	4	19	0	1	132
	27.3%	6.8%	34.1%	10.6%	3.0%	3.0%	14.4%	0.0%	0.8%	100.0%
2014년	52	6	45	17	3	3	18	2	0	146
	35.6%	4.1%	30.8%	11.6%	2.1%	2.1%	12.3%	1.4%	0.0%	100.0%
2015년	41	11	57	12	5	0	13	1	6	146
	28.1%	7.5%	39.0%	8.2%	3.4%	0.0%	8.9%	0.7%	4.1%	100.0%
2016년	30	6	56	7	2	2	23	1	10	137
	21.9%	4.4%	40.9%	5.1%	1.5%	1.5%	16.8%	0.7%	7.3%	100.0%
전체	193	39	246	56	16	14	89	4	20	677
	28.5%	5.8%	36.3%	8.3%	2.4%	2.1%	13.1%	0.6%	3.0%	100.0%

2015년에 비해 신의주(-6.2)가 하락하고 평성(+7.9%)이 증가  
 전체적으로 2014년 신의주>라선>평성>혜산에서 2015년 라선>신의주>평성으로 변화된 순서 지속  
 ※ 2014년 이후 신의주 하락 추세 지속 주목

### 북한에서 중간 정도 사는 지역(시, 평양 제외)

구분	신의주	청진	라선	혜산	원산	남포	평성	사리원	개성	전체
2012년	19	23	24	16	11	4	18	3	4	122
	15.6%	18.9%	19.7%	13.1%	9.0%	3.3%	14.8%	2.5%	3.3%	100.0%
2013년	19	29	12	22	8	7	26	4	5	132
	14.4%	22.0%	9.1%	16.7%	6.1%	5.3%	19.7%	3.0%	3.8%	100.0%
2014년	21	24	21	36	8	9	17	5	6	147
	14.3%	16.3%	14.3%	24.5%	5.4%	6.1%	11.6%	3.4%	4.1%	100.0%
2015년	18	31	22	24	7	7	27	6	2	144
	12.5%	21.5%	15.3%	16.7%	4.9%	4.9%	18.8%	4.2%	1.4%	100.0%
2016년	28	25	25	23	0	6	22	2	4	135
	20.7%	18.5%	18.5%	17.0%	0.0%	4.4%	16.3%	1.5%	3.0%	100.0%
전체	105	132	104	121	34	33	110	20	21	680
	15.4%	19.4%	15.3%	17.8%	5.0%	4.9%	16.2%	2.9%	3.1%	100.0%

2015년에 비해 신의주가 증가(+8.2%)  
 2016년의 경우 신의주≠청진≠라선≠혜산≠평성 순  
 전체적으로 청진≠혜산≠평성≠신의주≠라선 순

### 북한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시, 평양 제외)

구분	신의주	청진	라선	혜산	원산	남포	평성	사리원	개성	전체
2012년	2	7	4	15	20	6	6	33	16	109
	1.8%	6.4%	3.7%	13.8%	18.3%	5.5%	5.5%	30.3%	14.7%	100.0%
2013년	0	12	1	23	18	18	1	34	24	131
	0.0%	9.2%	0.8%	17.6%	13.7%	13.7%	0.8%	26.0%	18.3%	100.0%
2014년	2	17	4	16	35	13	2	36	18	143
	1.4%	11.9%	2.8%	11.2%	24.5%	9.1%	1.4%	25.2%	12.6%	100.0%
2015년	3	8	1	30	26	20	5	39	14	146
	2.1%	5.5%	0.7%	20.5%	17.8%	13.7%	3.4%	26.7%	9.6%	100.0%
2016년	4	13	1	30	26	11	5	29	13	132
	3.0%	9.8%	0.8%	22.7%	19.7%	8.3%	3.8%	22.0%	9.8%	100.0%
전체	11	57	11	114	125	68	19	171	85	661
	1.7%	8.6%	1.7%	17.2%	18.9%	10.3%	2.9%	25.9%	12.9%	100.0%

2015년에 비해 대체로 비슷한 비율을 지속  
 2016년의 경우 혜산<사리원>원산 순  
 전체적으로 사리원>원산<혜산>개성>남포 순

## 경제개혁 인식

(우선적 상거래 대상, 경제난 책임소재, 정책)

### 우선적 상거래 대상 인식(1순위)

구분	소토지	살림집	시장 매대	개인 운영 국가상점	농장 분조 경작지	소규모 지방산업공장	기업소 명의 개인 소유 화물차, 발동선	생각해 본 적 없음	전체
2012년	33	14	38	5	9	2	8	8	117
	28.2%	12.0%	32.5%	4.3%	7.7%	1.7%	6.8%	6.8%	100.0%
2013년	37	18	48	14	5	5	5	1	133
	27.8%	13.5%	36.1%	10.5%	3.8%	3.8%	3.8%	0.8%	100.0%
2014년	35	19	36	14	10	8	8	17	147
	23.8%	12.9%	24.5%	9.5%	6.8%	5.4%	5.4%	11.6%	100.0%
2015년	26	20	25	12	9	10	21	23	146
	17.8%	13.7%	17.1%	8.2%	6.2%	6.8%	14.4%	15.8%	100.0%
2016년	26	16	30	13	3	11	12	26	137
	19.0%	11.7%	21.9%	9.5%	2.2%	8.0%	8.8%	19.0%	100.0%
전체	157	87	177	58	36	36	54	75	680
	23.1%	12.8%	26.0%	8.5%	5.3%	5.3%	7.9%	11.0%	100.0%

2015년에 비해 기업소 명의 개인소유 화물차나 발동선이 감소(-5.6%)  
 전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장매대>소토지>살림집 순으로 우선적 상거래 대상을 인식

### ※ 우선적 상거래 대상 인식(1순위)

구분	소토지	살림집	시장 매대	개인 운영 국가상점	농장 분조 경작지	소규모 지방산업공장	기업소 명의 개인 소유 화물차, 발동선	생각해 본 적 없음	전체
2012년	28.2%	12.0%	32.5%	4.3%	7.7%	1.7%	6.8%	6.8%	100.0%
2013~14년	25.7%	13.2%	30.0%	10.0%	5.4%	4.6%	4.6%	6.4%	100.0%
2015~16년	18.4%	12.7%	19.4%	8.8%	4.2%	7.4%	11.7%	17.3%	100.0%
전체	23.1%	12.8%	26.0%	8.5%	5.3%	5.3%	7.9%	11.0%	100.0%

김정일 정권 말년(2012년),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 비교시  
 소토지, 시장매대, 농장분조 경작지는 지속 감소, 기업소 명의 개인소유 화물차, 발동선은 증가  
 동시에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증가

### 우선적 상거래 대상(2순위)

구분	소토지	살림집	시장 매대	개인 운영 국가상점	농장 분조 경작지	소규모 지방산업 공장	기업소 명의 개인 소유 화물차.발동선	생각해 본 적 없음	전체
2012년	16	28	13	14	8	10	13	4	106
	15.1%	26.4%	12.3%	13.2%	7.5%	9.4%	12.3%	3.8%	100.0%
2013년	14	41	32	23	3	4	9	7	133
	10.5%	30.8%	24.1%	17.3%	2.3%	3.0%	6.8%	5.3%	100.0%
2014년	17	29	18	16	12	16	19	6	133
	12.8%	21.8%	13.5%	12.0%	9.0%	12.0%	14.3%	4.5%	100.0%
2015년	11	14	21	21	11	19	17	5	119
	9.2%	11.8%	17.6%	17.6%	9.2%	16.0%	14.3%	4.2%	100.0%
2016년	11	21	23	17	11	9	13	1	106
	10.4%	19.8%	21.7%	16.0%	10.4%	8.5%	12.3%	.9%	100.0%
전체	69	133	107	91	45	58	71	23	597
	11.6%	22.3%	17.9%	15.2%	7.5%	9.7%	11.9%	3.9%	100.0%

2015년에 비해 살림집이 증가(+8.0%)하고 소규모지방산업공장이 감소(-7.5%)

2016년의 경우 시장매대>살림집>개인운영 국가상점>기업소 명의 개인소유 화물차.발동선>소토지 순 전체적으로 살림집>시장매대>개인운영 국가상점>기업소 명의 개인소유 화물차.발동선>소토지 순

### 교육수준별 우선적 상거래 대상 인식(1순위)

구분	소토지	살림집	시장 매대	개인 운영 국가상점	농장 분조 경작지	소규모 지방산업 공장	기업소 명의 개인 소유 화물차.발동선	생각해 본 적 없음	전체	
대학교	2012년	23.1%	0.0%	23.1%	0.0%	23.1%	0.0%	7.7%	23.1%	100.0%
	2013~14년	31.0%	14.3%	23.8%	11.9%	9.5%	4.8%	2.4%	2.4%	100.0%
	2015~16년	17.0%	17.0%	8.5%	10.6%	6.4%	12.8%	14.9%	12.8%	100.0%
	소계	23.5%	13.7%	16.7%	9.8%	9.8%	7.8%	8.8%	9.8%	100.0%
전문학교	2012년	31.8%	9.1%	31.8%	9.1%	4.5%	4.5%	4.5%	4.5%	100.0%
	2013~14년	19.1%	17.0%	34.0%	8.5%	2.1%	0.0%	8.5%	10.6%	100.0%
	2015~16년	17.9%	10.3%	23.1%	20.5%	2.6%	2.6%	7.7%	15.4%	100.0%
	소계	21.3%	13.0%	29.6%	13.0%	2.8%	1.9%	7.4%	11.1%	100.0%
고등중학교	2012년	24.3%	16.2%	35.1%	4.1%	5.4%	1.4%	8.1%	5.4%	100.0%
	2013~14년	25.9%	12.4%	30.3%	10.3%	5.4%	5.9%	4.3%	5.4%	100.0%
	2015~16년	18.8%	12.5%	21.4%	6.3%	4.2%	7.3%	12.0%	17.7%	100.0%
	소계	22.6%	13.1%	27.3%	7.5%	4.9%	5.8%	8.2%	10.6%	100.0%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 비교시

대학교 학력수준에서는 소토지, 시장매대가 감소하고

살림집, 소규모 지방산업공장과 기업소 명의 개인소유 화물차.발동선이 증가

전문학교 학력수준에서는 소토지, 살림집, 시장매대가 감소하고

개인운영 국가상점이 증가

고등중학교 학력수준에서는 소토지, 시장매대가 감소하고 개인소유 화물차.발동선이 증가

### 연령대별 우선적 상거래 대상 인식(1순위)

구분	소토지	살림집	시장 매대	개인 운영 국가상점	농장 분조 경작지	소규모 지방산업 공장	기업소 명의 개인 소유 화물차, 발동선	생각해 본 적 없음	전체	
20~35세 미만	2012년	27.1%	6.3%	35.4%	4.2%	4.2%	4.2%	10.4%	8.3%	100.0%
	2013~14년	17.7%	16.1%	25.8%	16.9%	4.0%	5.6%	6.5%	7.3%	100.0%
	2015~16년	13.1%	14.6%	16.1%	11.7%	1.5%	7.3%	13.1%	22.6%	100.0%
	소계	17.2%	13.9%	23.0%	12.6%	2.9%	6.1%	10.0%	14.2%	100.0%
35~55세 미만	2012년	25.0%	17.3%	30.8%	3.8%	13.5%	0.0%	5.8%	3.8%	100.0%
	2013~14년	30.8%	11.1%	34.2%	5.1%	7.7%	3.4%	4.3%	3.4%	100.0%
	2015~16년	20.3%	11.7%	24.2%	7.0%	7.0%	7.8%	10.2%	11.7%	100.0%
	소계	25.3%	12.5%	29.3%	5.7%	8.4%	4.7%	7.1%	7.1%	100.0%
55세 이상	2012년	41.2%	11.8%	29.4%	5.9%	0.0%	0.0%	0.0%	11.8%	100.0%
	2013~14년	33.3%	12.1%	33.3%	0.0%	3.0%	6.1%	0.0%	12.1%	100.0%
	2015~16년	47.1%	5.9%	11.8%	0.0%	5.9%	5.9%	5.9%	17.6%	100.0%
	소계	38.8%	10.4%	26.9%	1.5%	3.0%	4.5%	1.5%	13.4%	100.0%
전체	2012년	28.2%	12.0%	32.5%	4.3%	7.7%	1.7%	6.8%	6.8%	100.0%
	2013~14년	25.2%	13.5%	30.3%	9.9%	5.5%	4.7%	4.7%	6.2%	100.0%
	2015~16년	18.4%	12.8%	19.5%	8.9%	4.3%	7.4%	11.3%	17.4%	100.0%
	전체	22.9%	12.9%	26.2%	8.5%	5.3%	5.3%	7.9%	11.0%	100.0%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 비교시  
 20~35세 미만에서는 소토지, 시장매대, 개인운영 국가상점이 감소하고  
 기업소 명의 개인소유 화물차.발동선이 증가  
 35~55세 미만에서는 소토지, 시장매대가 감소하고 기업소 명의 개인소유 화물차.발동선이 증가  
 55세 이상에서는 살림집과 시장매대가 감소하고 소토지가 증가

###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1순위)

구분	근로자	관리자	내각	당 지도부	군부	최고영도자	기타	전체
2014년	3	5	11	18	1	111	0	149
	2.0%	3.4%	7.4%	12.1%	0.7%	74.5%	0.0%	100.0%
2015년	3	3	10	22	4	102	0	144
	2.1%	2.1%	6.9%	15.3%	2.8%	70.8%	0.0%	100.0%
2016년	1	9	14	23	0	90	1	138
	0.7%	6.5%	10.1%	16.7%	0.0%	65.2%	0.7%	100.0%
전체	7	17	35	63	5	303	1	431
	1.6%	3.9%	8.1%	14.6%	1.2%	70.3%	0.2%	100.0%

2015년에 비해 최고영도자가 감소(-5.6%)하고 관리자(+4.4%)와 내각(+3.2%)이 약간 증가  
 전체적으로 최고영도자라는 인식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당지도부와 내각이 증가 추세

###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2순위)

구분	근로자	관리자	내각	당 지도부	군부	최고영도자	기타	전체
2014년	1	19	44	58	12	9	2	145
	0.7%	13.1%	30.3%	40.0%	8.3%	6.2%	1.4%	100.0%
2015년	1	15	32	75	7	6	6	142
	0.7%	10.6%	22.5%	52.8%	4.9%	4.2%	4.2%	100.0%
2016년	1	15	26	62	18	11	3	136
	0.7%	11.0%	19.1%	45.6%	13.2%	8.1%	2.2%	100.0%
전체	3	49	102	195	37	26	11	423
	0.7%	11.6%	24.1%	46.1%	8.7%	6.1%	2.6%	100.0%

2015년에 비해 당지도부가 감소(-7.2%)하고 군부가 증가(+8.3%)  
 전체적으로 당 지도부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그 다음을 내각과 관리자가 차지

### 교육수준별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1순위)

구분	근로자	관리자	내각	당 지도부	군부	최고영도자	기타	전체
대학교	2014년	0.0%	0.0%	0.0%	15.0%	0.0%	85.0%	100.0%
	2015년	3.6%	3.6%	0.0%	25.0%	0.0%	67.9%	100.0%
	2016년	5.6%	5.6%	11.1%	11.1%	0.0%	66.7%	100.0%
	소계	3.0%	3.0%	3.0%	18.2%	0.0%	72.7%	100.0%
전문학교	2014년	6.3%	0.0%	15.6%	9.4%	0.0%	68.8%	100.0%
	2015년	4.2%	4.2%	12.5%	16.7%	0.0%	62.5%	100.0%
	2016년	0.0%	0.0%	18.8%	12.5%	0.0%	68.8%	100.0%
	소계	4.2%	1.4%	15.3%	12.5%	0.0%	66.7%	100.0%
고등중학교	2014년	1.1%	4.3%	6.5%	13.0%	1.1%	73.9%	100.0%
	2015년	0.0%	1.1%	8.0%	11.4%	4.5%	75.0%	100.0%
	2016년	0.0%	7.8%	8.7%	18.4%	0.0%	64.1%	100.0%
	소계	0.4%	4.6%	7.8%	14.5%	1.8%	70.7%	100.0%

대학교 학력수준: 3년간 최고영도자가 감소 추세/2016년 조사에서 당지도부는 감소하고 내각이 증가  
 전문학교 학력수준: 전체적으로 최고영도자가 대학교 학력수준보다 6.0% 낮은 가운데 2016년 조사에서  
 당지도부가 감소(-4.2%)한 대신 최고영도자(+6.3%)와 내각(+6.3%)이 증가  
 고등중학교 학력수준: 2016년 조사에서 최고영도자가 감소(-10.9%)하고 당지도부가 증가(+7.0%)  
 전체적으로 대학교와 고등중학교 학력수준에 비해 전문학교 학력수준에서 내각의 비중이 높은 점 주목

### 교육수준별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2순위)

구분	근로자	관리자	내각	당 지도부	군부	최고영도자	기타	전체	
대학교	2014년	0.0%	11.1%	33.3%	38.9%	5.6%	5.6%	5.6%	100.0%
	2015년	0.0%	11.5%	26.9%	50.0%	3.8%	0.0%	7.7%	100.0%
	2016년	0.0%	11.1%	22.2%	55.6%	0.0%	5.6%	5.6%	100.0%
	소계	0.0%	11.3%	27.4%	48.4%	3.2%	3.2%	6.5%	100.0%
전문학교	2014년	0.0%	12.9%	16.1%	45.2%	19.4%	6.5%	0.0%	100.0%
	2015년	0.0%	13.0%	26.1%	43.5%	13.0%	4.3%	0.0%	100.0%
	2016년	6.3%	12.5%	0.0%	56.3%	6.3%	18.8%	0.0%	100.0%
	소계	1.4%	12.9%	15.7%	47.1%	14.3%	8.6%	0.0%	100.0%
고등중학교	2014년	1.1%	13.2%	36.3%	36.3%	5.5%	6.6%	1.1%	100.0%
	2015년	1.1%	9.0%	19.1%	57.3%	3.4%	5.6%	4.5%	100.0%
	2016년	0.0%	10.9%	21.8%	41.6%	16.8%	6.9%	2.0%	100.0%
	소계	0.7%	11.0%	25.6%	44.8%	8.9%	6.4%	2.5%	100.0%

전체적으로 내각은 전문학교에서 가장 낮고 군부는 전문학교(14.3%)>고등중학교(8.9%)>대학교(3.2%) 순 군부의 경우 2016년 조사에서 대학교(-3.8%)와 전문학교(-6.7%)에서 감소/고등중학교(+13.4%)에서 증가

### 연령대별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1순위)

구분	근로자	관리자	내각	당 지도부	군부	최고영도자	기타	전체	
20~35세 미만	2014년	1.6%	3.2%	9.5%	19.0%	0.0%	66.7%	0.0%	100.0%
	2015년	2.9%	0.0%	7.4%	19.1%	1.5%	69.1%	0.0%	100.0%
	2016년	0.0%	5.9%	13.2%	23.5%	0.0%	55.9%	1.5%	100.0%
	소계	1.5%	3.0%	10.1%	20.6%	0.5%	63.8%	0.5%	100.0%
35~55세 미만	2014년	3.3%	4.9%	6.6%	8.2%	0.0%	77.0%	0.0%	100.0%
	2015년	1.5%	4.5%	4.5%	12.1%	3.0%	74.2%	0.0%	100.0%
	2016년	1.6%	8.1%	8.1%	11.3%	0.0%	71.0%	0.0%	100.0%
	소계	2.1%	5.8%	6.3%	10.6%	1.1%	74.1%	0.0%	100.0%
55세 이상	2014년	0.0%	0.0%	4.5%	4.5%	4.5%	86.4%	0.0%	100.0%
	2015년	0.0%	0.0%	11.1%	11.1%	11.1%	66.7%	0.0%	100.0%
	2016년	0.0%	0.0%	0.0%	0.0%	0.0%	100.0%	0.0%	100.0%
	소계	0.0%	0.0%	5.1%	5.1%	5.1%	84.6%	0.0%	100.0%

전체적으로 최고영도자는 35세 미만에서 가장 낮고(63.8%) 55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84.6%) 수준 당지도부/내각은 35세 미만에서 가장 높고(각각 20.6%, 10.1%) 55세 이상에서 가장 낮은(모두 5.1%) 수준 2015년에 비해 35세 미만에서는 최고영도자가 감소(-13.2%)하고 당지도부(+4.4%), 내각(+5.8%), 관리자(+5.9%)가 증가

### 연령대별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2순위)

구분	근로자	관리자	내각	당 지도부	군부	최고영도자	기타	전체	
20~35세 미만	2014년	1.6%	14.8%	34.4%	36.1%	1.6%	9.8%	1.6%	100.0%
	2015년	0.0%	11.6%	20.3%	50.7%	4.3%	4.3%	8.7%	100.0%
	2016년	1.5%	10.4%	19.4%	43.3%	11.9%	11.9%	1.5%	100.0%
	소계	1.0%	12.2%	24.4%	43.7%	6.1%	8.6%	4.1%	100.0%
35~55세 미만	2014년	0.0%	11.9%	27.1%	44.1%	11.9%	3.4%	1.7%	100.0%
	2015년	1.6%	10.9%	25.0%	54.7%	4.7%	3.1%	0.0%	100.0%
	2016년	0.0%	13.1%	19.7%	44.3%	14.8%	4.9%	3.3%	100.0%
	소계	0.5%	12.0%	23.9%	47.8%	10.3%	3.8%	1.6%	100.0%
55세 이상	2014년	0.0%	13.6%	27.3%	36.4%	18.2%	4.5%	0.0%	100.0%
	2015년	0.0%	0.0%	25.0%	50.0%	12.5%	12.5%	0.0%	100.0%
	2016년	0.0%	0.0%	12.5%	75.0%	12.5%	0.0%	0.0%	100.0%
	소계	0.0%	7.9%	23.7%	47.4%	15.8%	5.3%	0.0%	100.0%

전체적으로 내각이 감소하는 가운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군부가 증가하는 양상  
 (군부 응답: 35세 미만 6.1%, 35~55세 미만 10.3%, 55세 이상 15.8%)  
 2016년 조사의 경우 35세 미만에서 군부가 증가(+7.6%)

### 북한이 잘 살기 위한 정책(1순위)

구분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전체
2014년	9	8	40	40	48	4	149
	6.0%	5.4%	26.8%	26.8%	32.2%	2.7%	100.0%
2015년	2	8	37	55	44	0	146
	1.4%	5.5%	25.3%	37.7%	30.1%	0.0%	100.0%
2016년	3	6	34	52	43	0	138
	2.2%	4.3%	24.6%	37.7%	31.2%	0.0%	100.0%
전체	14	22	111	147	135	4	433
	3.2%	5.1%	25.6%	33.9%	31.2%	0.9%	100.0%

2015년 조사에 비해 주목할 만한 변화 부재  
 전체적으로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개방) = 자본주의 도입(전환) > 경제관리방법 개선(부분개혁) 순

## 북한이 잘 살기 위한 정책(2순위)

구분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전체
2014년	0	14	30	70	27	3	144
	0.0%	9.7%	20.8%	48.6%	18.8%	2.1%	100.0%
2015년	1	22	29	63	27	2	144
	0.7%	15.3%	20.1%	43.8%	18.8%	1.4%	100.0%
2016년	1	12	31	51	42	0	137
	0.7%	8.8%	22.6%	37.2%	30.7%	0.0%	100.0%
전체	2	48	90	184	96	5	425
	0.5%	11.3%	21.2%	43.3%	22.6%	1.2%	100.0%

2015년 조사에 비해 과학기술발전(-6.5%)과 대외경제협력 확대(-6.6%)가 감소하고 자본주의 도입이 증가(+11.9%)  
 전체적으로 대외경제협력 확대>자본주의 도입≒경제관리방법 개선 순

## 교육수준별 잘 살기 위한 정책 인식(1순위)

구분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전체	
대학교	2014년	0.0%	10.0%	50.0%	30.0%	10.0%	0.0%	100.0%
	2015년	0.0%	6.9%	13.8%	31.0%	48.3%	0.0%	100.0%
	2016년	5.6%	0.0%	55.6%	27.8%	11.1%	0.0%	100.0%
	소계	1.5%	6.0%	35.8%	29.9%	26.9%	0.0%	100.0%
전문학교	2014년	9.4%	0.0%	34.4%	21.9%	25.0%	9.4%	100.0%
	2015년	0.0%	4.2%	45.8%	20.8%	29.2%	0.0%	100.0%
	2016년	6.3%	0.0%	18.8%	37.5%	37.5%	0.0%	100.0%
	소계	5.6%	1.4%	34.7%	25.0%	29.2%	4.2%	100.0%
고등중학교	2014년	5.4%	6.5%	20.7%	28.3%	38.0%	1.1%	100.0%
	2015년	2.2%	5.6%	23.6%	42.7%	25.8%	0.0%	100.0%
	2016년	1.0%	5.8%	19.4%	39.8%	34.0%	0.0%	100.0%
	소계	2.8%	6.0%	21.1%	37.0%	32.7%	0.4%	100.0%

대학교: 2015년에 비해 자본주의 도입이 감소(-37.2%)하고 경제관리방법 개선이 증가(+41.8%)  
 - 전체적으로 경제관리방법 개선>대외경제협력 확대≒자본주의 도입 순/부분개혁과 개방 선호  
 전문학교: 2015년에 비해 경제관리방법 개선이 감소하고 대외경제협력 확대와 자본주의 도입이 증가  
 - 전체적으로 경제관리방법 개선>자본주의 도입>대외경제협력 확대 순/내부 개혁이나 전환 선호  
 고등중학교 학력수준: 2015년에 비해 자본주의 도입이 증가(+8.2%)  
 - 전체적으로 대외경제협력 확대>자본주의 도입>경제관리방법 개선 순/개방과 전환 선호

## 연령대별 북한이 잘 살기 위한 정책(1순위)

구분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 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 협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전체	
20~35세 미만	2014년	6.3%	4.8%	23.8%	31.7%	31.7%	1.6%	100.0%
	2015년	1.4%	4.3%	18.6%	38.6%	37.1%	0.0%	100.0%
	2016년	2.9%	5.9%	19.1%	36.8%	35.3%	0.0%	100.0%
	소계	3.5%	5.0%	20.4%	35.8%	34.8%	0.5%	100.0%
35~55세 미만	2014년	4.9%	6.6%	29.5%	23.0%	32.8%	3.3%	100.0%
	2015년	1.5%	1.5%	34.8%	36.4%	25.8%	0.0%	100.0%
	2016년	1.6%	1.6%	32.3%	40.3%	24.2%	0.0%	100.0%
	소계	2.6%	3.2%	32.3%	33.3%	27.5%	1.1%	100.0%
55세 이상	2014년	9.1%	4.5%	31.8%	22.7%	27.3%	4.5%	100.0%
	2015년	0.0%	33.3%	11.1%	44.4%	11.1%	0.0%	100.0%
	2016년	0.0%	12.5%	12.5%	25.0%	50.0%	0.0%	100.0%
	소계	5.1%	12.8%	23.1%	28.2%	28.2%	2.6%	100.0%

35세 미만: 전체적으로 대외경제협력 확대=자본주의 도입>경제관리방법 개선 순  
 35~55세 미만: 전체적으로 대외경제협력 확대=경제관리방법 개선>자본주의 도입 순  
 55세 이상: 전체적으로 대외경제협력 확대=자본주의 도입>경제관리방법 개선>과학기술 발전 순

## 국가지급 공식 월급별 잘 살기 위한 정책(1순위)

구분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 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 협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전체	
0원	2014년	7.7%	3.3%	25.3%	22.0%	37.4%	4.4%	100.0%
	2015년	1.3%	5.0%	27.5%	41.3%	25.0%	0.0%	100.0%
	2016년	1.3%	0.0%	26.3%	40.0%	32.5%	0.0%	100.0%
	소계	3.6%	2.8%	26.3%	33.9%	31.9%	1.6%	100.0%
5천원 이하	2014년	1.9%	7.7%	30.8%	32.7%	26.9%	0.0%	100.0%
	2015년	0.0%	5.2%	24.1%	32.8%	37.9%	0.0%	100.0%
	2016년	4.4%	8.9%	22.2%	26.7%	37.8%	0.0%	100.0%
	소계	1.9%	7.1%	25.8%	31.0%	34.2%	0.0%	100.0%
5천원 초과	2014년	20.0%	20.0%	20.0%	40.0%	0.0%	0.0%	100.0%
	2015년	12.5%	12.5%	12.5%	37.5%	25.0%	0.0%	100.0%
	2016년	0.0%	15.4%	23.1%	61.5%	0.0%	0.0%	100.0%
	소계	7.7%	15.4%	19.2%	50.0%	7.7%	0.0%	100.0%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발전, 대외경제협력 확대: 5천원 초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경제관리방법 개선: 5천원 초과가 5천원 이하보다 6.6~7.1% 낮은 수준  
 자본주의 도입: 5천원 초과가 5천원 이하보다 24.2~26.5% 낮은 수준  
 => 5천원 초과는 상대적으로 경제시스템 개혁이나 전환에 부정적/김정은 정권의 정책 방향 공감-외부자원 확보 중시

###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 수입별 잘 살기 위한 정책 인식(1순위)

구분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 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 협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전체
2만원 미만	2014년	10.3%	3.4%	13.8%	44.8%	24.1%	3.4%	100.0%
	2015년	33.3%	0.0%	16.7%	33.3%	16.7%	0.0%	100.0%
	2016년	9.1%	0.0%	9.1%	54.5%	27.3%	0.0%	100.0%
	소계	13.0%	2.2%	13.0%	45.7%	23.9%	2.2%	100.0%
90만원 이상	2014년	11.8%	5.9%	29.4%	17.6%	35.3%	0.0%	100.0%
	2015년	0.0%	3.8%	32.1%	28.3%	35.8%	0.0%	100.0%
	2016년	0.0%	6.1%	26.5%	22.4%	44.9%	0.0%	100.0%
	소계	1.7%	5.0%	29.4%	24.4%	39.5%	0.0%	100.0%
전체	2014년	6.4%	6.4%	26.4%	27.2%	31.2%	2.4%	100.0%
	2015년	1.4%	5.5%	25.5%	37.9%	29.7%	0.0%	100.0%
	2016년	2.2%	4.3%	24.6%	37.7%	31.2%	0.0%	100.0%
	소계	3.2%	5.4%	25.5%	34.6%	30.6%	0.7%	100.0%

2만원 미만: 전체적으로 대외경제협력 확대>자본주의 도입>사상성 강화(13.0%)=경제관리방법 개선 순  
 - 2015년 대비 대외경제협력(+21.2%), 자본주의 도입(+9.6%) 증가 / 경제관리방법 개선(-7.6%), 사상성(-24.2%) 감소  
 90만원 이상: 전체적으로 자본주의 도입>경제관리방법 개선>대외경제협력 확대 순(사상성 강화는 1.7%에 불과)  
 - 2015년 대비 자본주의 도입 증가(+9.1%) / 경제관리방법 개선(-5.6%), 대외경제협력 확대(-5.9%) 감소

### ※ 소득 수준별 잘 살기 위한 정책 인식(1순위)

구분		사상성 강화	과학기술 발전	경제관리 방법 개선	외국과 경제 협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	기타	전체
국가지급 공식 월급 (개인)	0-5천원 이하	3.0%	4.4%	26.1%	32.8%	32.8%	1.0%	100.0%
	5천원 초과	7.7%	15.4%	19.2%	50.0%	7.7%	0.0%	100.0%
	소계	3.2%	5.1%	25.7%	33.8%	31.3%	0.9%	100.0%
비공식 월 소득 (개인)	2만원 미만	5.8%	4.9%	25.2%	35.9%	27.2%	1.0%	100.0%
	90만원 이상	3.1%	6.1%	29.6%	22.4%	37.8%	1.0%	100.0%
	소계	4.5%	5.5%	27.4%	29.4%	32.3%	1.0%	100.0%
비공식 월 소득 (가구)	2만원 미만	13.0%	2.2%	13.0%	45.7%	23.9%	2.2%	100.0%
	90만원 이상	1.7%	5.0%	29.4%	24.4%	39.5%	0.0%	100.0%
	소계	4.8%	4.2%	24.8%	30.3%	35.2%	0.6%	100.0%

응답 항목별 국가지급 공식 수입과 장사나 부업을 통한 비공식 수입 간 인식의 역전 현상 주목

## [결론-주요 특징과 함의]

### ○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서

- 원부자재나 상품의 출처를 보면  
전체적으로 북한산이 30.6%, 중국산이 64.5%를 차지  
김정일 정권보다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산이 증가  
김정은 정권 전반과 후반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  
※ 최종소비재나 중간재의 국산화 성과가 다소 의문
-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김정은 정권 전반과 후반을 비교할 경우  
사업자금 마련과 도로·철도·전기사정 감소  
단속이나 뇌물이 크게 증가  
※ 도로교통 기반의 운송서비스업 발달  
※ 에너지 생산의 다변화 추진 결과일 가능성
- 전체수입 중 뇌물로 제공한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85% 정도가 뇌물을 제공  
뇌물 규모는 2012년 조사 이후 대체로 비슷한 수준

## [결론-주요 특징과 함의]

-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비율 지속 증가  
공식 직업별로 국가지급 생활비가 0원인 경우  
노동자(48.1%)>군인(34.8%)>사무원(14.9%) 순
-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은  
김정은 정권 전반과 후반을 비교할 경우  
30만원 이하 감소/30만원 초과 증가
- 잘 살거나 못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을 보면  
최상: 중앙당 간부-법기관 간부  
중간: 지방당 간부-외화벌이-시장상인-인민위원회 간부  
최하: 농민-노동자
-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를 살펴보면
  - 현존하는 경제적 계층질서가  
개인의 성취보다 정치적 요인에 좌우된다는 인식이 지배적
  - 다만 개인성격이나 노력의 지속 증가(3순위) 추세는 주목

## [결론-주요 특징과 함의]

-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 전체적으로 최고영도자라는 인식이 감소 추세  
※ 김정은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기대가 작용할 가능성
  - 2015년에 비해 군부가 증가(+8.3%)(2순위)  
전문학교(14.3%)>고등중학교(8.9%)>대학교(3.2%) 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군부 응답이 증가
  - 대학교 수준에서 3년간 최고영도자가 감소 추세  
최고영도자는 35세 미만에서 가장 낮고 55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  
당지도부/내각은 35세 미만에서 가장 높고 55세 이상에서 가장 낮은 수준
  - 35세 미만 청년층의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

## [결론-주요 특징과 함의]

- 잘살기 위한 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 학력수준에 따라  
대학교 수준에서는 경제시스템 부분개혁과 개방 선호  
전문학교 수준에서는 내부 경제시스템 개혁 선호  
고등중학교 수준에서는 개방과 경제시스템 전환 선호
  - 연령대별 잘 살기 위한 정책을 보면  
자본주의 도입: 35세 선호  
경제관리방법 개선: 35~55세 미만이 35세 미만보다 선호
- 국가지급 공식 월급(개인)별 잘 살기 위한 정책을 보면  
국가지급 공식월급(개인)이 높은(5천원 초과) 층이  
상대적으로 경제시스템 개혁이나 전환에 부정적  
※ 김정은 정권 정책 방향 공감-외부자원 확보 중시 가능성
-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 수입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정권 논리에 순응적, 내부변화에도 소극적  
소득이 높을수록 보다 큰 폭의 내부변화를 선호

# 시장화, 소득 분화, 경제개혁인식 (요약)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1. 시장화-사적 경제활동

- 북한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장사경험의 경우
  - 있다는 응답이 2015년 조사보다 7.9% 정도 감소하였으나, 김정일 정권 말년(2012년 조사),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 조사)과 후반(2015~16년 조사)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장사 자체는 이제 보편화된 사적 경제활동의 하나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김정일 정권 말년(2012년),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2016년)을 비교할 경우 대학교 학력수준에서는 증가하고 고등중학교 학력수준에서는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2016년)을 비교할 경우 35~45세 미만(90년대 고난의 행군기 사회진출)에서는 감소한 반면 55세 이상(70년대 이전 사회진출)에서는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35~45세 미만과 45~55세 미만(84년 8.3조치 전후 사회진출) 연령대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를 살펴보면
  - 2016년의 경우 2015년 조사에 비해 소매장사(-5.8%)와 외화벌이(-7.3%)가 감소한 반면 되거리장사(+9.0%)가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 소매장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되거리장사와 기타(밀수 등)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장사(소매+도매) 비중이 44.6%로 절반 정도에 달하고 있음

-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하면서 사용한 원부자재나 상품의 출처를 보면 전체적으로 북한산이 30.6%, 중국산이 64.5%를 차지한 가운데 2016년의 경우 2015년 조사에 비해 북한산이 감소(-5.0%)하고 중국산이 증가(+5.4%)하였으며, 김정일 정권 말년(2012년)보다 김정은 정권(2013~16년)에서 북한산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2016년)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최종소비재나 중간재의 국산화 성과가 다소 의문시됨
-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별로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2015년 조사에 비해 북한산은 소매장사(-7.9%)와 외화벌이(-20.0%)에서 크게 감소하고 중국산은 외화벌이(+25.0%)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2013년 조사 이후 되거리장사와 외화벌이에서 북한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소매장사에서 2016년의 경우 전년 조사보다 북한산의 비중이 떨어지고, 도매(되거리)장사나 외화벌이에서도 북한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고 있는 최종소비재나 중간재의 국산화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다소 의문스러운 상황임
-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하면서 가족 이외에 타인을 고용한 경우를 보면 2016년의 경우 2015년 조사와 비슷한 30% 중반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2016년)을 비교하면 타인 고용 비율이 김정은 정권 전반(26.4%)보다 후반(35.5%)에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고용규모에서는 김정일 정권 말년(2012년),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2016년)을 비교할 경우 10명 이상 고용 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고용 기간에서는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을 비교할 경우 1개월 미만(-14.0%)이 감소하고 3개월~6개월 미만(+21.6%)이 증가하였으나 6개월 이상이 감소하여 사업의 확장성, 지속성과 안정성이 의문시됨
- 주된 수입을 얻은 일거리에 종사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1순위에서 2016년의 경우 2015년 조사에 비해 단속이나 뇌물이 약간 감소(-5.3%)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사업자금 마련과 뇌물이나 단속이 30.0% 전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을 비교할 경우 사업자금 마련(-22.5%)과 도로철도사정(-6.7%), 전기사정(-4.2%)이 감소한 대신 단속이나 뇌물(+33.7%)이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는 북한에서 철도 대신 자동차를 이용한 도로교통 기반의 운송서비스업이 발달하고 에너지 생산의

다변화를 추진한 결과일 가능성과 김정은 정권의 사회주의 질서 확립 방침에 따른 각종 단속이나 건설을 위한 자원 징발등이 뇌물 제공이나 각종 세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애로사항 2순위를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2015년 조사에 비해 사업자금 마련이 증가(+7.5%)하고 도로나 철도사정이 감소(-5.5%)하였고 전체적으로 37.1%를 차지한 단속이나 뇌물에 이어 사업자금 마련, 도로철도사정, 상품원자재확보, 전기사정이 10% 이상을 차지하였음

○ 김정은 정권 후반(2015~2016년) 조사에서 급증하고 있는 단속이나 뇌물과 관련하여 전체수입 중 뇌물로 제공한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85% 정도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 정권 말년(2012년),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을 비교할 경우 뇌물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미세하게 증가하였으나 뇌물 규모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 2. 소득분화

○ 국가지급 가구 생활비를 살펴보면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비율이 조사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김정일 정권 말년(2012년),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을 비교시 0원이 지속 증가하고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을 비교시 미세하지만 1~5천원 이하가 감소(-4.5%)하고 0원(+2.5%)과 5천원 초과(+2.0%)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시사

- 한편 공식 직업별로 국가가 지급하는 공식 월급(개인)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0원의 경우 노동자(48.1%)>군인(34.8%)>사무원(14.9%) 순을 보이는 가운데 노동자의 경우 0원이 감소하고 3천원 이하가 증가하는 한편 1만원 초과도 증가하는 양상으로 일부 공장 정상화 추세와 소득 양극화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하고 있으며 사무원의 경우 0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3천원 이하가 감소하는 가운데 노동자와 비교하면 1만원 초과 고임금이 없음

-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2015년 조사에 비해 2만원 미만(+3.9)과 2만~10만원 이하(+2.5%)가 미세하게 증가하고 10만원 초과 비율은 미세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가운데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을 비교할 경우 30만원 이하가 감소하고 30만원 초과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잘 살거나 못사는 직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 먼저 가장 잘 사는 직업 1순위에서 2016년의 경우 2015년 조사에 비해 중앙당 간부라는 인식이 미세하게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전체적으로 가장 잘 사는 직업은 중앙당 간부라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순위에서는 2016년의 경우 2015년 조사에 비해 법기관 간부라는 인식이 8.5%, 외화벌이라는 인식이 2.8% 증가한 반면 지방당 간부라는 인식은 5.2% 감소하였고 전체적으로 법기관 간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외화벌이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
  - 중간 정도 잘 사는 직업 1순위에서는 2016년의 경우 2015년 조사에 비해 지방당 간부(-4.0%)와 법기관 간부가 감소하고(-6.2%) 외화벌이는 증가하였으며(+5.4%) 전체적으로 지방당 간부, 외화벌이 순으로 잘 사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을 비교하면 지방당 간부와 시장상인이 증가하고 인민위원회 간부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순위에서는 2016년의 경우 2015년에 비해 인민위원회 간부(-5.7%)와 농장관리일꾼(-4.3%)이 감소하고 대신 시장상인이 미세하게 증가하였고(+3.8%) 전체적으로 외화벌이 다음을 시장상인과 인민위원회 간부가 차지하고 있음
  - 가장 못사는 직업 1순위에서는 2016년의 경우 2015년 조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비슷한 비율을 유지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농민이 가장 못 산다는 인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김정일 정권 말년(2012년),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을 비교할 경우 농장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순위에서도 2016년의 경우 2015년 조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비슷한 비율을 유지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공장.기업소의 노동자가 가장 못 산다는 인식이 40% 정도를 차지함

○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를 살펴보면

- 1순위에서 2016년의 경우 2015년 조사에 비해 출신성분이 증가(+7.4%)하고 정치사상성이 미세하게 감소(-2.9%)하였으며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을 비교하면 정치사상성과 권력층 안면관계는 감소하고 본인직위와 출신성분은 증가하였는바, 전체적으로 현존하는 경제적 계층질서가 개인의 노력과 성취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좌우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정치적 계층질서가 기본적으로 공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함
- 교육수준별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 1순위를 보면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을 비교할 경우 대학졸업의 경우 정치사상성(-15.3%), 본인직위(-8.0%), 권력층 안면관계(-13.4%)가 감소하고 출신성분이 크게 증가하였으며(+24.3%) 전문학교의 경우 정치사상성(-9.8%)과 권력층 안면관계(-14.8%)가 감소하고 본인직위가 증가하였고(+26.2%) 고등중학교의 경우 정치사상성(-15.1%)이 감소하고 본인직위가 증가하였음(+13.5%)
- 2순위에서는 2016년의 경우 2015년 조사에 비해 권력층 안면관계가 증가하고(+6.0%) 전체적으로 권력층 안면관계>본인직위>출신성분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3순위에서는 2016년의 경우 대체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전체적으로 출신성분>개인 성격이나 노력>사는 지역>본인직위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김정일 정권 말년(2012년),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을 비교할 경우 비록 3순위라 하더라도 개인성격이나 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13.9%→17.2%→20.9%) 있는 반면 교육수준은 여전히 5% 전후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잘 사는 지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 가장 잘 사는 지역(도)은 2016년의 경우 평안남도>평안북도=양강도>함경북도 순이었고 전체적으로는 평안남도>함경북도>평안북도>양강도 순이었으며, 가장 못사는 지역(도)은 2016년의 경우 2015년에 비해 황해남도(-7.0%)와 황해북도(-9.0%)가 감소하고 강원도(+18.3%)가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강원도>황해남도>자강도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평양을 제외하고 가장 잘 사는 도시 2016년의 경우 2015년 조사에 비해 신의주(-6.2)가 하락하고 평성(+7.9%)이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 2014년 신의주>라선>평성>혜산에서 2015년 라선>신의주>평성으로 변화된 순서가 지속되고 있으며(2014년 이후 신의주 하락 추세 지속) 가장 못 사는 도시는 2016년의 경우 2015년 조사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혜산≒사리원>원산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사리원>원산≒혜산>개성>남포 순을 보임

### 3. 경제개혁 인식

-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 1순위에서 2016년의 경우 2015년에 비해 기업소 명의 개인소유 화물차나 부동산이 감소(-5.6%)하였고 전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장매대>소토지>살림집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김정일 정권 말년(2012년),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을 비교하면 소토지, 시장매대, 농장분조 경작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기업소 명의 개인소유 화물차, 부동산은 증가하였고 동시에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증가함
  - 2순위에서 2016년의 경우 2015년에 비해 살림집이 증가(+8.0%)하고 소규모 지방산업공장이 감소(-7.5%)하였고 시장매대>살림집>개인운영 국가상점>기업소 명의 개인소유 화물차·부동산>소토지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살림집>시장매대>개인운영 국가상점>기업소 명의 개인소유 화물차, 부동산>소토지 순을 차지함
  - 교육수준별 우선적 상거래 대상 1순위를 보면 김정은 정권 전반(2013~14년)과 후반(2015~16년)을 비교할 경우 대학교 학력수준에서는 소토지, 시장매대가 감소하고 살림집 소규모 지방산업공장과 기업소 명의 개인소유 화물차, 부동산이 증가하였고 전문학교 학력수준에서는 소토지, 살림집, 시장매대가 감소하고 개인운영 국가상점이 증가하였으며 고등중학교 학력수준에서는 소토지, 시장매대가 감소하고 개인소유 화물차, 부동산이 증가함

○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 1순위에서는 2016년의 경우 2015년 조사에 비해 최고영도자가 감소(-5.6%)하고 관리자(+4.4%)와 내각(+3.2%)이 약간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 최고영도자라는 인식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당지도부와 내각이 증가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태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기대가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주목됨
- 2순위에서는 2016년의 경우 2015년에 비해 당지도부가 감소(-7.2%)하고 군부가 증가(+8.3%)하였고 전체적으로 당지도부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그 다음을 내각과 관리자가 차지함
- 교육수준별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 1순위를 살펴보면 대학교 학력수준에서 3년간 최고영도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6년 조사에서 당지도부는 감소한 대신 내각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전문학교 학력수준에서는 전체적으로 최고영도자가 대학교 학력수준보다 6.0% 낮은 가운데 2016년 조사에서 당지도부가 감소(-4.2%)한 대신 최고영도자(+6.3%)와 내각(+6.3%)이 증가하였고 고등중학교 학력수준에서는 2016년 조사에서 최고영도자가 감소(-10.9%)하고 당지도부가 증가(+7.0%)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대학교나 고등중학교 학력수준에 비해 전문학교 학력수준에서 내각의 비중이 높은 점이 주목됨
- 교육수준별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 2순위에서 군부를 보면 전체적으로 전문학교(14.3%)>고등중학교(8.9%)>대학교(3.2%)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16년 조사에서는 대학교(-3.8%)와 전문학교(-6.7%)에서 감소/고등중학교(+13.4%)에서 증가함
- 연령대별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 1순위를 보면 전체적으로 최고영도자는 35세 미만에서 가장 낮고(63.8%) 55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84.6%) 수준을 보였고 당지도부/내각은 35세 미만에서 가장 높고(각각 20.6%, 10.1%) 55세 이상에서 가장 낮은(모두 5.1%) 수준을 보였으며 2016년 조사의 경우 2015년에 비해 35세 미만에서는 최고영도자가 감소(-13.2%)하고 당지도부(+4.4%), 내각(+5.8%), 관리자(+5.9%)가 증가하였음
- 연령대별 북한 경제가 어려운 이유 2순위를 보면 전체적으로 내각이 감소하는 가운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군부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군부 응답 비중: 35세 미만 6.1%, 35~55세 미만 10.3%, 55세 이상 15.8%) 2016년 조사의 경우 35세 미만에서 군부가 증가(+7.6%)

- 35세 미만 청년층의 경우 대체로 최고영도자보다 당지도부나 내각, 군부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을 보임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주목됨

○ 잘살기 위한 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 1순위에서 2016년의 경우 2015년 조사에 비해 주목할 만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개방)≒자본주의 도입(전환)≒경제관리방법 개선(부분개혁)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순위에서는 2016년의 경우 2015년 조사에 비해 과학기술발전(-6.5%)과 대외경제협력 확대(-6.6%)가 감소하고 자본주의 도입이 증가(+11.9%)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대외경제협력 확대>자본주의 도입≒경제관리방법 개선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교육수준별 잘 살기 위한 정책 1순위를 보면 대학교 학력수준에서는 2016년의 경우 2015년에 비해 자본주의 도입이 감소(-37.2%)하고 경제관리방법 개선이 증가(+41.8%)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경제관리방법 개선>대외경제협력 확대≒자본주의 도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경제시스템 부분개혁과 개방 선호), 전문학교 학력수준에서는 2016년의 경우 2015년에 비해 경제관리방법 개선이 감소하고 대외경제협력 확대와 자본주의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가운데 전체적으로 경제관리방법 개선>자본주의 도입>대외경제협력 확대 순을 차지하였고(내부 경제시스템 개혁 선호) 고등중학교 학력수준에서는 2016년의 경우 2015년에 비해 자본주의 도입이 증가(+8.2%)하였고 전체적으로 대외경제협력 확대>자본주의 도입>경제관리방법 개선 순을 차지함(개방과 경제시스템 전환 선호)
- 김정은 정권이 경제관리방법 개선과 대외협력 확대(경제개발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대학교 학력수준의 인식과 상통하는 측면이 존재함(참고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비율도 2014~16년 조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교 학력수준이 50.7%로 전문학교 45.8%보다 4.9% 높고 고등중학교 50.7%와 동일한 수준을 보였음)
- 연령대별 잘 살기 위한 정책 1순위를 보면 35세 미만의 경우 전체적으로 대외경제협력 확대≒자본주의 도입>경제관리방법 개선 순이고 35~55세 미만은 전체적으로 대외경제협력 확대≒경제관리방법 개선>자본주의 도입 순이었으며 55세 이상은 전체적으로 대외경제협력 확대=자본주의 도입>경제관리방법 개선>과학기술발전 순을 보

였으며 자본주의 도입은 35세 미만은 35~55세 미만보다 7.8% 높고 경제관리방법 개선은 35~55세 미만이 35세 미만보다 11.9% 높음

- 이는 35세 미만 청년층은 좀 더 큰 폭의 급진적인 변화를 선호하는 반면 35~55세 미만의 중년층은 상대적으로 보다 소폭의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할 가능성을 시사함
- 국가지급 공식 월급(개인)별 잘 살기 위한 정책 1순위를 살펴보면 사상성 강화, 과학 기술발전, 대외경제협력 확대는 5천원 초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경제 관리방법 개선은 5천원 초과가 5천원 미만보다 6.6~7.1% 낮은 수준이었으며 자본주의 도입은 5천원 초과가 5천원 미만보다 24.2~26.5% 낮게 나타남
- 이는 국가지급 공식월급(개인)에서 5천원을 초과하는 층이 상대적으로 경제시스템 개혁이나 전환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현 김정은 정권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 외부 자원 확보를 중시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장사나 부업을 통한 월평균 가구 수입별 잘 살기 위한 정책 1순위를 보면 2만원 미만에서는(최하위 20% 정도) 전체적으로 대외경제협력 확대(45.7%)>자본주의도입(23.9%)>사상성 강화(13.0%)=경제관리방법 개선 순이었고, 90만원 이상에서는(최상위 20% 정도) 전체적으로 자본주의 도입(39.5%)>경제관리방법 개선(29.4%)>대외경제협력 확대(24.4%) 순이었고 사상성 강화는 1.7%에 불과하였음
- 이는 장사나 부업을 통한 소득이 낮을수록 김정은 정권의 사상성 강조에 더 순응하면서 내부변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보다 큰 폭의 내부변화를 선호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소득의 분화에 따른 인식과 이해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줌

---

# 김정은 정권 5년, 북한사회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

• 발표 2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

정은미 (서울대)



#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

정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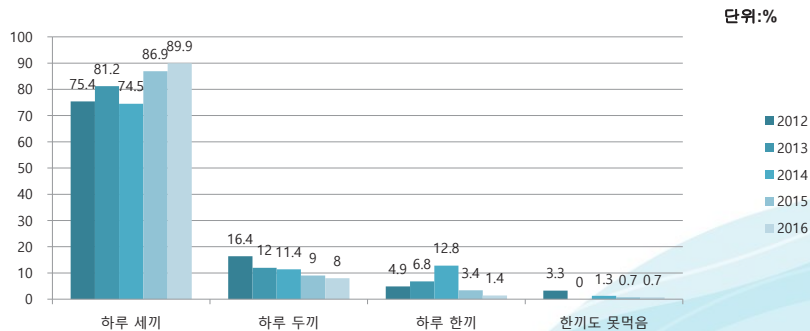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 I. 북한 주민의 의식주와 소비생활

1. 식생활 (식사 횟수, 주식 구성, 고기섭취 횟수)
2. 의생활 (의복구매횟수, 의복 원산지, 구입 경로)
3. 주생활 (주택 형태, 주택 마련 경로, 주택 개조)
4. 남한물건 이용 실태
5. 소비자 행동의 능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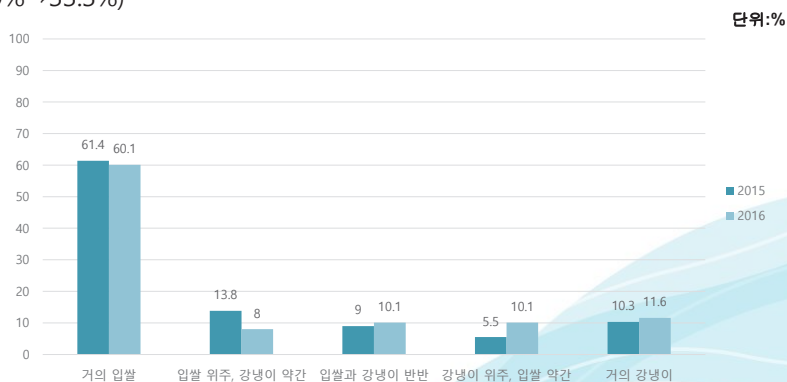
## 하루 식사 횟수

- 전년 대비 벼, 옥수수 등 곡물생산량이 줄어들었으나, 식생활의 양적 감소는 나타나지 않음
- '하루 세끼 식사' 응답률 2014년 86.9%→2015년 89.9%
- 계층간 식사량의 격차가 전년대비 줄어들음(하루 세끼 식사 응답률: 상층 90.3%→100%, 중층 86.7%→93.5%, 하층 62.5%→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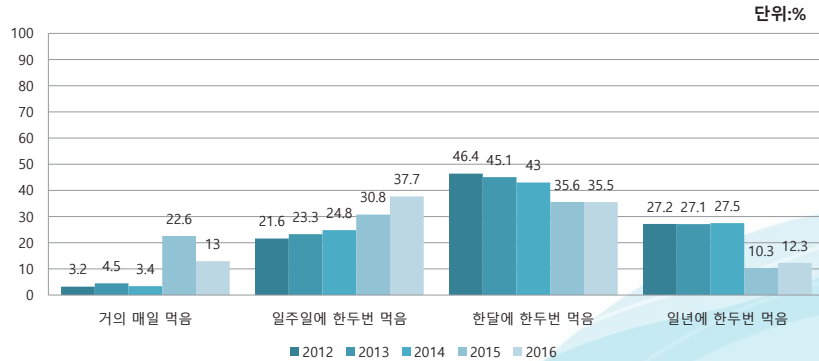
## 주식의 구성

- 식생활의 질은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 유지
-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 응답자 10명 중 6명 수준(응답률 60.1%)
- 강냉이 섭취율 전년 대비 증가('강냉이 위주 식사' 2015년 5.5%→10.1%, '강냉이로만 식사' 2015년 10.3%→11.6%)
-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상층과 중층의 식사 질 저하, 반면 하층의 식사 질 개선 ('입쌀로만 식사' 응답률: 상층 100%→92.3%, 중층 66%→64.5%, 하층 29%→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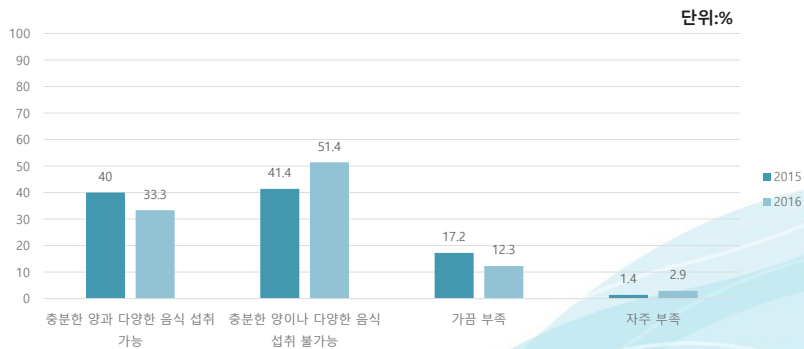
## 고기의 섭취 횟수

- 고기 섭취 수준 전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매일+일주일에 한두번 고기 섭취 응답률: 2015년 50.7%)
- 한국은행의 자료, 2015년 축산업과 어업의 생산량 전년 대비 크게 증가
- 중층과 하층의 고기 섭취율 전년대비 크게 증가(매일+일주일에 한두번 고기 섭취 응답률: 상층 84.8%→84.6%, 중층 42.2%→58.1%, 하층 6.8%→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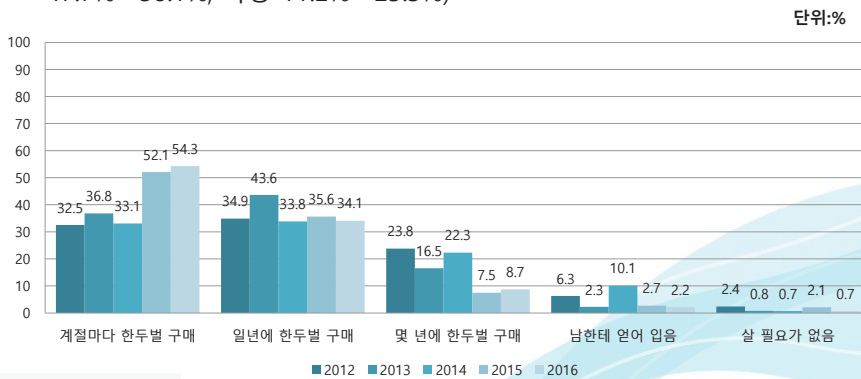
## 탈북 직전 1년간의 식생활 형편

- 응답자 10명중 8명 이상은 식생활의 양적 문제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식생활의 질은 전년 대비 소폭 떨어짐
- 충분한 양과 다양한 음식 섭취한 응답률 전년대비 계층간 격차 더 커짐(상층 85.7%→92.3%, 중층 44%→35.5%, 하층 6.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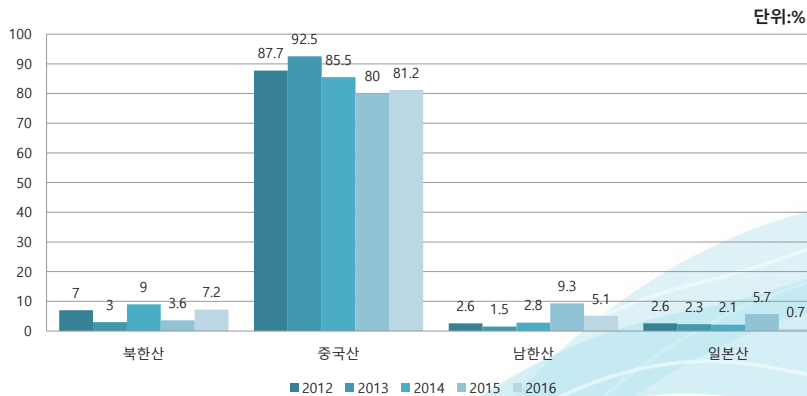
## 의류의 구매 횟수

- '계절마다 한두벌 구매' 응답률 전년대비 소폭 증가, 응답자 10명 중 5명 이상은 계절마다 한두벌의 옷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중 경공업(섬유, 의복, 신발 등) 생산 전년대비 0.8% 감소(한국은행 자료)에도 불구하고, 의생활의 양적 증가는 계속됨
- 의류 구매 횟수 전년대비 모든 계층에서 비슷한 폭으로 증가, 그러나 계층간 격차 큼(계절마다 한두벌 구입 응답률 상승 81.8%→92.3%, 중층 47.7%→58.1%, 하층 11.2%→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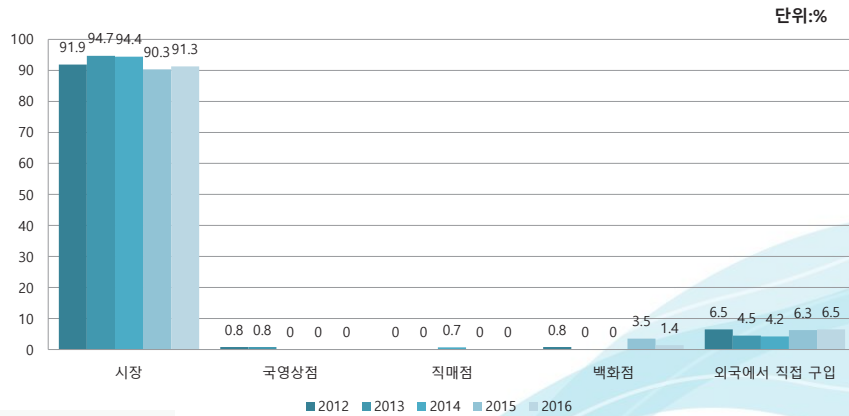
## 의류의 원산지

- 중국산 의류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북한산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함(3.6%→7.2%)
- 남한산과 일본산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함(대북제재 강화 효과?)
- 북한산 의류 상승의 경우 북한산 0%, 남한산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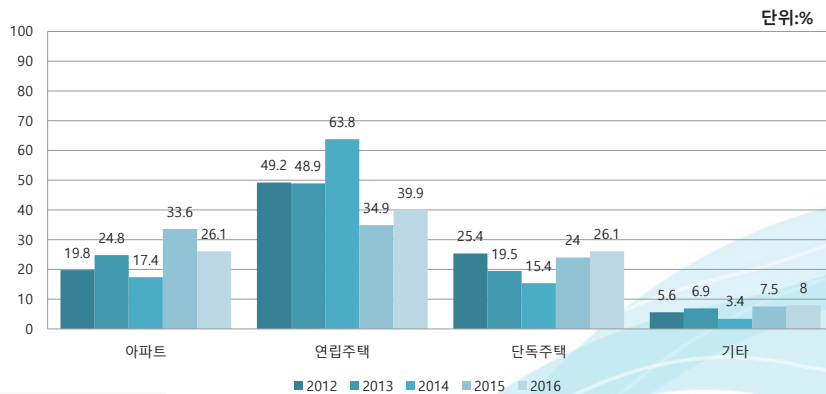
## 의류의 구매처

- 시장의존도 절대적 수준임(10명 중 9명이 시장에서 구입함)
- 전년과 달리 백화점 구입은 줄어들고, 해외 직구 비중은 비슷한 수준 유지
- 전통 사회주의 상업망인 국영상점의 기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 백화점 구입 응답자는 모두 상층에 속하며, 하위 계층일수록 시장 비중 커짐(상층 76.9%, 중층 91.4%, 하층 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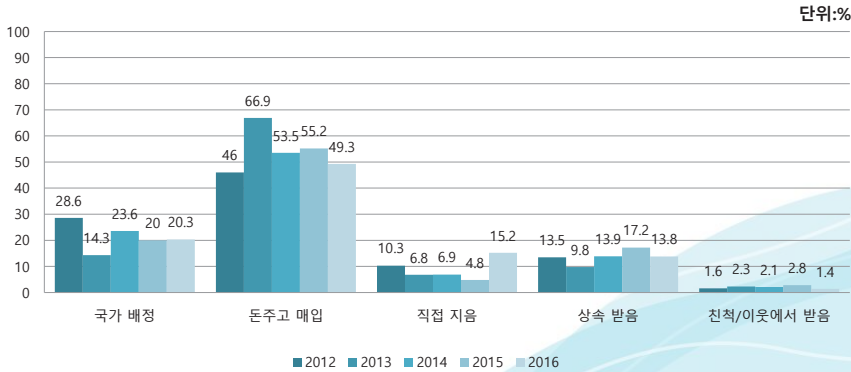
## 살림집 유형

- 전년대비 아파트 거주비율은 감소하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거주비율 증가함(유엔인구기금의 '2014년 북한사회경제 조사 보고서', 아파트 25%, 연립주택 41.7%, 단독주택 32.8%)
- 상층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비율 전년대비 크게 증가함(39.4%→61.5%), 반면 아파트 거주비율은 감소함(45.5%→15.4%)
- 중층의 경우, 아파트 거주비율 전년대비 소폭 증가(25.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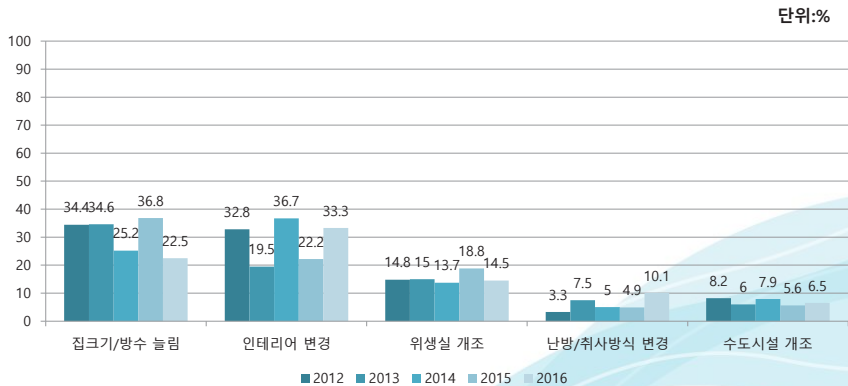
## 살림집 장만 경로

- 살림집을 직접 지었다는 응답률 전년대비 크게 증가함(4.8%→15.2%)
- 돈을 주고 샀다는 응답률 전년대비 소폭 감소함(55.2%→49.3%)
- 국가가 배정해 준 살림집에 거주했다는 응답자는 10명중 2명에 불과
- 상위계층일수록 돈 주고 샀거나 직접 지은 살림집 거주 비율 높음('돈 주고 매입' 응답률 상층 61.5%, 중층 52.7%, 하층 33.3%/ '직접 지음' 응답률 상층 23.1%, 중층 17.2%, 하층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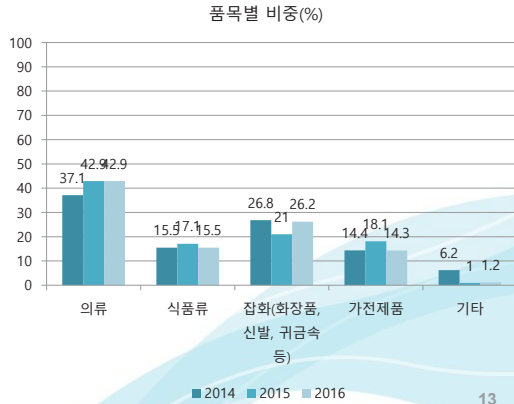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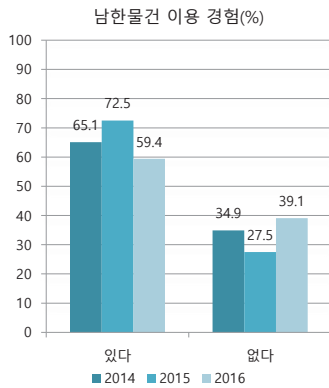
## 살림집 개조 희망사항

- 집의 크기나 방의 수 늘리고 싶다는 응답률 전년대비 크게 감소 (36.8%→22.5%), 반면 인테리어 변경 응답률 크게 증가(22.2%→33.3%)
- 난방이나 취사 시설 변경 응답률 전년대비 증가(4.9%→10.1%)
- 상층의 경우, 방의 크기나 수 늘리거나 난방취사시설 변경 응답률 높은 반면, 중층과 하층의 경우 인테리어 변경 응답률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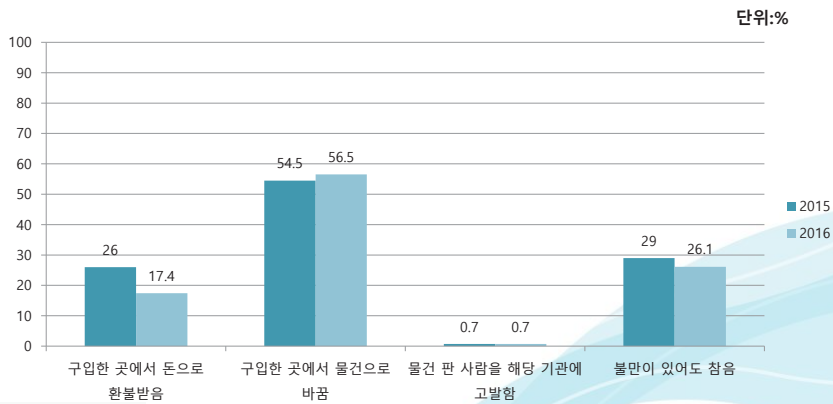
## 남한 물건 이용 실태

- 남한물건 사용 경험 응답률 전년대비 크게 감소(72.5%→59.4%)
- 가장 많이 사용해 본 품목, 의류(42.9%)>잡화(26.2%)>식품류(15.5%)
- 전년대비 상층과 중층의 사용경험 응답률 크게 줄고, 하층의 응답률은 증가(상층 88.2%→76.9%, 중층 76.8%→59.1%, 하층 44.9%→53.3%)



## 소비자 행동의 능동성

- 구입한 물건에 불만이 있을 경우, 환불보다는 교환의 경우가 훨씬 더 많음 (환불 17.4%, 교환 56.5%)
- '불만 있어도 참는다' 응답률 전년대비 소폭 상승(29%→26.1%)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 기관의 중재에 대한 기대감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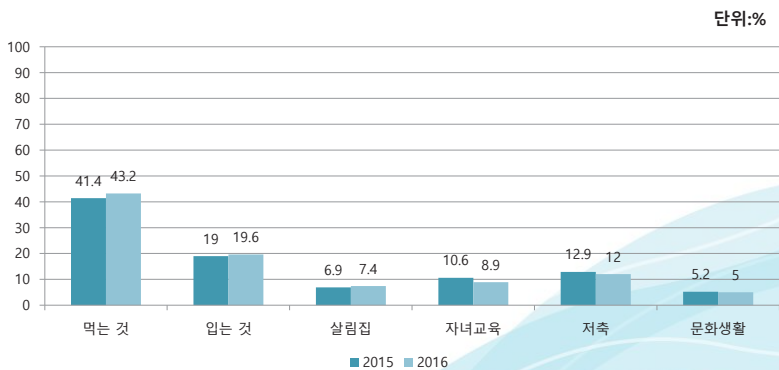


## II. 북한 주민의 가계경제와 가족생활

1. 가계소득의 지출 구조
2. 자녀 사교육 실태
3. 가족 의사결정구조
4. 사회보장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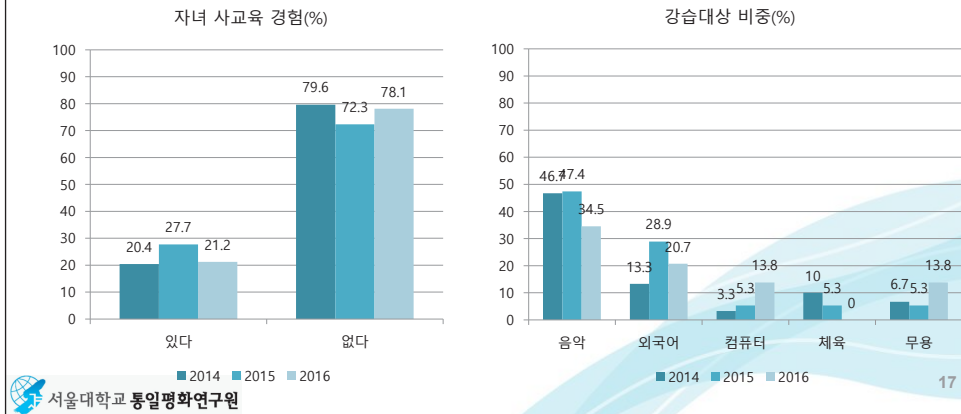
### 가계 지출 구조

- 월평균 소득 중에서 '먹을 것'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함(평균43.2%)
- 다음으로, 의복(19.6%)>저축(12%)>자녀교육(8.9%) 순으로 지출 많음
- 전반적인 가계지출 구조 전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 남북한의 가계지출 구조(2015년) 비교:  
**食** 북(43.2%)>남(28.3%), **衣** 북(19.6%)>남(6.3%), **住** 북(7.4%)<남(10.8%),  
**자녀교육** 북(8.9%)<남(11.1%), **문화생활** 북(5%)<남(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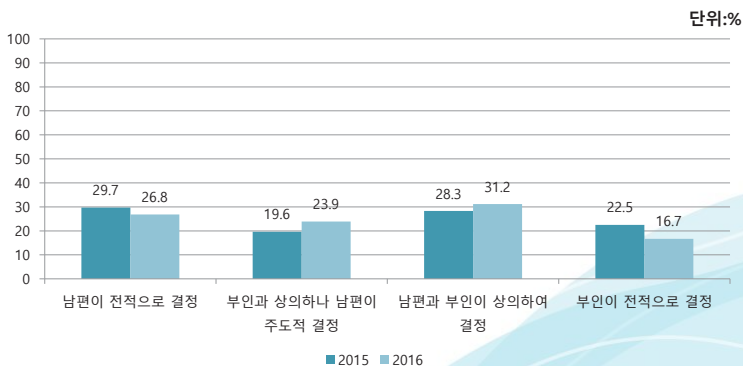
## 자녀 사교육 실태

- 자녀 개인강습 경험 '있다'는 응답자 전년대비 소폭 감소(6.5%p ↓)
- 강습대상 음악(34.5%) > 외국어(20.7%) > 컴퓨터(13.8%) 순서로 비중 큼
- 중층이 자녀 사교육에 대한 관심 가장 높음(교육='신분 상승의 사다리')  
-'경험 有' 응답률 상승 15.4%, 중층 23.9%, 하층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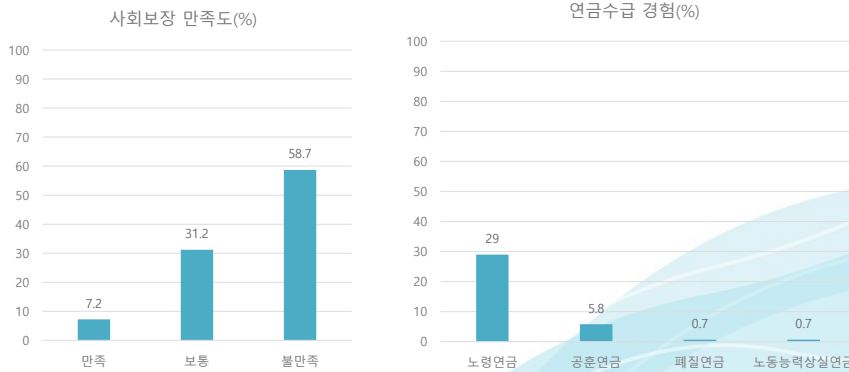
## 가족의 의사결정구조

- 가족 의사결정에서 부부의 협의 비중은 증가(28.3%→31.2%), 남편의 일방적 결정 비중은 감소(29.7%→26.8%)
- 여성의 가계경제 기여도 증가로 가족 내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권한도 커지고 있음
- 가족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남편의 권한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계층은 하층인 반면에, 부부 공동결정은 중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사회보장 실태

-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의 실효성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 만족도 '만족' 7.2%, '보통' 31.2%, '불만족' 58.7%
  - ※ 북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률 8%(개성공단 근로자의 경우 15%)
- 본인 또는 부모의 노령연금(양로연금) 수급 경험 비율 29%에 불과
- 공훈연금, 폐질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수급 경험 거의 전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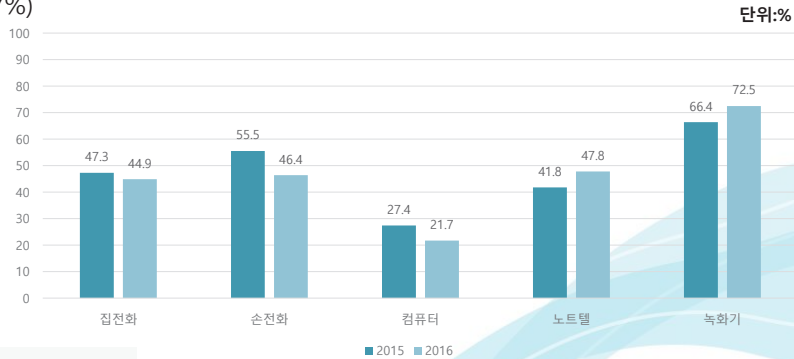


## III. 북한 사회의 정보화

1. 정보통신 이용 실태
2. 남한 소식 인지 수준
3. 외부 정보의 습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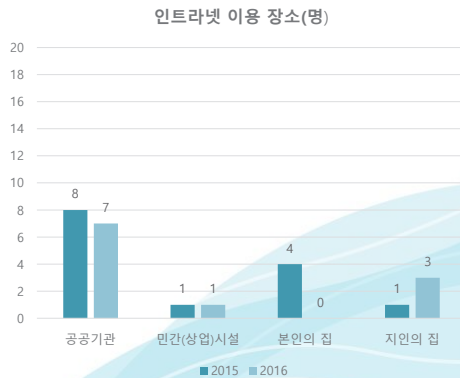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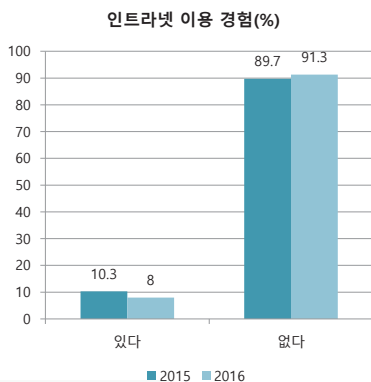
## 정보통신기기의 이용 실태

- 노트북, 녹화기 등 영상기기 보유·이용률은 전년대비 증가, 집전화, 손전화 보유·이용률은 전년대비 감소
- 유엔인구기금&북한 통계국의 '2014 북한 사회경제, 인구, 보건 조사' 보고서, 집전화 42%, 라디오 87.5%, 텔레비전 99.2%
- 컴퓨터 보유·이용률이 가장 낮으며, 전년대비 감소
- 녹화기를 제외한 모든 정보통신기기에서 계층간 격차 큼  
(손전화-상층 69.2%, 49.5%, 30%, 컴퓨터-상층 46.2%, 중층 23.7%, 하층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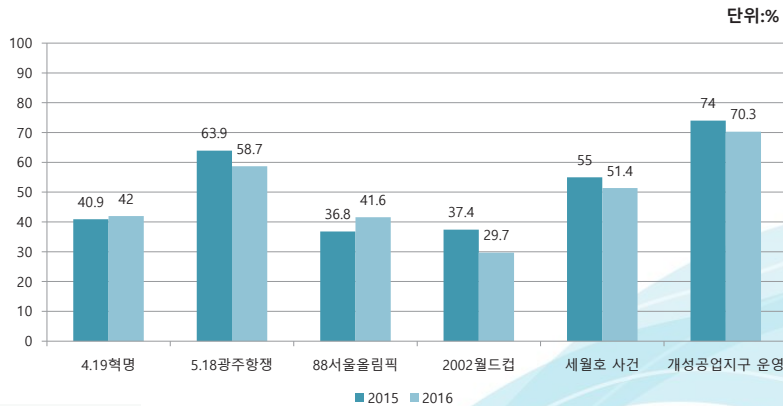
## 인트라넷 이용 실태

- 북한 거주 시 인트라넷(내부 인터넷망) 이용 경험 거의 없음
- 전년대비 이용 경험 응답률 감소(10.3%→8%)
- 인트라넷 이용 장소는 대부분 공공기관(도서관, 학교, 직장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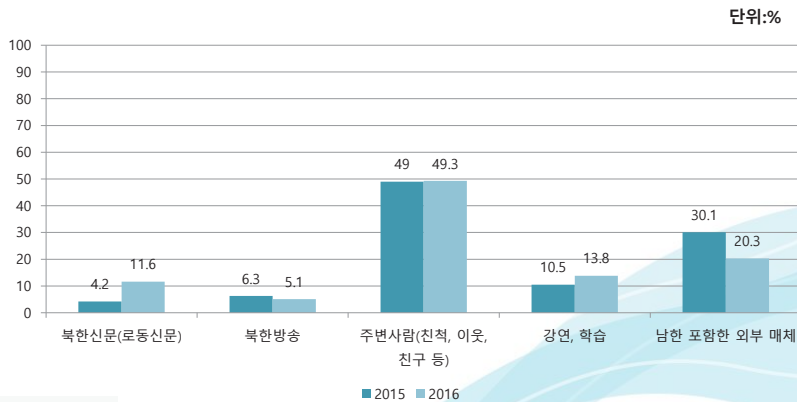
## 남한소식 인지 수준

- 과거의 사건보다 최근 사건에 대한 인지 수준 높음, 전년대비 모든 항목들에 대한 인지 수준 감소
- 개성공업지구 운영에 대한 인지수준 가장 높음(70.3%), 전년대비 소폭 감소
- 세월호 사건 10명 중 5명 이상 알고 있음(51.4%), 전년대비 소폭 감소
- 교육수준 높을수록 남한 소식에 대한 인지 수준 높음



## 외부 정보의 습득 경로

- 북한의 공식 정보매체보다는 주변인의 구전(口傳)이나 남한을 포함한 외부 정보매체를 통해 외부 소식 주로 접함
- 남한 포함한 외부매체를 통한 외부정보 습득 응답률 전년대비 크게 감소 (30.1%→20.3%), 남한의 대북방송 재개에 대응하여 사상통제 강화 영향



## 요약 및 결론(I)

### 1. 북한주민의 의식주와 소비생활

- **벼, 옥수수의 생산량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식생활의 양적 감소는 나타나지 않음**

-계층간 식생활의 양적 격차가 전년대비 감소, 그러나 강냉이 섭취율 증가 주목  
-축산업과 어업의 생산량 증가로 중층과 하층의 고기 섭취빈도 전년대비 증가

- **제조업 중 경공업(섬유, 의복, 신발 등) 생산량 감소했으나, 의생활의 양적 개선은 지속됨**

-북한산 의류 비중 증가,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의 영향으로 남한산과 일본산의 비중 눈에 띄게 감소, 의류 구입은 거의 전적으로 시장에 의존함

- **직접 지은 살림집에 거주한 응답자 전년대비 크게 증가, 절반 가까이는 내돈 주고 산 살림집에 거주함**

-상위계층일수록 돈 주고 샀거나 직접 지은 살림집 거주 비율 높음

## 요약 및 결론(II)

- **남한 물건 사용 경험 응답률 전년대비 크게 감소**

-대북 제재의 강화 및 소득감소 등 영향 미침

### 2. 북한 주민의 가계경제와 가족생활

- **월평균 가계 지출 중에서 식비의 비중이 가장 많음**

-전년대비 식, 의, 주 지출 증가하고, 자녀교육, 저축, 문화생활 지출은 감소함

- **자녀 사교육 경험 전년대비 감소, 컴퓨터 비중이 전년대비 증가**

-가계소득 감소로 인해 자녀 사교육 감소의 원인

-중층의 자녀 사교육 관심 가장 높음

-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의 실효성 크게 떨어짐**

-사회보장에 대한 만족도 매우 낮고, 사회보험 수급 경험 거의 부재

- **가족 의사결정에서 부부 협의 비중 전년대비 증가**

-하층에서는 남편의 권한이 강하고, 중층에서는 부부 공동결정 비중 큼

## 요약 및 결론(III)

### 3. 북한사회의 정보화

- **정보통신기기 중 녹화기와 손전화(핸드폰) 보유 및 이용률 높음**
  - 영상기기 보유율이 높아 외부 문화컨텐츠 경험 및 보급과 연관
  - 컴퓨터의 보유 및 이용률은 매우 낮고, 정보네트워크 접근성 매우 낮음
- **남한의 최근 소식에 대한 인지 수준 높은 편임**
  - 모든 항목들에서 전년대비 인지수준 감소
  - 고학력일수록 남한사회 소식에 대한 인지 수준 높음
- **외부정보의 습득은 공식매체보다는 구전이나 외국 매체에 의존**
  - 북한의 신문이나 방송보다, 주변인들로부터 또는 남한 포함한 외국 매체를 통해 주로 습득함
  - 그러나, 남한 포함한 외국 매체 습득 응답률 전년대비 크게 감소
  - 남한의 대북방송에 대응 및 외부정보 유입에 대한 사상통제 강화 영향 미침

## 요약 및 결론(IV)

### 4. 정책적 시사점

- **북한의 거시경제 변화와 주민 생활 변화의 관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
  - 2015년 북한의 경제성장률 감소, 특히 농림어업과 제조업(경공업)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식, 의, 주 생활의 양적 감소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 그러나, 가계소득 감소로 인한 생활의 질적 하락 나타남
  - 가계소득 감소로 의식주 부문 지출보다 자녀교육, 문화생활, 저축 부문 지출 감소
- **대북제재 강화에 의한 계층간 생활 변화 차등적으로 나타남**
  - 상층의 고급소비 기회 줄어드나 중·하층의 기초생활에 대한 영향력 크지 않음
- **정보화 수준 낮고, 외부정보 유입에 대한 통제 강화**
  - 남한정부의 대북방송의 재개에 따른 효과 미흡. 남한사회에 대한 인지수준 및 남한매체 의존도 전년대비 낮아짐
  - 정보네트워크 접근성 매우 낮고, 정보통신기기 보급의 제한성 존재

감사합니다!

# 의식주 생활 변화와 정보화 (요약)

정은미 (서울대)

## 1. 북한주민의 의식주와 소비생활

- 벼, 옥수수 등 곡물생산량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식생활의 양적 감소는 나타나지 않음
  - '2015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한국은행)에 의하면, 농림어업 분야 성장률 2015년 -0.8%에도 불구하고,
  - 북한 거주시 하루 세끼 식사했다는 응답률 전년대비 소폭 증가(86.9%→89.9%)
  - 하루 세끼 식사 계층간 격차 전년대비 감소(상층 90.3%→100%, 중층 86.7%→93.5%, 하층 62.5%→73.3%)
  - 입쌀 섭취 수준 전년도와 비슷, 하층의 입쌀 섭취 증가
- 축산업과 어업의 생산 증가로 중층과 하층의 고기 섭취율 전년대비 크게 증가
  -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 고기 섭취 응답률 변화: 상층 84.8%→84.6%, 중층 42.2%→58.1%, 하층 6.8%→13.3%
  - 탈북직전 1년간 식생활 형편은 응답자 10명중 8명 이상이 식생활의 양적 문제 없었던 것으로 응답함. 하지만 식생활의 질은 후퇴함.(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었다는 응답률 2015년 40%→2016년 33.3%)
- 제조업 중 경공업(섬유, 의복, 신발 등) 생산 감소했으나, 의류 구매 횟수는 증가함
  - 한국은행 자료 경공업 성장률 2015년 -0.8%, 그러나 계절마다 한두벌 구매 응답률은 52.1%→54.3%로 증가

- 의류 구매 횟수 전년대비 모든 계층에서 비슷한 폭으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계층간 격차 큼 (계절마다 한두벌 구매 응답률 상층 81.8%→92.3%, 중층 47.7%→58.1%, 하층 11.2%→23.3%)
  - 중국산 의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북한산 비중 전년대비 증가함 (3.6%→7.2%)
  - 대북제재 강화 및 가계 소득 감소로 인해 남한산과 일본산 의류 비중 전년대비 감소함(남한산 9.3%→5.1%, 일본산 5.7%→0.7%)
  -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의류 시장에서 구입하고, 백화점에서의 구입률 전년대비 감소
- 직접 지은 살림집 거주 응답률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고, 돈을 주고 산 살림집 거주 응답률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함
- 돈주고 매입한 살림집 2015년 55.2%→2016년 49.3%, 직접 지은 살림집 2015년 4.8%→15.2%
  - 상층의 경우 돈 주고 샀거나 직접 지은 살림집 거주 비율 높음
  - 계층별 주택 유형의 경우 상층은 단독주택 거주비율 전년대비 증가하고 (39.4%→61.5%), 중층의 경우 아파트 거주비율 전년대비 소폭 증가(25.4%→29%)
  -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크게 높아지고(22.2%→33.3%), 난방이나 취사 시설 변경 전년대비 증가함(4.9%→10.1%)
- 북한 거주시 남한 물건 이용 경험 응답률 전년대비 크게 감소
- 대북제재 강화 및 소득 감소로 인해 남한 물건 구매력 감소한 것으로 보임(2015년 72.5%→2016년 59.4%)
  - 가장 많이 사용해 본 품목은 의류(42.9%)>잡화(26.2%)>식품류(15.5%) 순서임
  - 전년대비 상층과 중층의 사용 경험 응답률은 크게 줄고(상층 88.2%→76.9%, 중층 76.8%→59.1%), 하층의 응답률은 증가함(44.9%→53.3%)
- 구입한 물건에 불만 시 교환 또는 환불 가능한 상거래 문화 정착되어 있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 기관의 중재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낮음
- 환불 17.4%, 교환 56.5%, 해당기관 고발 0.7%, 참음 26.1%

## 2. 북한 주민의 가계경제와 가족생활

- 월평균 가계지출 중에서 식비 비중 전년대비 소폭 증가(41.4%→43.2%)
  - 의복(19.6%)>저축(12%)>자녀교육(8.9%) 순으로 지출 많음
  - 의식주 비중은 북한이, 자녀교육 및 문화생활 비중은 남한이 더 많음
- 자녀 사교육 경험 전년대비 감소하고, 컴퓨터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함
  - 자녀 개인강습 경험 있다는 응답률 2015년 27.7%→21.2%
  - 음악과 외국어의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음악 47.4%→34.5%, 외국어 28.9%→20.7%), 컴퓨터의 비중은 전년대비 증가(5.3%→13.8%)
  - 중층이 자녀 사교육에 대한 관심 가장 높음(경험 '있다' 응답률 상층 15.4%, 중층 23.9%, 하층 16.7%)
- 여성의 가계경제 기여도 증가로 가족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크게 신장됨
  - 부부의 협의 비중 전년대비 증가(28.3%→31.2%)
  - 하층에서는 남편의 결정 권한이 강하게 나타나고, 중층의 경우 부부 공동결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실효성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사회보험 수급 경험 거의 부재함
  - 사회보장 만족도 매우 낮음 '만족' 7.2%, '보통' 31.2%, '불만족' 58.7%(※북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률 8%, 개성공단 근로자의 경우 15%)
  - 본인 또는 부모의 노령연금 수급 경험 응답률 29%에 불과, 그 밖의 공훈·폐질·노동능력상실연금 수급 경험 거의 없음

## 3. 북한 사회의 정보화

- 정보통신기기 중 노트북, 녹화기 등 영상기기 보유·이용률은 전년대비 증가, 집전화와 손전화 보유·이용률은 전년대비 감소

- 집전화 47.3% → 44.9%, 손전화 55.5% → 46.4%, 컴퓨터 27.4% → 21.7%, 노트북 41.8% → 47.8%, 녹화기 66.4% → 72.5%
    - ※ 유엔인구기금과 북한 통계국의 '2014 북한 사회경제, 인구, 보건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가구별 보급률 집전화 42%, 라디오 87.5%, 텔레비전 99.2%
  - 북한의 공식 정보매체에 대한 신뢰가 낮은 환경에서, 사적인 정보매체 발달
  - 컴퓨터 보급률이 가장 낮고, 정보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 매우 낮음(인터넷 이용 경험 비율 8%에 불과)
- 남한의 최근 소식에 대한 인지도 높은 수준이나 전년대비 하락
    - 개성공단 운영에 대한 인지수준 가장 높고(70.3%), 세월호 사건 인지수준 51.4%
    - 교육수준 높을수록 인지 수준 높게 나타남
  - 외부의 정보 습득 경로는 북한의 공식 매체보다는 주변인이나 남한 포함한 외국 매체의 의존도가 매우 높음
    - 북한의 신문과 방송의 비중 16.7%, 주변사람(친척, 이웃, 친구 등) 49.3%, 남한 포함한 외국 매체 20.3%
    - 남한의 대북방송 및 외부정보 유입에 대한 통제 강화로 남한 포함한 외부매체를 통한 외부정보 습득 응답률 전년대비 크게 감소 (30.1% → 20.3%)

#### 4. 정책적 시사점

- 북한의 거시경제 변화와 주민 생활 변화의 관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
  - 2015년 북한의 경제성장률 감소, 특히 농림어업과 제조업(경공업)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식, 의, 주 생활의 양적 감소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 그러나, 가계소득 감소로 인한 생활의 질적 하락 나타남
  - 가계소득 감소로 의식주 부문 지출보다 자녀교육, 문화생활, 저축 부문 지출 감소
- 대북제재 강화에 의한 계층간 생활 변화 차등적으로 나타남
  - 상층의 고급소비 기회 줄어드나 중·하층의 기초생활에 대한 영향력 크지 않음

- 정보화 수준 낮고, 외부정보 유입에 대한 통제 강화
  - 남한정부의 대북방송의 재개에 따른 효과 미흡. 남한사회에 대한 인지수준 및 남한매체 의존도 전년대비 낮아짐
  - 정보네트워크 접근성 매우 낮고, 정보통신기기 보급의 제한성 존재

---

# 김정은 정권 5년, 북한사회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

• 발표 3

대남인식과 정치사회의식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대남인식과 정치사회의식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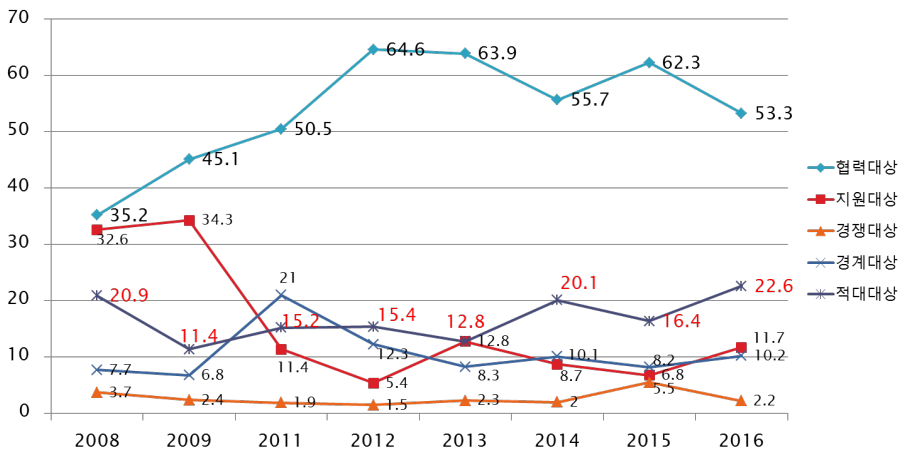
## 목차

1. 대남인식
2. 사회질서와 통제
3. 정치사회의식
4. 결론

# 1. 대남인식

- ▶ 남한은 어떤 대상? (포용과 적대)
- ▶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신뢰도)
- ▶ 북핵무기의 대남 위협정도
- ▶ 대남 인지도
- ▶ 남한의 대북지원(쌀/비료) 인지도
- ▶ 남한의 대북지원 평가(효용성, 규모)
- ▶ 남북간 차이 (이질성)

## 남한은 어떤 대상: 협력의식 감소, 적대의식 상승



- ▶ 남한을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인식 감소: 62.3%→53.3%로 9.0%p 감소
- ▶ 대남적대의식 16.4%→22.6%로 6.2%p 상승
- ▶ 김정은 정권 들어선 2012년 이래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가장 적대적
  - 한반도평화에 가장 위협적 국가 미국 64.4%→84.1%로 19.7%p 급상승
- ▶ 지난 1년 동안 핵,인권,평화 정책에서 성과를 얻지 못한 북한이 대남 및 대미 비난 선전활동을 강화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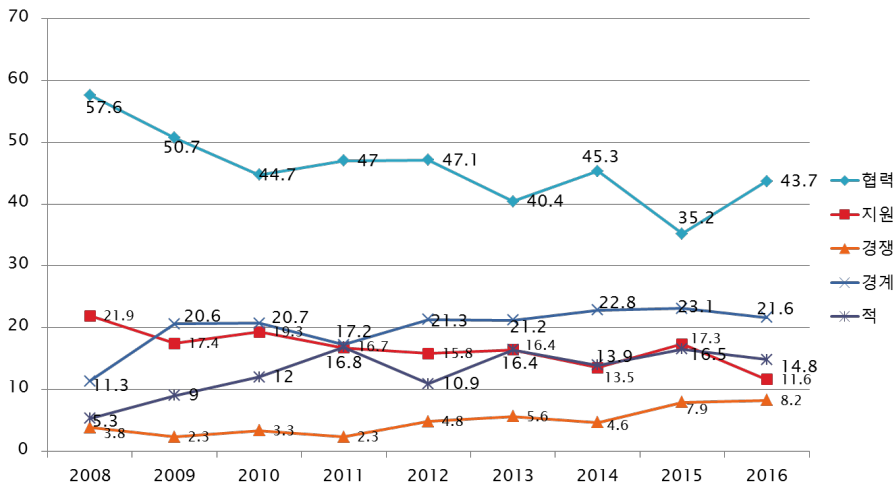
## 40대 연령층의 변화

- ▶ 40대 연령층의 대남 협력의식 하락(67.6%→50.0%), 적대의식 상승(10.8%→23.5%) 뚜렷
- ▶ 2011~2015년 기존 트렌드와는 다른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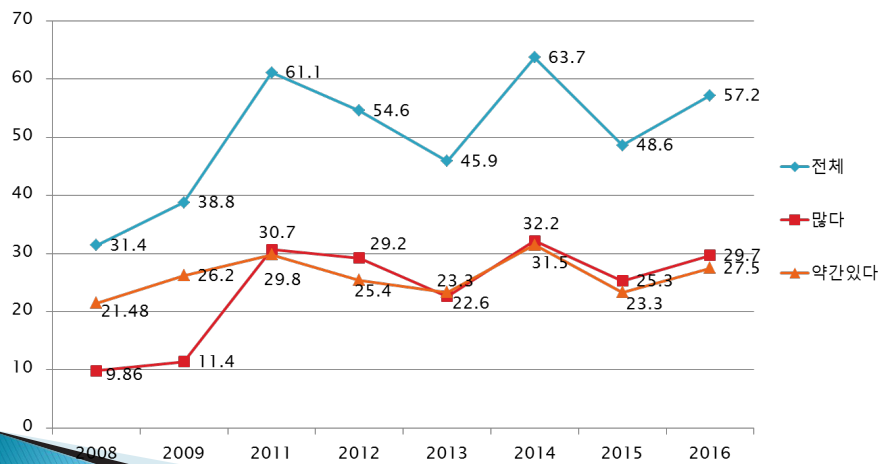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협력대상	54.7	61.7	67.1	61.5	51.6
적대대상	19.2	17.5	12.0	16.7	12.9

- 기존트렌드-‘고난의 행군’ 세대인 40대 대남 협력인식 높고 적대의식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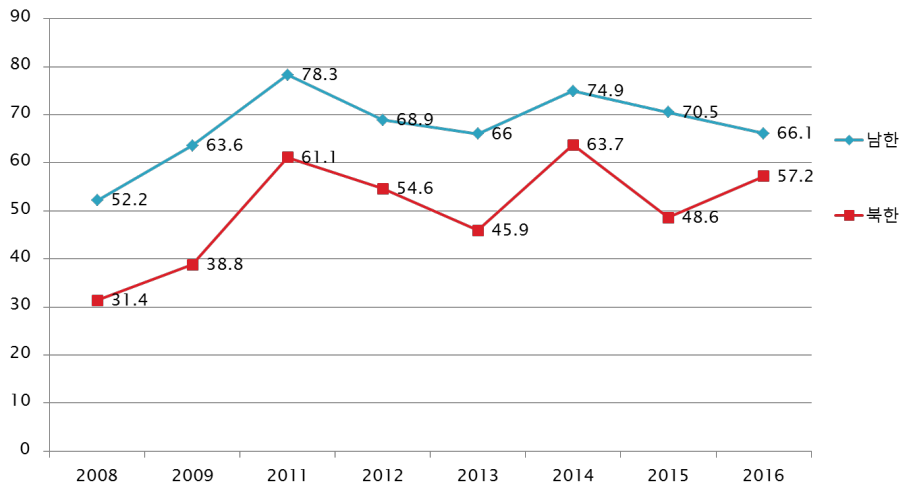
## 남한주민조사와의 비교: 북한은 어떤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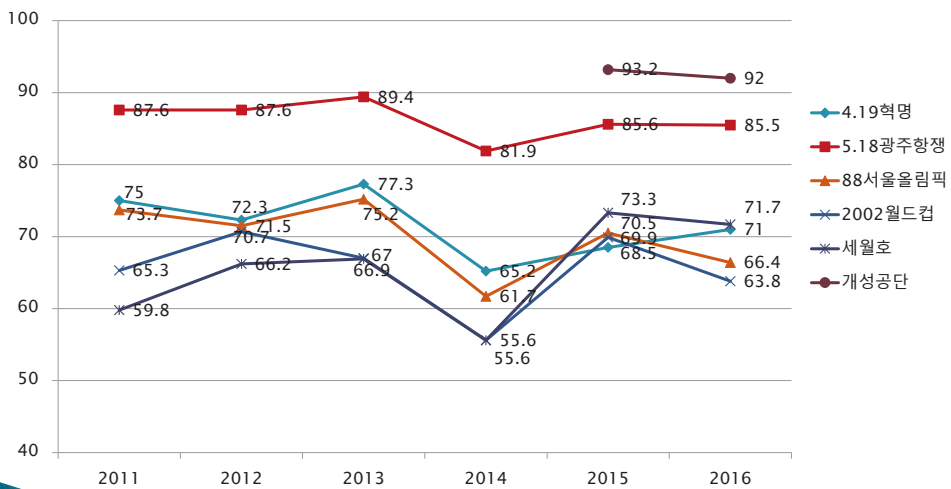
##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8.6%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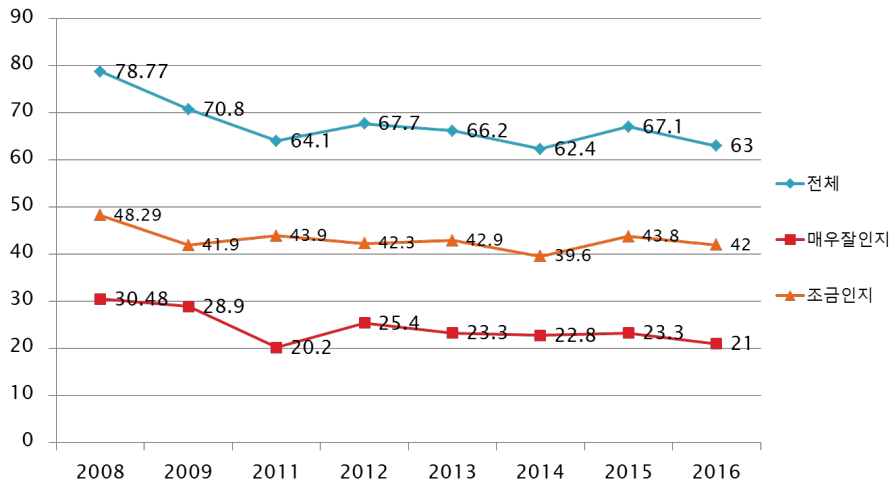
## 남북한 비교: 상대의 무력도발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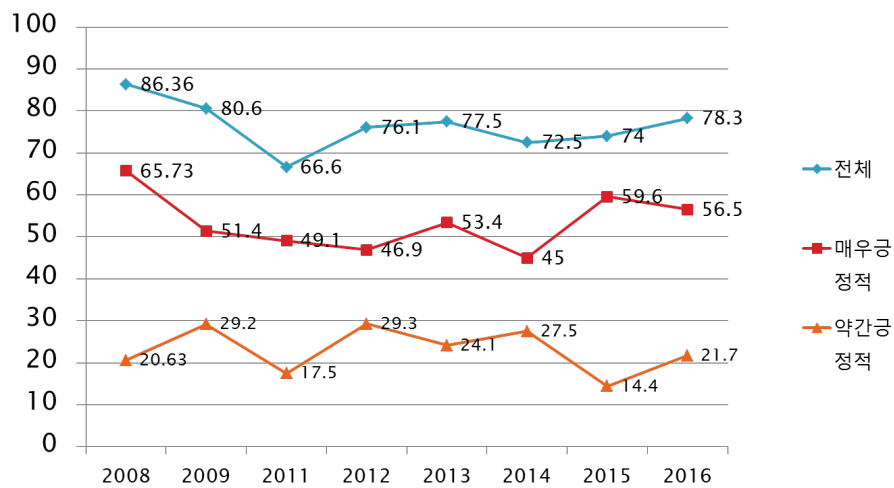
## 대남인지도



## 대북지원 인지도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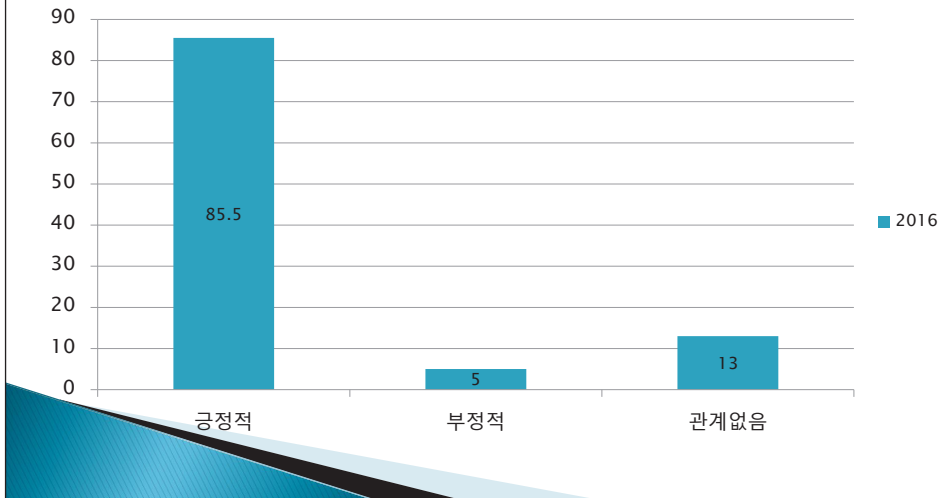
## 대북지원 효용성 유지



## 개성공업지구 인식 매우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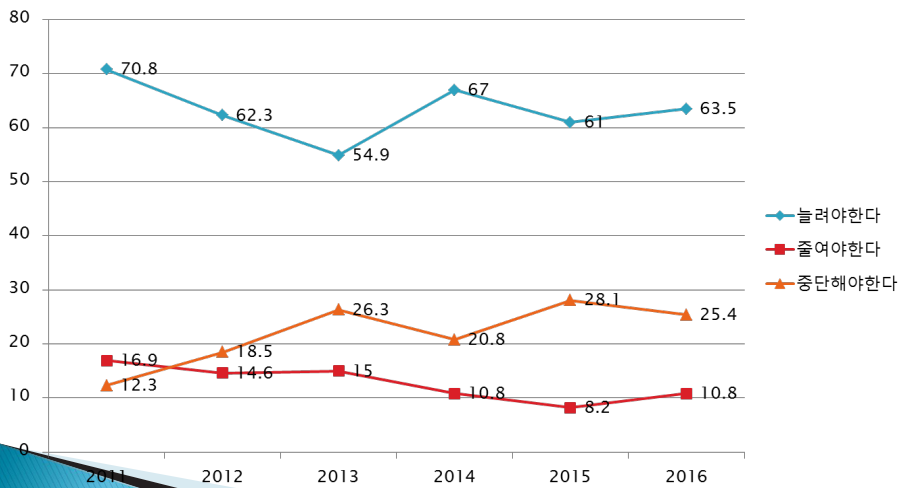
▶ 매우 긍정적 63.8%, 약간 긍정적 21.7%

2016



## 남한의 대북지원

▶ 지원 기대감 여전히 존재, 큰 변화 없음



## 남북간 이질성 인식, 20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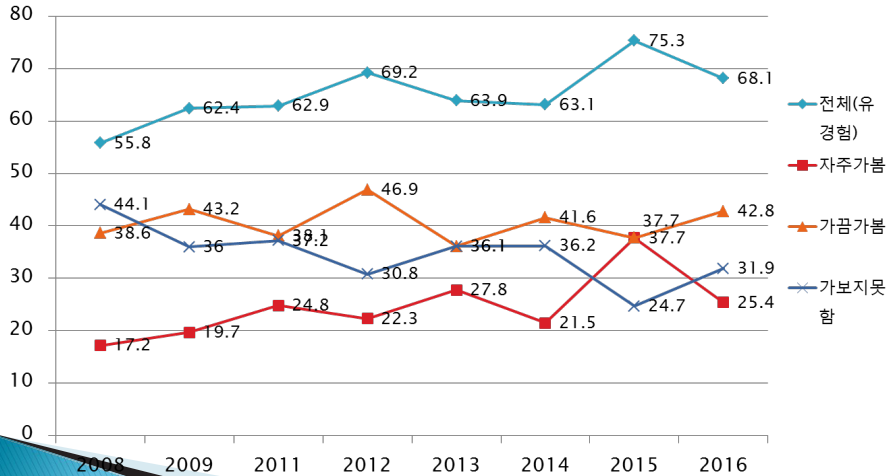
	남한	북한
선거방식	92.4	94.2
사회복지(생활수준-북)	94.9	96.4
역사인식	-	94.9
언어사용	81.3	93.5
생활풍습	77.8	89.1
가족중시(가치관-북)	64.6	90.6
<b>평균</b>	<b>82.2</b> (87.6 - 2015) (91.8 - 2014)	<b>93.1</b> (93.6 - 2015) (93.3 - 2014)

## 2. 사회질서와 통제

- ▶ 주민유동성(지리적 이동)
- ▶ 직장 내 생산규율
- ▶ 한류(남한방송/영화/드라마/노래) 접촉 경험
- ▶ 정부 비판행위(낙서, 삐라 등)
- ▶ 주간생활총화 출석률
- ▶ 탈북후 북한소식 경험
- ▶ 사회통제
- ▶ 집단주의/개인주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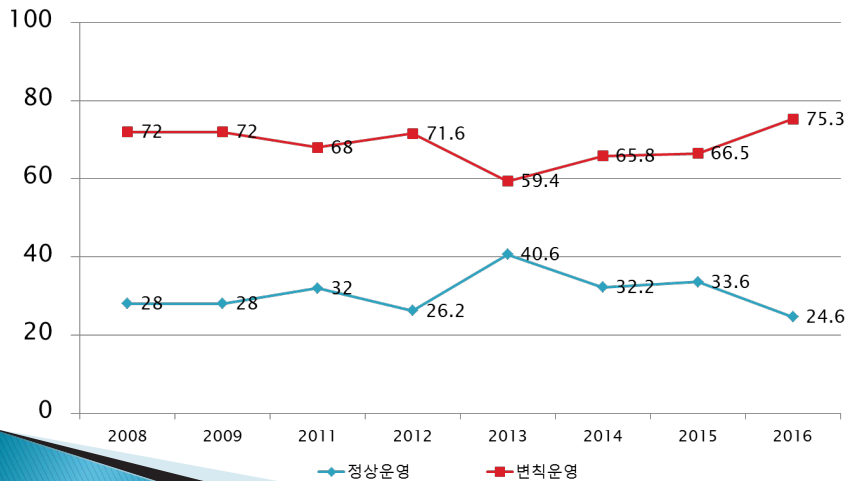
## 주민유동성(지리적 이동)

▶ 7.2%p 감소, '자주 가봄'은 12.3%p 큰 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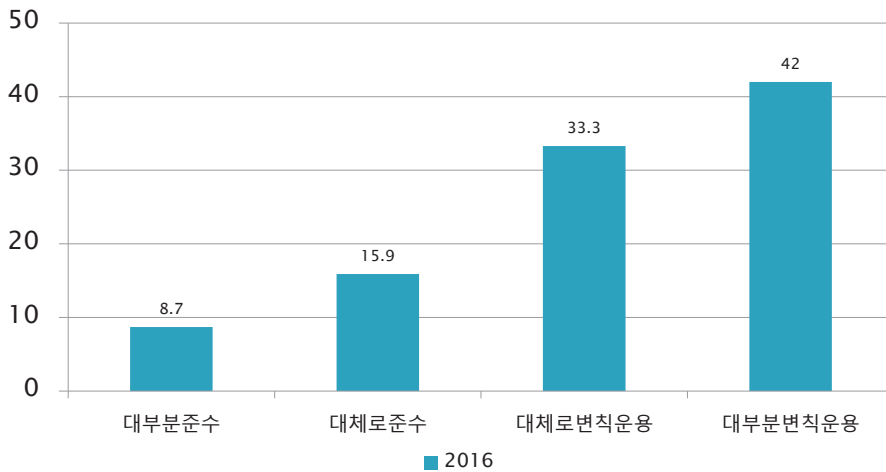


## 직장 내 생산규율

▶ 변칙운영 8.8%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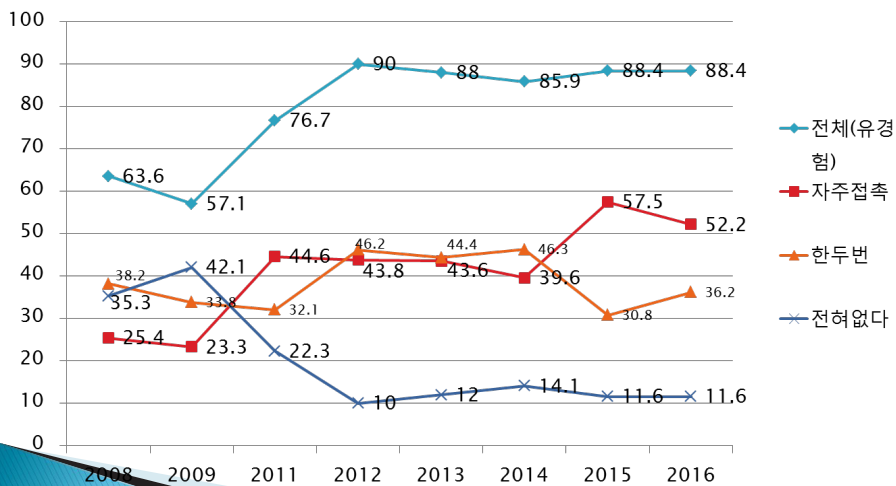


## 직장 내 생산규율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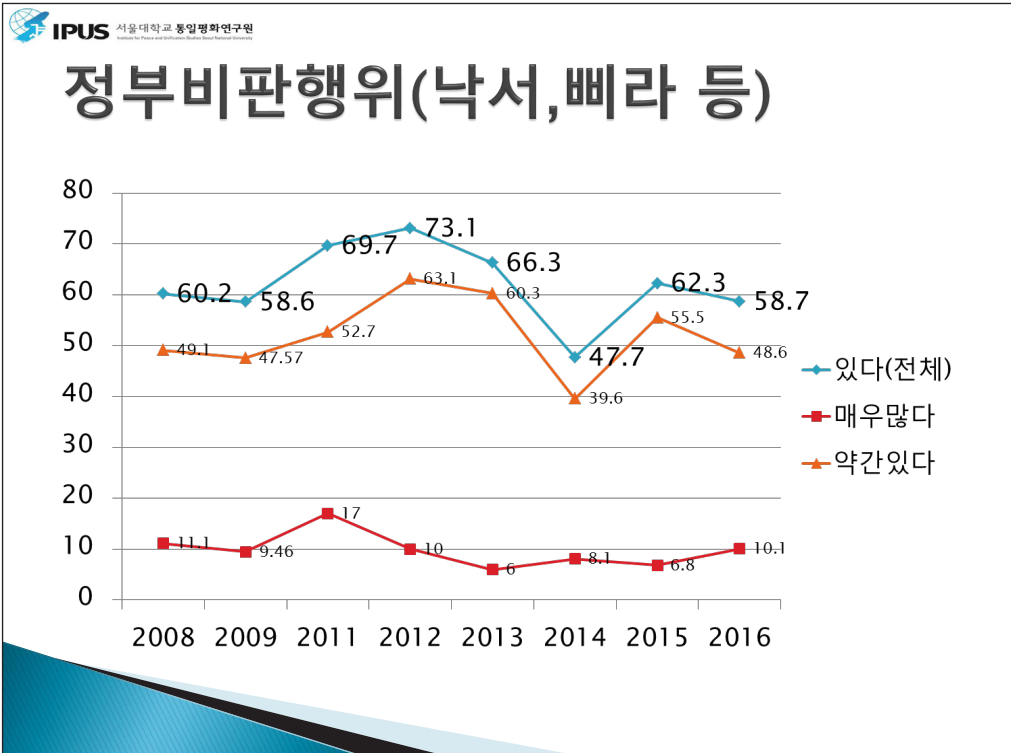


## 한류(남한방송/드라마/음악)접촉경험

▶ ‘자주 접촉’ 57.5%→52.2%로 5.3%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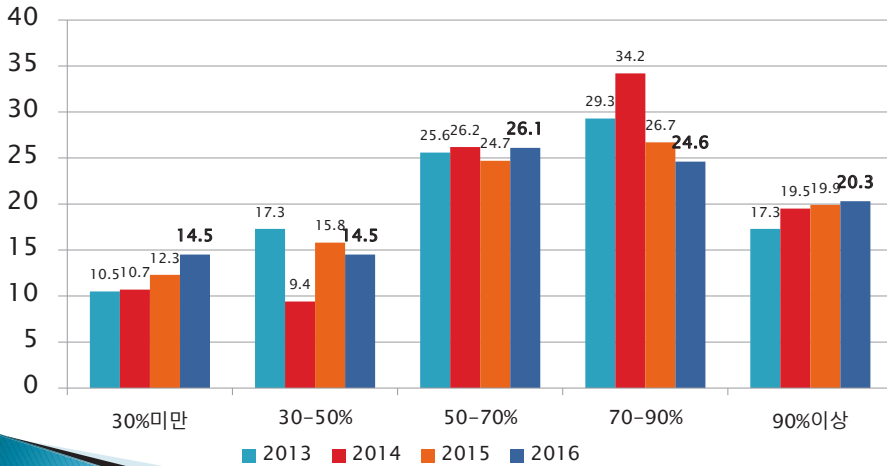


- ▶ 2016 한류접촉의 연령별 차이
- ▶  $\chi^2=23.130$ ,  $p=0.003$  으로 통계적 유의미
- ▶ ‘자주 접해봤다’ 20대 55.8%, 30대 65.6%, 40대 50.0%, 50대 18.8%, 60대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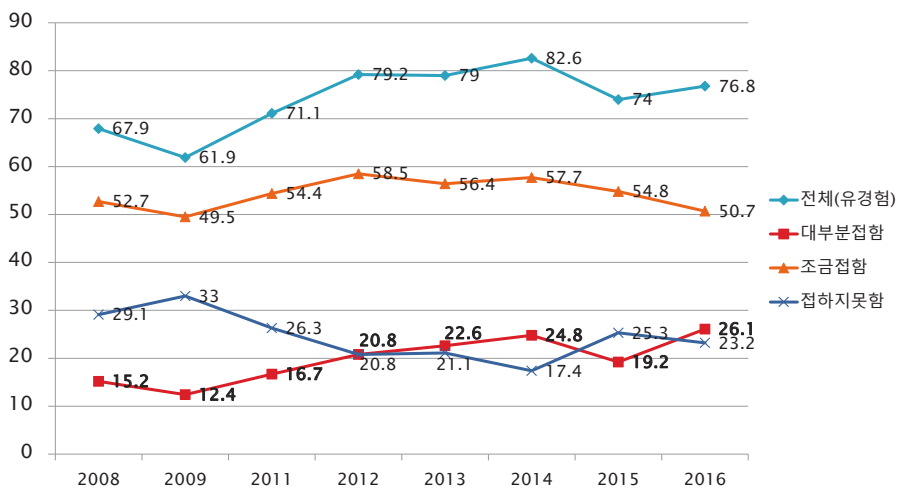


# 생활총화 출석율

▶ 90%이상 출석 19.5%→20.3%로 큰 변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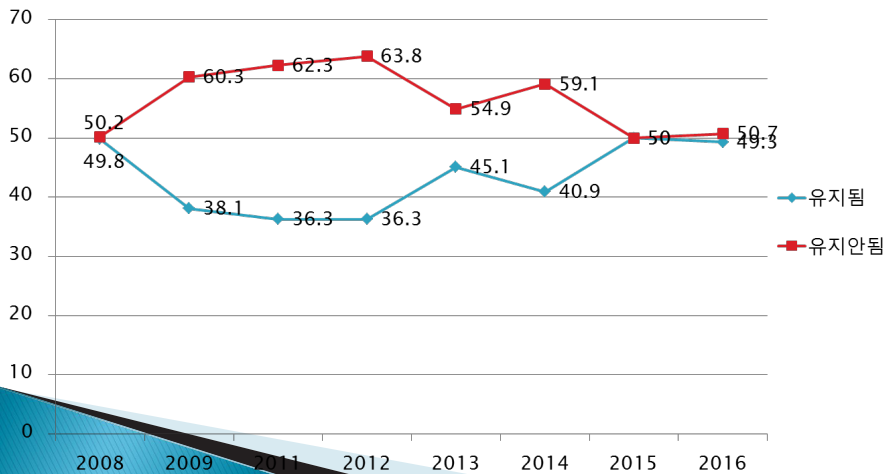


# 탈북후 북한소식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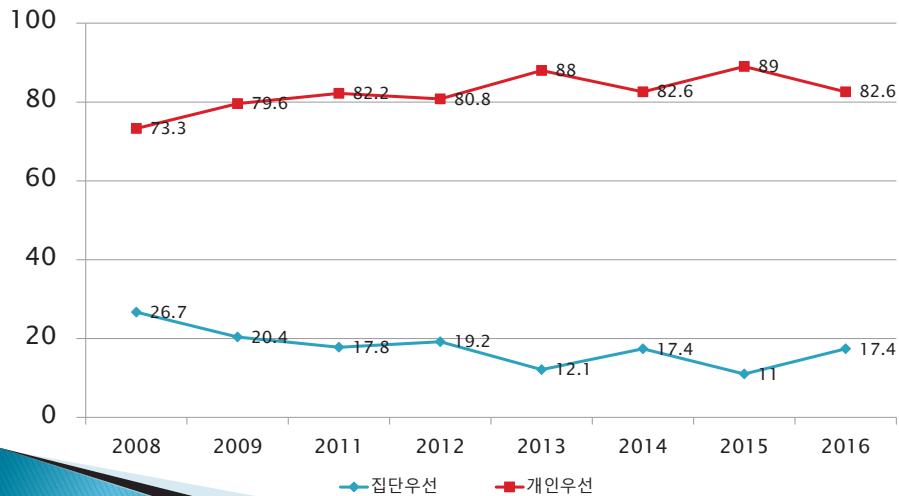
## 사회통제력

▶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통제기구와 주민설득을 통해 사회통제 유지되고 있음을 반영



## 집단주의/개인주의 가치

▶ 집단주의 가치 11.0%→17.4%로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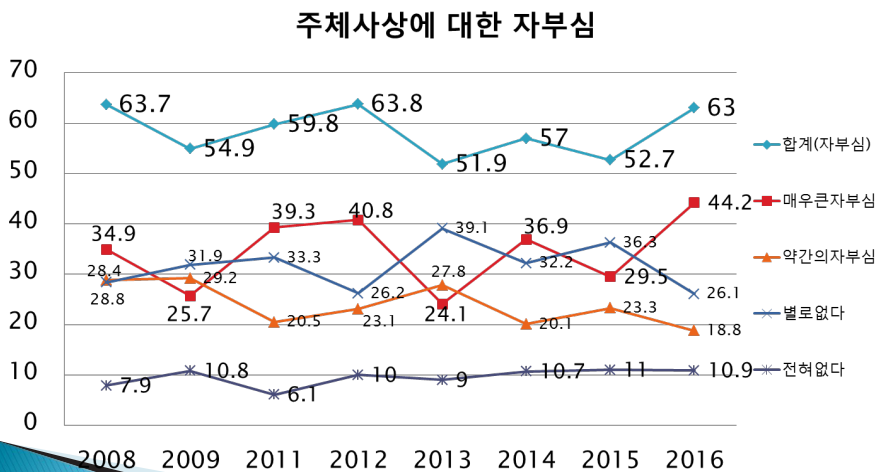


### 3. 정치사회의식

- ▶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 ▶ 김정일위원장 지지도
- ▶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
- ▶ 사회주의/자본주의 체제 지지도
- ▶ 북한 사회주의 정권 지속 여부

###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 ▶ ‘있다’ 52.7%→63.0%로 10.3%p 상승



## 연령별 주체사상 자부심(2016)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있다	59.7	62.5	79.4	50.0	25.0
없다	40.3	37.5	20.6	50.0	75.0

$\chi^2=20.944, p=0.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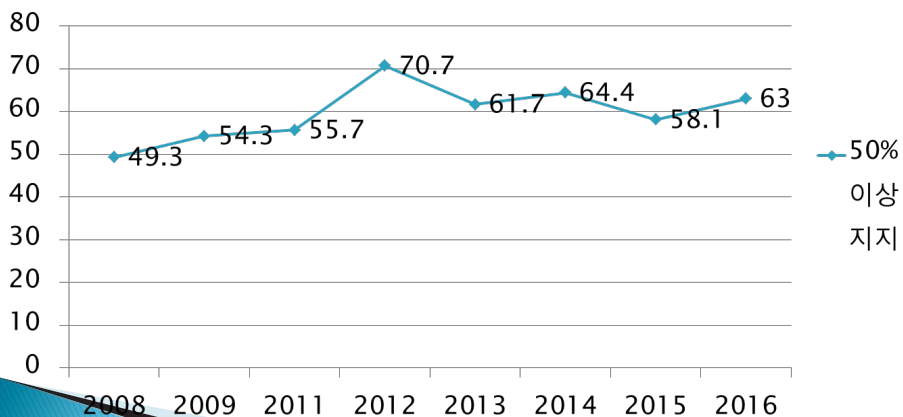
- ▶ 2016년에 40대 연령층의 자부심 급상승, 50대+의 하락
- ▶ 2011~2015년 40대(고난의행군세대) 최저 트렌드와 다른 흐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있다	59.0	56.1	53.5	60.5	62.5
없다	41.0	43.9	46.5	39.7	37.5

## 김정일-김정은 지지도

- ▶ 58.1%→63.0%로 4.9%p 상승

50%이상지지도



## 세대별 김정은 지지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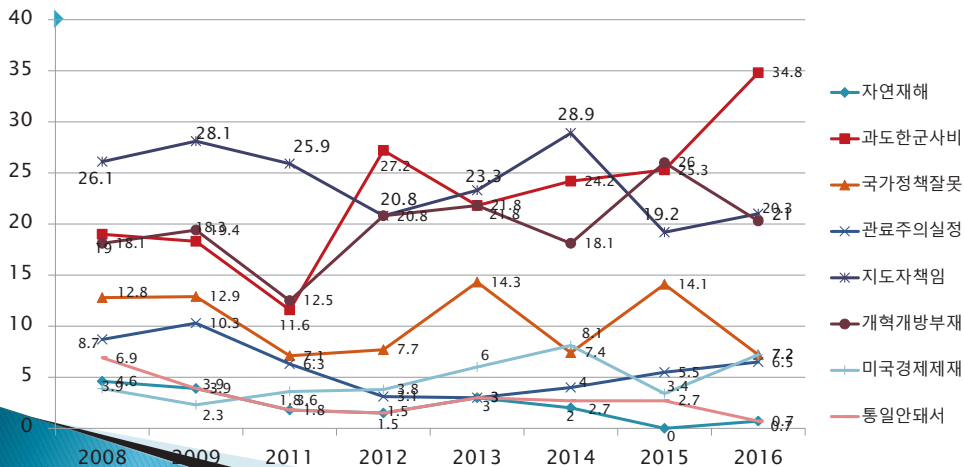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지지도	59.6	75.0	58.8	62.4	50.0

- ▶ 30대 연령층의 지지도 53.3%→75.0%로 21.7%p 급 상승
- ▶ 김정은과 같은 세대라는 공감대? ‘청년강국’ 효과?
- ▶ 2016년 김정은 지지도 역시 2011~15년의 트렌드와는 다른 흐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지지도	71.2	66.2	55.3	59.8	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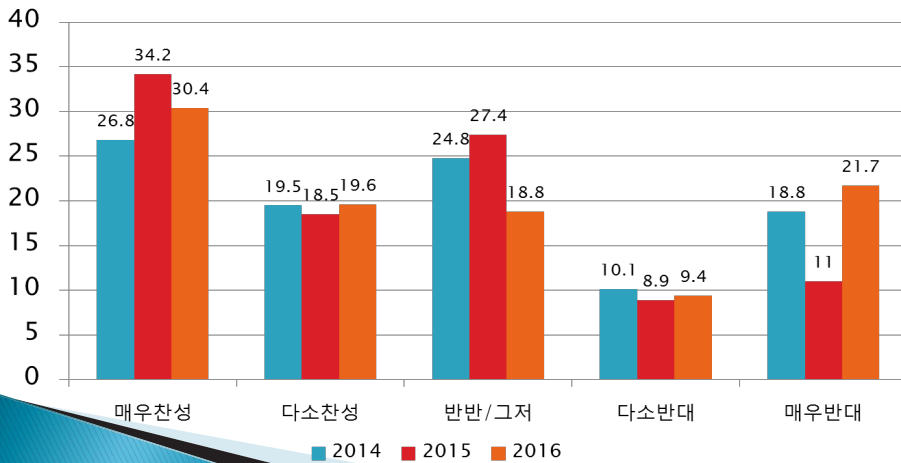
## 경제집체 원인

- ▶ ‘과대한 군사비 지출’ 25.3%→34.8%로 9.5%p 급 상승, 경제실패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식 억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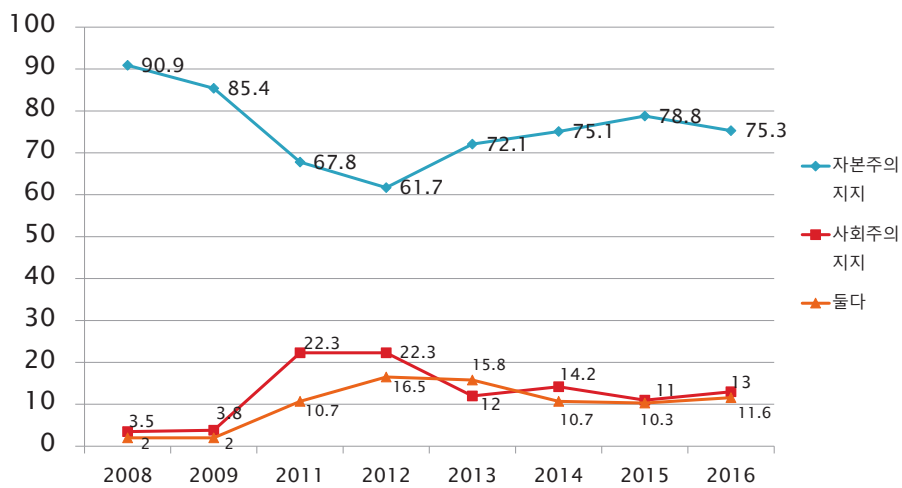


## 핵무기 보유 견해, 2014-16

▶ 그러나 '핵정치'의 정당화는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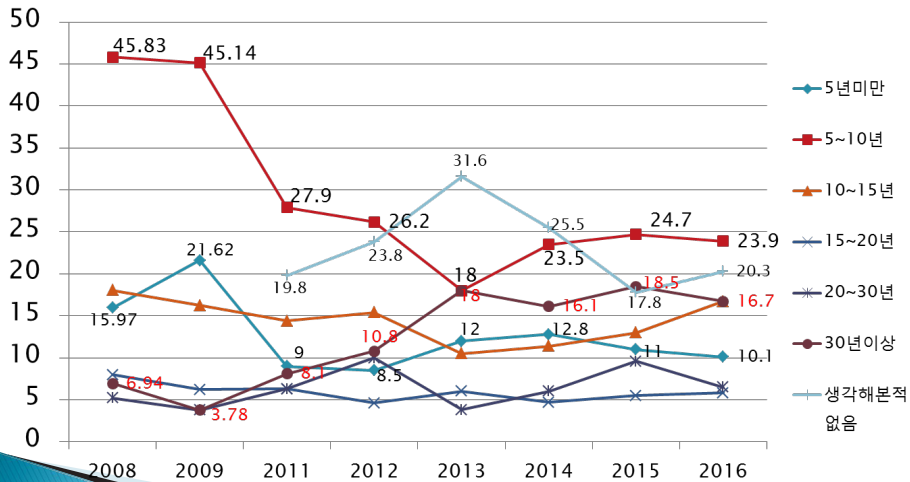


## 경제체제 선호도



## 북한 사회주의 정권 유지

▶ 큰 변화 없음



## 4. 결론

- ▶ 지난 1년 동안 대남 적대의식 상승과 정치사회의 식 강화 진행, 남북관계의 경색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이 미친 효과로 판단
- ▶ 2016 주민의식조사로 볼 때 북한의 정치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기대할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평가
  - 주민유동성, 한류접촉, 정치적 비판행위, 생활총화출석 등 여러 면에서 체제의 이완현상 진행 중
  - 그러나 대주민 선전선동과 통제 강화로 주민의 정치사회 의식은 일정한 수준 유지

- ▶ 30대, 40대 연령층의 의식변화 주시 필요
  - ‘고난의 행군 세대’로 불리는 40대의 정치사회의식 강화 배경은 무엇인가?
  - 30대 연령층의 김정은 지지도 상승 배경은 무엇인가?
  
- ▶ 향후 북한의 ‘핵정치’가 군사비 지출 부담을 줄이며 경제개발 비전을 고취하는데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해볼 필요.

# 대남인식과 정치사회의식 (요약)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1. 대남인식

- 탈북자들을 통해 본 2016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협력대상’에서 ‘적대대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남.
  - 남한을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1년 사이에 62.3%→53.3%로 9.0% 포인트 감소한 반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이라는 인식은 16.4%→22.6%로 6.2%p 증가
  - 이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2년 이래 가장 적대적인 대남인식·‘협력대상’인식: 64.6%(12년)→63.9%(13년)→55.7%(14년)→62.3(15년)→53.3(16년)·‘적대대상’인식: 15.4%(12년)→12.8%(13년)→20.1%(14년)→16.4%(15년)→22.6%(16년)
  - 이는 지난 1년 동안 자신들의 핵·인권·평화 정책에서 성과를 얻지 못한 북한이 대남 및 대미 비난 선전활동을 강화한데 따른 결과로 보임
  - 그 결과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미국을 꼽은 응답도 지난 1년 사이에 64.4%→84.1%로 19.7%p 급상승
  - ‘고난의 행군세대’로 불리는 40대 연령층의 대남 협력의식 하락(67.6%→50.0%)과 적대의식 상승(10.8%→23.5%) 뚜렷, 기존 흐름과 다른 현상
  
- “남한이 무력으로 북한을 침공할 것”이라는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의식도 48.6%→57.2%로 8.6%p 상승
  - 2015년에 63.7%→48.6%로 완화되던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이 재상승한 것.

- 한국인의 안보불안의식(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 즉 한국인의 안보불안의식은 지난 1년 사이 70.7%→66.1%로 소폭 완화.
-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67.1%→63.0%로 4.1%p 소폭 감소. 그러나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대북지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대북지원 효용성은 74.0%→78.3%로 소폭 증가.
  - 특히 개성공업지구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63.8%, ‘약간 긍정적’21.7% 등 85.5%가 ‘긍정적’으로 평가
- 남한의 대북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늘려야 한다”61.0%→63.5%, “중단해야 한다” 28.1%→25.4%로 큰 변화는 없으며, 북한주민의 경제생활이 더 어려워짐으로써 남한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존재.

## 2. 사회질서와 통제

- “사회통제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의견은 50.0%→49.3%로 큰 변화 없이 통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지리적 이동과 한류유통, 정치적 비판행위 등이 정체되거나 감소.
  - 주민의 지리적 이동은 75.3%→68.1%로 7.2%p 감소, ‘자주가봄’은 37.7%→25.4%로 12.3% 감소
  - 남한노래와 드라마, 방송 등 ‘한류’접촉경험도 88.4%→88.4%로 정체, 남한의 노래와 영화 등 한류를 ‘자주접촉한다’는 의견은 57.5%→52.2%로 감소(30대 한류접촉 가장 높음)
  - “북한의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행위(낙서, 삐라 등)”에 대해 “있다”는 의견도 62.3%→58.7%로 소폭 감소.
  - 생활총화 출석 실태에서는 90%이상 출석한다는 의견 19.5%→20.3%로 큰 변화 없음
- 경제난과 주민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종 통제기구의 작동과 주민설득을 통해 사회질서와 통제는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경제난으로 직장 내 생산규율이 변칙 운용된다는 평가는 66.5%→75.3%로 8.8%p 증가

### 3. 정치사회의식

-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평가가 52.7% → 63.0%로 10.3%p 상승했고, 김정은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도 58.1% → 63.0%로 4.9%p 상승
  - 올해 조사에서 예년의 트렌드와는 다르게 40대 연령층의 주체사상 자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20대 59.7%, 30대 62.5%, 40대 79.4%, 50대 50% 등)
  - 2011~2015년에는 ‘고난의 행군 세대’로 불리는 40대 연령층이 주체사상 자부심과 김정은 지지도에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으나 2016년에는 다른 흐름 형성
  - 2016년의 경우, 김정은에 대해서는 30대 연령층에서 75.0%로 가장 높은 지지도(20대 59.6%, 40대 58.8%, 50대+ 60.0%)
- 북한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 ‘과다한 군사비 지출’이라는 응답은 25.3% → 34.8%로 9.5%p 급상승하여 경제국방병진노선에 대한 북한당국의 설득논리 작동
  - 그러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반대가 19.9% → 31.1%로 높아져 이른바 ‘핵정치’(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남은 자원을 경제개발에 투입하여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논리)가 김정은 체제를 정당화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

### 4. 결론

- 지난 1년 동안 대남 적대의식 상승과 정치사회의식 강화, 이는 남북관계의 경색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이 미친 효과로 판단
- 2016년 조사결과로 볼 때 북한의 정치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기대할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평가
  - 주민유동성과 한류접촉, 정치적 비판행위, 생활총화출석 등 여러 면에서 사회질서와 체제의 이완현상이 진행 중이나, 김정은 정권 5년 동안 대주민 선전선동과 통제 강화로 주민의 정치사회의식은 일정한 수준 유지

---

# 김정은 정권 5년, 북한사회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

• 발표 4

## 통일과 주변국 인식

최규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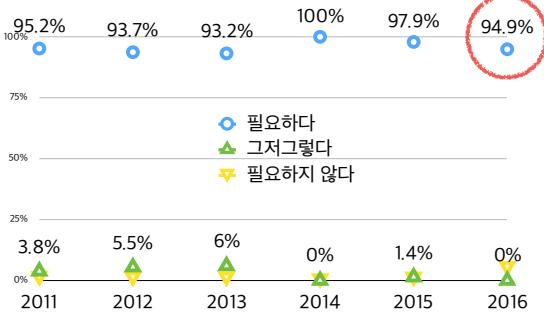


# 통일과 주변국 인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최규빈

# 통일인식

#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

2016년 결과 응답자의 94.9%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

동일한 질문을 남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3.3%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필요하다	95.2%	93.7%	93.2%	100%	97.9%	94.9%
그저그렇다	3.8%	5.5%	6.0%	0.0%	1.4%	0.0%
필요하지 않다	1.0%	0.8%	0.8%	0.0%	0.7%	5.1%
합계 (N)	104	127	133	149	146	138

남북한주민의 통일 의식 격차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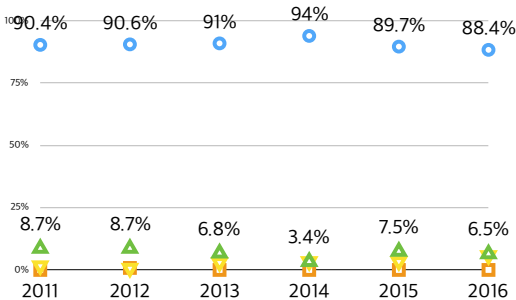
# 북한주민 통일 의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한다	99.0%	99.2%	97.7%	97.3%	97.3%	94.9%
원하지 않는다	1.0%	0.8%	2.3%	2.7%	2.7%	5.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4	127	133	149	146	138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

북한주민들의 통일 의지는 매우 높음

2015년의 응답률에 비해 소폭 하락



매우 원한다  
약간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통일이유



북한주민	2015	N	2016	N
같은 민족이니까	28.2%	40	30.4%	42
이산가족의 고통해결	3.5%	5	8.7%	12
남북간 전쟁위험 해소	8.5%	12	12.3%	17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47.9%	68	42.0%	58
북한의 선진국 도약	9.9%	14	4.3%	6
기타	2.1%	3	2.2%	3
합계	100%	142	100%	138

남한주민	2016	N
같은 민족이니까	38.6%	463
이산가족의 고통해결	11.9%	142
남북간 전쟁위험 해소	29.7%	356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5.0%	60
한국의 선진국 도약	14.2%	170
기타	0.8%	9
합계	100%	1200

북한주민: 통일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남한주민: 통일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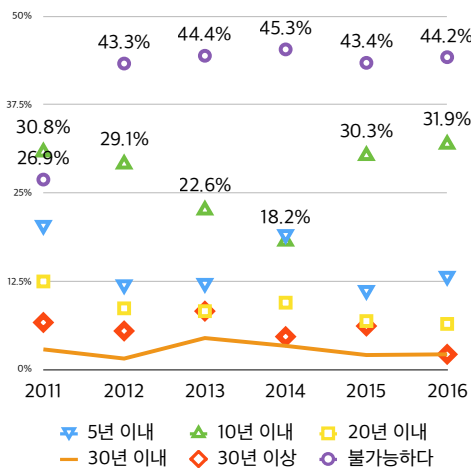
1.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42%
2. '같은 민족이니까': 30.4%
3. '남북한 간 전쟁위험 해소': 12.3%

1. '같은 민족이니까': 38.6%
2. '남북한 간 전쟁위험 해소': 29.7%
3. '한국의 선진국 도약': 14.2%

경제적 이유가 민족주의적 통일인식에 우선

민족주의적 통일인식>안보인식>경제적 이유

# 통일시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하며 대다수가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일이 불가능하다"라는 응답이 44.2%

'통일을 원하는 것'과 '가능하다'라는 것'에는 현실적인 판단과 괴리가 존재

1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할 것

이라고 응답한 북한주민은 31.9%, 5년 이내라고 답한 사람은 13%

즉 10년 이내에는 통일에 관한 변화가 있을 것(44.9%)이라는 판단

\* 남한주민들의 경우 10년이내의 변화는 17.5%, '불가능하다'는 24.4%

# 통일방식

	2016	N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5.8%	8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	14.5%	20
통일 이후에도 북한과 남한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된다	8.0%	11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	42.8%	59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29%	40
합계	100%	138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8%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가 29%,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가 14.5% (선호도는 2014, 2015년 동일)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는 5.8%로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함

# 통일 집단이익, 개인이익

통일 집단 이익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이익이 될 것	100%	96.9%	99.2%	98%	99.3%	98.6%
이익이 되지 않을 것	0.0%	3.1%	0.8%	2%	0.7%	1.4%
합계 (N)	105	127	133	149	146	138

통일 개인 이익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이익이 될 것	95.2%	94.4%	95.5%	98%	97.9%	97.8%
이익이 되지 않을 것	4.8%	5.5%	4.5%	2.0%	2.1%	2.2%
합계 (N)	105	127	133	149	146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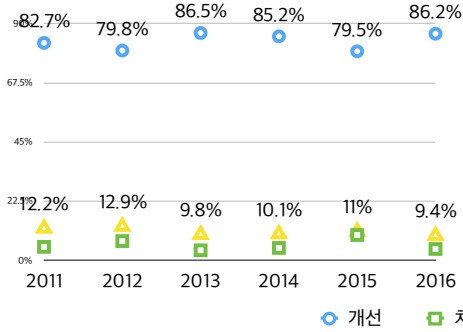
대다수의 북한주민은 **통일이 북한사회 전체에 가져올 이익(통일편익)**에 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 또한 97.8%로 **매우 높은 비율**

통일이 북한사회에 이익이 될지라도 개인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의 편차는 다소 줄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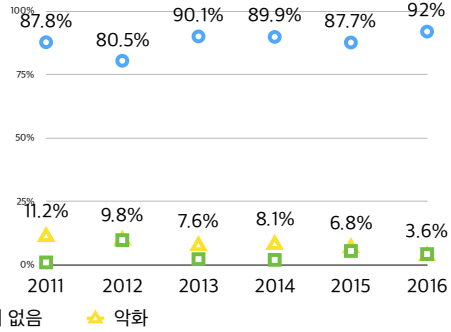
# 사회문제

## 1. 빈부격차



북한주민은 통일 되었을 때 빈부격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률이 2016년 86.2%로 높은 수준을 유지

## 2. 실업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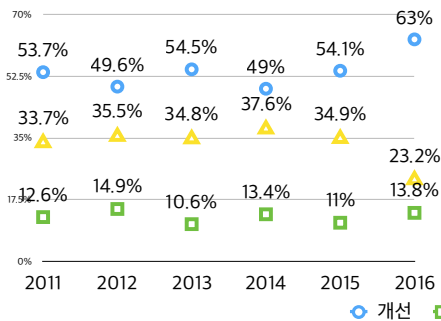


실업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응답률 역시 92%으로 매우 높음

실업문제와 재북교육수준은 상관성을 보임 ( $X^2=32.792, p=0.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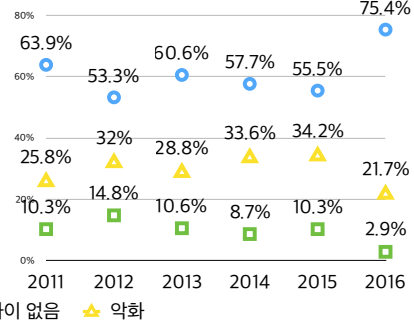
# 사회문제

## 3. 지역갈등



지역갈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응답률은 63%로 2015년 54.1%에 비해 높아짐  
But 빈부격차와 실업문제 개선 기대감에 비해서는 전반적인 기대수준은 낮음  
통일 후 남북간의 지역 갈등이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

## 4. 이념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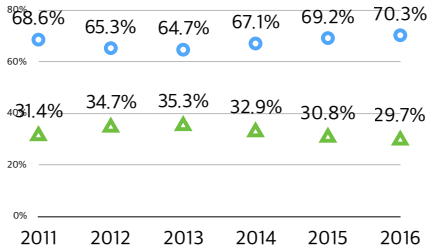


이념갈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응답률 2015년 55.5%에서 2016년 75.4%로 크게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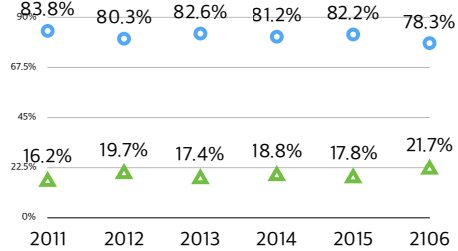
통일 이후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제도적 갈등 및 규범체계의 차이로 부터 오는 혼선 예측 가능하지만 통일 이후에 대한 북한주민의 기대감은 커짐

# 대북정책별 통일기여도

## 1. 인도적 대북지원



## 2. 사회문화교류



○ 도움이 된다 ▲ 도움이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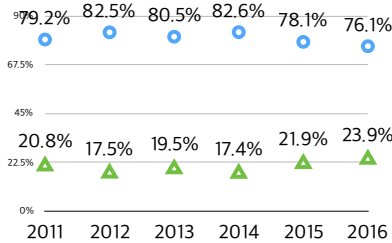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에 70.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

학술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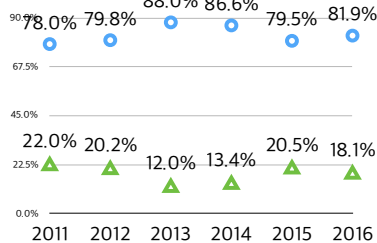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는 상황, 대북 식량 지원이 중단 된 이후에도 인도적 대북지원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

# 대북정책별 통일기여도

## 3. 경제협력



## 4. 남북한간 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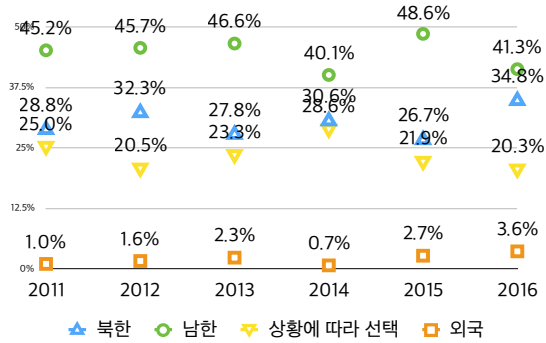
○ 도움이 된다 ▲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강산개성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경제협력이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6.1%

정기적인 남북한 간 회담이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1.9%

작년에 비해 올해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년 연속 하락

# 통일후 거주 희망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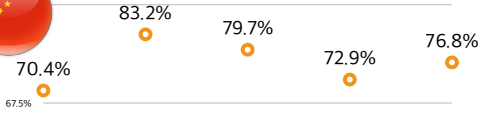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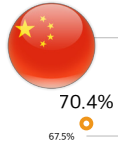


북한주민에게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라고 질문하였을 때 전체 응답자의 41.3%가 남한, 34.8%가 북한을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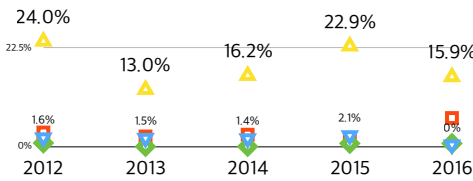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고 최종 거주지를 유보한 응답률 20.3%

# 주변국인식

# 주변국 친밀감



· 지난 2년간 감소 추세였던 대중친밀감이 2016년 다시 상승 (+3.9%p)



· 이에 반해 지난 2년간 상승 추세였던 대남친밀감은 다시 하락 (-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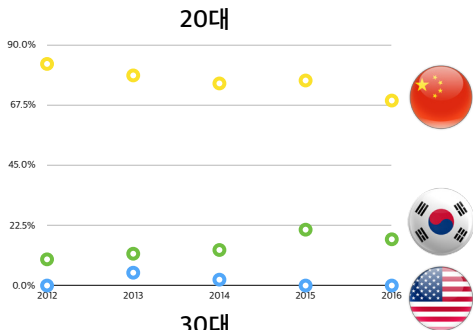
· 2015년 8월 DMZ 목함지뢰 사태로 인한 남북대치 상황, 개성공단 폐쇄, 대북 경제제재 국면 등이 북한주민의 대남친밀감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추정

· 북중관계 회복기 진입?  
북·중간의 정치적 생각이 완화, 긍정적인 대중인식 다시 증가

· 남한 친밀감 상승을 주도했던 20~30대의 하락 추세는 주목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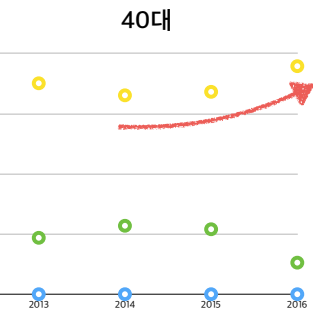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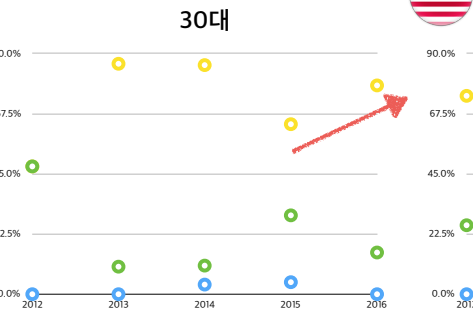
▲ 미국 ◆ 일본 ▲ 남한 ○ 중국 □ 러시아

# 주변국 친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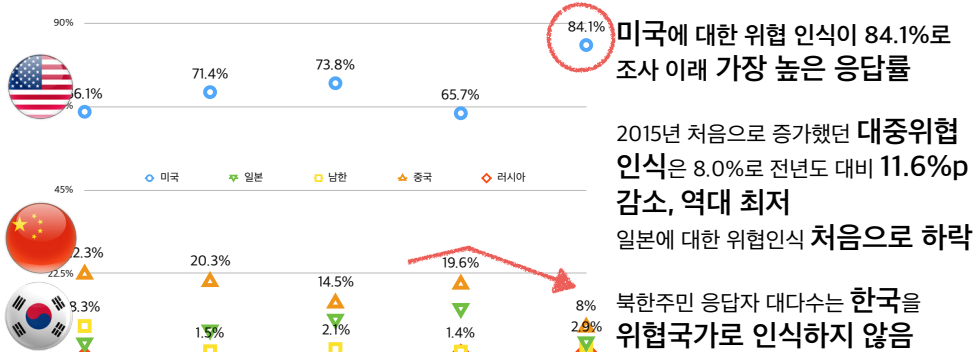


· 30~40대 대중친밀감이 증가

· 20대 대남친밀감 처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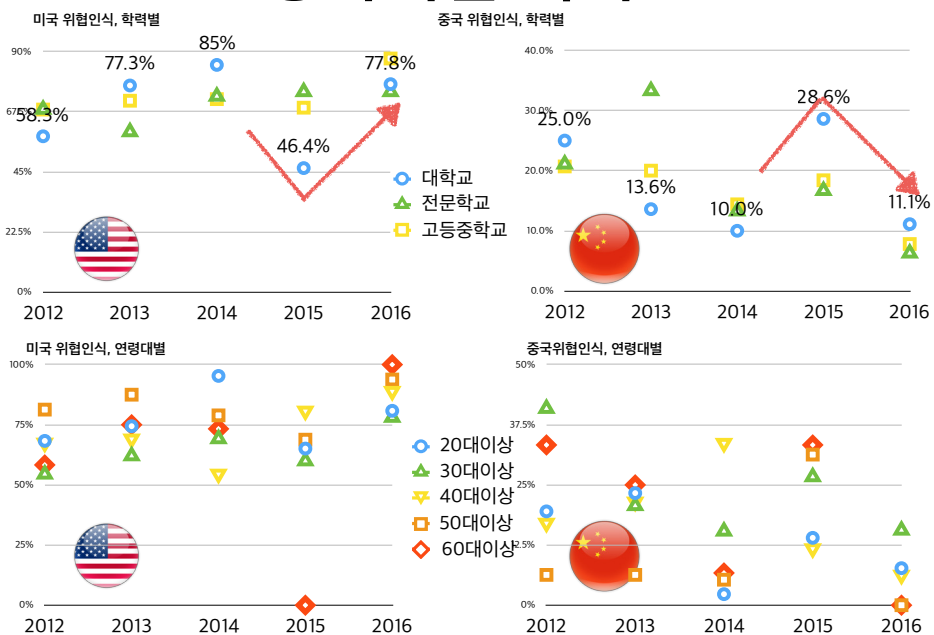


# 평화위협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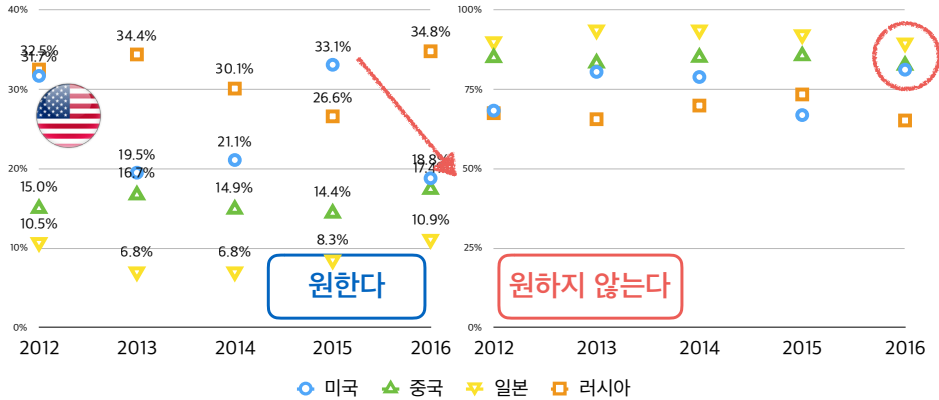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N)
미국	66.1%	71.4%	73.8%	65.7%	84.1%	72.4%(492)
일본	3.3%	6.8%	9.7%	12.6%	3.6%	7.4%(50)
남한	8.3%	1.5%	2.1%	1.4%	2.9%	3.1%(21)
중국	22.3%	20.3%	14.5%	19.6%	8.0%	16.8%(114)
러시아	0.0%	0.0%	0.0%	0.7%	1.4%	0.4%(3)
전체(N)	100%(121)	100%(133)	100%(145)	100%(143)	100%(138)	100.0%(680)

# 평화위협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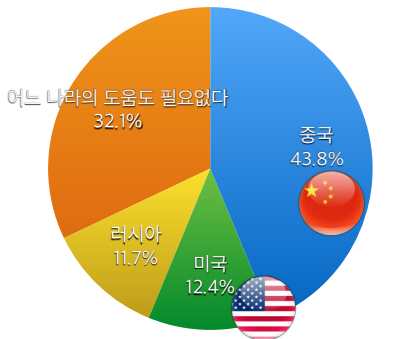
# 주변국 한반도 통일희망



북한주민 응답자 대부분은 주변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비교적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던 미국이 2016년에 18.8%로 2015년 33.1%에 비해 현저히 감소 (-14.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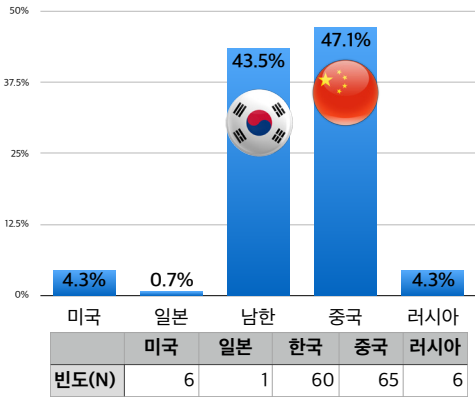
미국을 가장 위협적으로, 중국을 가장 친밀하게 인식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

# 통일에 필요한 국가 발전에 필요한 국가



	중국	미국	러시아	필요없음
빈도(N)	60	17	16	44

한반도 통일을 위해 가장 협조가 필요한 국가는 중국 > 미국 > 러시아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응답한 것도 2016년 32.1%로 2년 연속 증가



	미국	일본	남한	중국	러시아
빈도(N)	6	1	60	65	6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  
**중국, 한국과**  
 가장 가까워져야 한다고 인식함

**감사합니다.**

# 통일과 주변국 인식 (요약)

최규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1. 통일인식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북한주민 응답자는 매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93.2%, 2014년 100%, 2015년 97.9%, 2016년 94.9%
  - 동일한 질문을 남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3.3%
  - 남북한주민 간의 통일인식에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주민에게 통일은 당연하면서도 절대적 과제임을 시사
  
- 북한주민 응답자의 ‘통일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
  - 2014, 2015년의 응답자 97%이상은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6년에는 94.9%로 소폭 하락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를 고려할 때)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모든 사람이 통일은 원하는 것은 아니었음
  
- 북한주민 응답자들은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
  - 북한주민들 응답자 가운데 북한 거주 시 통일 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질문에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이 가장 많은 42%, ‘같은 민족이니깐’이 30.4%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

- 2015년의 경우 '북한의 선진국 도약'이 9.9%로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이었으나 2016년에는 '남북한 전쟁위협 해소'가 12.3%가 세 번째 통일 이유가 됨
  - 실질적인 경제적 이유가 민족주의적 통일인식에 우선하는 특징을 보임
  - 통일의 이유에 대한 남북한주민들의 의식의 차이가 있음
  - 북한주민 응답자의 경우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이 가장 높은 응답률, '같은 민족이니까'가 그 다음이었던 반면 남한주민은 '같은 민족이니까'가 가장 높았고 '남북한 전쟁위협 해소'가 그 다음임
  - 통일에 대해 북한은 경제적 이유, 한국은 민족주의적 이유가 우선함을 알 수 있음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하며 대다수가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일이 불가능하다'라는 응답 역시 44.2%에 이룸
- 즉 '통일을 원하는 것'과 '가능하다'는 것에는 현실적인 판단과 괴리가 있음을 보여줌
  - 2016년 襍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북한주민은 31.9%, '5년 이내'라고 답한 사람은 13%
  - 10년 이내에는 통일에 관한 변화가 있을 것(44.9%)이라는 판단이 북한주민에게 있음
  - 통일에 대한 회의론과 통일 가능론이 북한주민 응답자에 함께 존재
- 북한주민 응답자는 남한의 현 체제의 통일을 대체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8%로 가장 높았으며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가 29%로 두 번째,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절충하여 통일한다'가 14.5%로 세 번째로 나타남(이 선호도 순서는 2014, 2015년과 동일)
  -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는 5.8%로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함
- 대다수의 북한주민 응답자는 통일이 북한사회 전체에 가져올 이익(통일편익)에 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
- 북한주민에게 "통일이 개인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에 관한 응답은 "통일이 북한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응답과는 다소 다른 양상
  - 통일이 북한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98.6%,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97.8%로 나타남(북한에게 '매우 이익'응답은 92.8%, 개인에게 '매우 이익'은 80.4%)

- 통일이 북한에게 집합적 이익이 될지라도 개인적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의 편차는 다소 줄어들음
- 북한주민 응답자는 통일 후 사회가 각종의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북한주민은 통일이 되었을 때 빈부격차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률이 2016년 86.2%로 높은 수준을 보임
  - 실업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응답률 역시 92%로 매우 높은 기대감을 보임  
'실업문제'와 '재북교육수준'은 통계적 상관성을 보임 ( $X^2=32.792$ ,  $p=0.001$ )
  - 지역갈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응답률은 63%로 2015년 54.1%에 비해 높아짐
  - 하지만 지역갈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빈부격차와 실업문제 개선 기대감에 비해서 전반적인 기대수준이 낮음  
이는 통일 후 남북한 간의 지역 갈등이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나타냄
  - 이념갈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응답률은 2016년 75.4%로 2015년 55.5%와 비교해 현저히 높아짐
  - 이러한 결과는 통일 이후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제도적 갈등 및 남과북 사람들의 내제화된 문화와 규범체계의 차이로 부터 오는 혼선은 예상되지만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기대감은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북정책에서 '남북한 간 회담',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인도적 대북지원'순으로 통일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70.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
  -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는 상황, 대북 식량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인도적 대북지원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
  - 학술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교류 등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8.3%
  - 금강산·개성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경제협력이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6.1%
  - 정기적인 남북 간 회담이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1.9%

- 북한주민 응답자의 절반 이하는 통일 후 남한지역에 거주하기로 희망함
  - 북한주민에게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라고 질문하였을 때 전체 응답자의 41.3%가 남한, 34.8%가 북한을 선택함
  - ‘남쪽이든 북쪽이든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이다’라고 최종 거주지를 유보한 응답률 20.3%에 이룸
  - 남한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률이 다시 감소하고 북한을 선택하는 응답률이 증가함

## 2. 주변국인식

- 북한주민 응답자는 주변국 가운데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 미국 순으로 친밀감을 나타냄
  - 지난 2년 간 감소 추세였던 대중친밀감이 2016년 다시 상승(+3.9%p)
  - 이에 반해 지난 2년 간 상승 추세였던 대남친밀감은 다시 하락(-7%p)
  - 2015년 8월 DMZ 목함지뢰 사태로 인한 남북대치 상황, 개성공단 폐쇄, 대북 경제제재 국면 등이 북한주민의 대남친밀감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추정
  - 북·중간의 정치적 냉각이 완화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고 긍정적인 대중인식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40대에서 대중친밀감이 증가
  - 남한 친밀감 상승을 주도했던 20~30대의 하락 추세는 주목할 점
- 북한주민 응답자의 84.1%는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판단
  - 대미위협인식은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2015년 처음으로 증가했던 대중 위협인식은 다시 8%로 전년도 대비 11.6%p 감소, 이는 역대 가장 낮은 응답률임
  - 대학학력 이상의 교육을 받은 북한주민 응답자의 대미위협인식은 다른 학력 배경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대중위협인식 감소는 가장 큰 폭을 나타냈음
  - 즉 고학력 배경의 북한주민 응답자들에서 대미위협인식 증가, 대중위협인식 감소가 뚜렷이 나타남
  - 실제 ‘평화위협국가’와 ‘교육수준’은 통계적 상관성이 있음( $X^2=36.071$ ,  $p=0.000$ )
  - 모든 연령대에서 대미위협인식은 증가함

- 20대, 30대, 50대의 경우 2015년에 감소하였던 대미위협인식이 2016년의 경우 증가 추세로 전환됨.
  - 북한주민 응답자 대다수는 한국을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지 않음
- 북한주민 응답자 대부분은 주변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비교적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던 미국이 2016년에 18.8%로 2015년 33.1%에 비해 현저히 감소(-14.3%p)
  - 북한주민 응답자는 미국을 가장 위협적으로, 중국을 가장 친밀하게 인식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 한반도 통일을 위해 가장 협조가 필요한 국가는 중국으로 43.8%에 이룸
- 2015년 48.6%에 비해 소폭 하락
  - '어느 나라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답한 것도 32.1%로 2015년 28.6%에서 증가
- 북한주민 응답자는 북한이 발전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
- 북한주민에게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중국은 47.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한국은 43.5%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